



우리들은 할 데가 없으니까 학교로 가죠.  
학교 가서 **달이 떴다** 지도록 놀아요,  
밤새지. 하다가 힘들면,  
“받아주게 받아주게, 누가 받아주게,  
목이 아파 못 하겠네. 숨이 가빠 못 하겠네”

[강강술래]

## 박용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자서전 041

강강술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자서전 041

# 달이 떴다 지도록 놀아요

[박용순 朴龍順, 1938~]



---

백중하고 추석하고는 주로  
강강술래를 하지.  
명절 돌아오기를 아주 기다리제.  
메칠씩 했어요,  
메칠씩.



---

밤새 강강술래를 했거든요.  
집에 와서 누워 있으면은,  
꼭 강강술래가 귀에 딱 들려.  
귀에 딱 배긴 것 같어.  
그라믄 잠이 안 들어.



---

강강술래라는 것이  
아무리 양춤을 잘 추고,  
한춤을 잘 춰도  
강강술래는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 보면 이상해.



---

엄마들이 하는 소리가  
그렇게 좋게 들리드마.  
어떤 대목인지는 모르는데  
밤에 들으니까 그렇게 슬프게 들립디다.  
아주, 진짜 잘했어요.



---

강강술래도 사설을 보든  
맨 다 그러더라고요.  
님이 없으면 뭐이든지 노래가 안 되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 일러두기

1. 이 책은 2019년에 진행된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보유자 박용순의 구술 채록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하였다.
2. ‘강강술래란’과 ‘박용순의 생애’는 조사자 이경엽이 작성하였다.
3. 이 책은 구술 채록 자료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한 것으로 현장성과 본래의 뜻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수정하였다.
4. 구술 내용 중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과 인명, 단체명 등은 주석 및 위첨자로 처리하였다.
5. 구술 내용은 구술자의 주관적 기억에 의한 것이므로 날짜·장소·인명 등의 기억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
6. 이 책에 수록된 대부분의 사진 자료는 구술자의 소장 자료를 활용하였다.
7. 이 책의 종목 관련 내용은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2004)를 참고하였다.
8. 이 책 9장의 강강술래 사설은 구술자가 전승하고 있는 내용을 따랐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2004)의 사설과는 다른 부분이 있음을 밝힌다.

• ‘강강술래’란?	015
• 박용순의 생애	019
1. 신비의 바닷길 거기가 향동이에요	026
2. 너무 어려울게 산 걸 내가 기억해요	038
3. 강강술래가 귀에 딱 들려	048
4. 시집 왔응께 각시 노릇 해야제	060
5. 내가 시아재를 키우다시피 했어요	074
6. 원래 일을 건성건성 안 해요	090
7. 노래도 못하는 내가 강강술래를 했다니까	108
8. 백일 제쳐 놓고 강강술래를 했제	120
9. 이것이 내가 하던 강강술래예요	140
10. 배우니까 얼른 배워집디다	170
11. 마음과 뜻만 맞으면 잘할 수 있어요	184
• 조사자 약력	194



## ‘강강술래’란?

강강술래는 추석, 백중, 유두, 대보름 등 보름달이 뜨는 명절 저녁에 연행되는 민속놀이이다. 강강술래라는 명칭은 노래의 매 소절마다 ‘강~강~술~래~’라는 후렴을 함께 부르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 놀이는 전라도 도서 해안지역부터 내륙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전승되고 있다. 원을 그리며 노는 원형의 놀이라는 형식이 동일하지만 지역에 따라 악곡, 춤사위, 놀이 방식 등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강강술래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전하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가 주로 거론된다. 하나는 고대로부터 비롯된 풍년 기원을 위한 놀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강강술래를 전투에 활용하여 왜의 수군을 물리쳤다는 설화다. 강강술래와 이순신의 관련설은 임진왜란 때의 전란지 울돌목에 끼고 있는 진도와 해남지역에서 특히 의미 있게 수용되었다. 강강술래가 민족적인 위기에서 왜적을 물리치는 데 기여했다는 설명은, 강강술래를 전승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작용했으며 그만큼 각별하게 해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강술래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무정 정만조(茂亭 鄭萬朝, 1858~1936)가 1896년에 진도로 유배와서 기록한 『은파유필(恩波濡筆)』에서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강강술래를 ‘강강수래(強強須來)’ 또는 ‘강강래곡(強強來曲)’이라고 적고 있다.

강강술래는 놀이 형태로 볼 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손을 잡고 원을 돌면서 ‘강강술래’라는 받는 소리를 부르며 뛰어 노는 원무로서 긴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등이 있다. 이것을 협의의 강강

술래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원무에 덧붙여져서 함께 노는 부수 놀이다. 부수놀이에는 남생아놀아라, 개고리타령, 고사리꺾기, 청어엮기, 덕석몰기, 지와밧기[기와밧기], 손치기발치기, 바늘귀뛰기, 문취새끼, 술래소리 등이 있다. 이 놀이들은 그 종류와 놀이 방식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진도와 해남의 강강술래가 1966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당시 보유자로 인정된 이는 양홍도(진도군 고군면), 김길임(해남군 우수영) 등이다. 전임 보유자들이 사망함에 따라 1976년에 최소심(진도군 군내면), 1993년에 박용순(진도군 군내면), 2000년에 박양애(해남군 우수영), 김중심(진도군 임회면), 박종숙(진도군 진도읍), 차영순(해남군 우수영)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강강술래는 본래 순서가 고정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경연대회에 출연하고 무형문화재라는 범주에서 공연화되면서 통용되는 순서가 마련되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강강술래의 순서를 보면, 자진강강술래로 입장-긴강강술래-중강강술래-자진강강술래-남생아놀아라-개고리타령-고사리꺾기-청어엮기·풀기-덕석몰기·풀기-기와밧기-대문열기-꼬리따기-술래-퇴장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긴강강술래-중강강술래-자진강강술래가 가장 기본적인 놀이이며, 그 뒷부분의 놀이들은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

강강술래 사설은 고정돼 있지 않다. 요즘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에 공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정형화된 사설을 부르는 경향이 있으나 예전에는 부를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부르곤 했다. 자료에 따라서 또는 구술자에 따라서 사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

런 이유에서다. 강강술래 사설은 달에 관한 노래, 시집살이에 대한 노래, 부덕을 기리는 노래, 남녀 간의 사랑을 구하는 노래, 계절을 찬미하는 노래, 집안일에 관한 노래, 고사리뿌기·청어엮기·덕석몰기 등 모의 동작을 하며 부르는 노래, 역사적 사건이나 항일에 대한 노래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강강술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놀이답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축제나 놀이 공간에서 다양하게 공연되고 있다. 2009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근래 들어 공연예술 형태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강강술래의 다양성을 새롭게 회복하고 창조적으로 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박용순의 생애

박용순은 1938년에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향동에서 부친 박재진과 모친 허섬예의 3녀 1남 중 장녀로 태어났다. 그녀의 고향 향동은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회동과 가까운 곳이지만 진도에서 제일 높은 첩찰산(해발 485m) 자락에 위치한 산골 마을이기도 하다. 박용순은 그곳 향동에서 23세 되던 1960년에 산 너머 서북쪽에 자리한 군내면 둔전리로 시집와서 남편 이수봉과의 사이에서 6녀 2남의 자녀를 낳고 살아왔다.

박용순은 어린 시절 일제 강점기를 보내고 한국전쟁을 겪었다. 그리고 관제 농촌운동이 시작되던 시기에 신흥 살림을 일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았다. 그녀의 생애는 개인의 일생에 그치지 않고 한국 현대사 및 지역의 문화사와 연계돼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의 구술을 보면 5살 때 충남 장항으로 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가는 아버지를 따라 1년 정도 이주했던 이야기가 나온다. 일제 강점기에 신흥 도시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던 사람들의 생활사를 보여준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진도에 들어온 인민군들에게 아버지가 붙잡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고 그로 인해 가족들의 거처가 진도읍에서 고향 향동으로 옮겨지는 변동이 생기기도 했다. 또한 결혼 직후인 1961년은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국가재건운동이 진도의 농촌에까지 펼쳐질 때였다. 당시 시·군·읍·면별로 선전·계몽 사업을 하기 위해 축진회가 조직되었는데, 축진회 주최 강강술래 대회에서 둔전리의 선소리꾼으로 참가해서 2등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재건운동본부에서 부너부(부녀회)를 신설해서 생활 개선 운동을 할 때 부너부 회장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박용순이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보존회 활동에 참여한 것은 1980년부터다. 같은 마을에 살던 최소심(1908~1992)이 1976년에 강강술래 보유자가 된 뒤로 전수생을 선발할 때 그녀가 뽑히면서 본격적으로 전수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는 1961년에 축진회 주최 강강술래에서 선소리꾼으로 활약했던 배경이 작용하기도 했다. 이후 국내외 각종 공연에 참여했으며, 1990년에 보유자 후보가 되고, 1993년에 강강술래 보유자가 되었다. 보유자가 된 뒤로는 예능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름난 선생들을 찾아가 판소리, 고법, 민요 등을 사사하기도 했다. 그리고 진도실버예술단에 가입해서 크고 작은 공연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금은 강강술래보존회의 원로로서 후배들과 함께 강강술래가 체계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후계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대외적으로 볼 때 박용순은 무형문화재 보유자라는 타이틀로 호명되지만, 실제 그녀의 인생은 일반 농부 또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훨씬 부각된다. 그녀는 역척스럽고 희생적인 인생을 살았다. 결혼 후 시어머니와 함께 논일, 밭일을 하면서 6명의 시동생, 시누이를 돌봐야 했다. 그녀가 시집왔을 때 겨우 100일 된 막내 시동생은 물론, 이후 여러 사정으로 엄마를 잃은 시조카들까지 돌봐야 했다. 그녀는 쉬지 않고 들일을 하고 품앗이, 바느질 등을 하면서 살림을 일구어 가족들의 생계를 안정화하고, 자식들 교육에 매진해서 8남매 모두 대학 졸업을 시켰다. 아이들을 잘 봐주던 시아버지와 속 깊은 남편이 곁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녀의 씬 없는 희생이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서 그녀는 뒤늦게 72세에 중학교에 입학해서 연달아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고 76세에 졸업했다. 만학도가 되어 자신의 배움을 채운 데서 보듯이 그녀는 인생을 성실하고 알차게 채워왔다. 명절이면 60명에 이르는 대

가족이 모일 정도로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다는 것이 그녀의 자랑이라고 한다.

그녀의 생애를 보면, 한 여자의 경이로운 일생을 마주하게 된다. 그녀의 구술 속에 담긴 진도 특유의 사투리와 힘겹지만 정겨운 삶의 모습들도 인상적이다. 강강술래가 진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색다르게 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박용순이 걸어온 길

연도	나이	내용
1938년	1세	7월 13일, 진도군 고군면 향동 출생 (부친 박재진과 모친 허섬예 사이에서 3녀 1남 중 장녀)
1943년	6세	충남 장항의 솔공장에서 일하게 된 부친을 따라 잠시 장항 거주
1944년	7세	외가인 진도읍 쌍정리에서 생활
1947년	10세	진도국민학교(현 진도초등학교) 입학
1950년	13세	국민학교 4학년 때에 한국전쟁을 겪음
		고향 고군면 향동으로 이사 향동국민학교(현 오산초등학교)로 전학
1952년	15세	향동국민학교 졸업
1953년	16세	명절이면 친구들과 강강술래를 함
1960년	23세	군내면 둔전리에 사는 이수봉(24세)과 결혼
1961년	24세	축진회 주최 군내면 강강술래에서 앞소리 메김(2등상 수상)
1963년	26세	둔전리 부녀부(부녀회) 회장
1966년	29세	큰딸 이향아 출생
1967년	30세	작은딸 이예숙 출생
1969년	32세	셋째 딸 이명아 출생
1971년	34세	넷째 딸 이금아 출생
1972년	35세	다섯째 딸 이민아 출생
1973년	36세	군내국민학교 자모회장

연도	나이	내용
1974년	37세	여섯째 딸 이성아 출생
1975년	38세	아들 이동기 출생
1976년	39세	막내아들 이동영 출생
1978년	41세	진도군 교육장 표창장 수상
1980년	43세	강강술래 전수활동 참여. 보유자 최소심 사사
1981년	44세	국풍 '81 강강술래 공연 참가
1985년	48세	‘훌륭한 아버지’ 표창장(진도군내중학교) 강강술래 전수장학생 교육 수료
1990년	53세	강강술래 보유자 후보(현 전승교육사) 인정
1991년	54세	사할린 교포 위문공연 참가
1992년	55세	표창장(진도향교)
1993년	56세	강강술래 보유자 인정 전라남도 도민체전 강강술래 공연(목포)
1994년 - 1995년	57-58세	이임례, 추정남, 강송대 등에게 판소리, 고법, 민요 등 사사
1994년	57세	리틀엔젤스에술극장 공연
1994년 - 2000년	57-63세	거제시 부인회 지도, 거제시민의날 공연(9회), 거제시 상고학생 지도(2회)
1995년	58세	일본 동경국제극장 공연 (「民族藝能の祭典- 世界うたとおどりの傳統」, NHK방송 70주년)



연도	나이	내용
1995년	58세	보성군 부인회 강강술래 지도
1997년	60세	광주비엔날레 강강술래 공연
1998년	61세	충남 부여 부인회 강강술래 지도(은산별신제) 경남 양산 공연, 대구 초청 공연
1998년 - 1999년	61-62세	충남 원양여자고등학교 학생 지도
1999년	62세	서울대학교 체육학과 학생 지도
2000년	63세	중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학생 지도
2000년 - 2001년	63-64세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생 지도
2009년	72세	목포제일정보중학교 입학
2011년	74세	목포제일정보중학교 졸업
2013년	76세	목포제일정보고등학교 졸업
2019년	82세	강강술래 정기발표회(진도군무형문화재전수관) - 매년 빠지지 않고 참가

# 1

## 신비의 바닷길 거기가 향동이에요

- 38년생, 내가 첫째요
- 아버지가 아주 잘 생겼어요
- 내가 향동서 태어났죠
- 5살인데도 기억이, 다 알아요
- 인민군이 들어온다고 총 쏘고 난리여
- 혼자 걸어서 향동으로 왔어요





박용순은 1938년 음력 7월 13일, 아버지 박재진과 어머니 허섬예 사이에서 3녀 1남 중 첫째로 태어났다. 그녀가 태어난 향동은 신비의 바닷길과 가까운 산골 마을이었다고 한다. 5살 때 아버지의 사업을 이유로 충남 서천군 장항으로 이사를 했으나, 머지않아 사업 실패로 진도읍 쌍정리 외갓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어 일어난 6.25 전쟁으로 박용순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 38년생, 내가 첫째요

---

(태어난 해는) 38년생, 음력 7월 13일이에요. (호적이) 어떻게 정확히 아주 거[정확] 했어요. 내가 첫째요. 옛날에는 흥역하다 마이 죽고 그러니까. 그라고는 그 뒤에 둘째는 나하고 나이가 3살 차이 (정도 된) 남동생이 났는데, 이름은 박용수 [朴龍洙, 1941~1989]예요. (그런데) 일찍 죽었어요. 외동아들인데, 그것도 말을 못 하겠네요. 그것도 아주 똥 (말을) 할라면 한정 끝이 없어. 그라고 그 뒤로 또 딸인데, 개는 박정순 [朴正順, 1951~]. 애기 낳아서 한 몇 개월 땀는데 6.25 (전쟁이) 났어요. 그 다음에가 수자 [아명, 호적상 박인순(朴仁順), 1953~], 끝으로 가면 나이가 다



동생 박용수를 안고 있는  
친정어머니 허섬예(허섬심), 외삼촌 허영모

적어요. (막내 인순이가) 한 육십 다섯이나 되었는가, 그렇게 딸 셋(이  
예요.)

## 아버지가 아주 잘 생겼어요

친정아버지 이름은, 박재진 [朴在鎭, 1918~1976]이에요, 박재진. 옛날에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 잘 살았대요. 그때만 해도 막내 삼촌이 대학을 다녔어, 서울서. 그래갖고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었대요. 그럴 때 아버지가 기냥 놀겠냐 싶어서 장에 다니면서 검정 고무신, 하얀 고무신, 그 고무신 장사를 장마다 나가면서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5살이나 되었던가 어쨌던가, 굉장히 큰 집서 살았어요. 옛날에도 아버지가 아주 잘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학교도 중학교를 댕겼든가, 고등학교를 댕겼든가 배웠어요. 배운데다가, 뭇을 잘했냐 그러면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장구 잘 치고. 아주 내가 장구라 하면 보기 싫을 정도로 그랬어요. 아주 그냥 멋쟁이들은 다 달겨들고 일을 모대 [못 해] 먹으니까.



친정아버지 박재진

지금 생각하면, 다 죽었어요. (당시에) 이쁘고 멋진 엄마들, 아따 멋쟁이들. 누구네 이모라 하면 알 정도로 지금 알아요. 아줌마들 아저씨들 할 것 없이 장구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아버지는 <육자배기> [6박 진양조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대표적인 전라도 민요], <흥타령> [그리움을 주제로 한 남도민요]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서울로 갔죠. 동생 [박용수]이 서울 가 있었는데, 서울에서도 그랬대요. (아버지가) 노인당 같은 델 땡김시로. 잘하니까 손님이 많드래요.

## 내가 향동서 태어났죠

---

물 갈라지는 회동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저쪽 섬 거기를 짐섬, 지섬 그러거든요. 지금 모도 [진도군 의신면 모도리에 딸린 섬]라 하지. 외할머니가 거기 분이예요. 진도 사람들은 동네로 시집가면 딸 이름을 거의 동네 (이름으로도) 짓고 그랑께. (외할머니가) 진도읍 쌍정리로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엄마 (이름이) 허섬섬 [아명, 호적상 허섬예(許漣義), 1919~1993]이요. 딸만 하나였는데, 아들 넷 중에 켈 모지 [만]이 었어요. 그런데 엄마 할머니 [구술자의 외할머니네]도 내가 알기로는 남자 머슴, 또 여자 답살이 [머슴], 그렇게 해놓고 살았다더라고요, (진도읍) 쌍정리에서.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외갓집 가면 모네기를 소 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봤거든요. 옛날 외할아버지 댁도 잘 살았어요. 한약방 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아들은) 외삼촌이 네 분이고, (딸은) 어머니가 한 분이예요. 어머니가 켈 우게 [위]예요. (친정아버지하고) 결혼을 어찌케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고. 그렇게 (두 분이) 결혼을 해갖고 내가 향동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서 태어났죠.

그 신비의 바닷길<sup>●</sup> 가는데, 바로 거기가 향동이에요. 옛날에 2백 한 50 호 되었어요. 거가 상, 중, 하리 그렇게 크고, 아주 산골이죠. 지금은 교통이 좋아져서 뒤로 길 나고, 앞으로 나고 그랬지. 전에는 눈이나 이렇게 오면은 결혼식 할 때도 재 [교계]에서 내려갖고 걸어서 왔지. 그럴 정도로 낡고 [가파르코] 아주 두메산골이여. (향동에) 밀양 박씨가 많이 살았어요. 거의 3분의 2정도 됐을 거요.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자료제공: 진도군청

해마다 음력 2월 말부터 4월 초경,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에 길이 2.8km, 너비 약 40m의 길이 생겨 걸어갈 수 있게 된다.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은 약 1시간이다. 이는 극심한 조수간만의 차로 바닷물이 낮

아질 때 해저의 사구가 드러나면 마치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진도에서는 이 현상을 ‘영등살’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남해안과 제주도 일대에서 어업과 농업을 주관한다고 믿는 바람의 신 ‘영등할머니’와 연관돼 있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회동리에서는 이를 기리는 풍신제의 일종인 영등제를 지내고 있다. 2000년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1975년 주한 프랑스 대사 피에르 랑디가 진돗개 연구차 진도를 방문했다가 이 현상을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 소개하면서 부터이다. 1978년 4월 15일, 제1회 진도 영등살놀이가 개최되었으며, 오늘날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로 발전하였다.

## 5살인데도 기억이, 다 알아요

---

군산 [전라북도 군산시]서 쫓 가면 장항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이라 있죠. 내가 어렸을 때, (장항으로) 배 타고 가드만. 오촌 큰아버지 [당숙]가 거기서 백술 [양은 술] 만드는 공장을 한다고 (아버지한테)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논 같은 것도 싹 팔아가지고 합자해서 그것 [술 공장]을 하자 그랬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장항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도 열차가 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저녁에 있으면, 열차가 ‘삐악-’ 울고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내가 어렸을 땐데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기차를 타고 군산까지 가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장항으로) 이사를 가서 살았어. 2년을 살았는가 1년을 살았는가, 압튼 거기서 아버지가 못 살겠다고, 진도로 가자고 왔어. 아버지도 몇 달이나 있다 (향동으로) 왔는데 농토도 없고,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구 말마따나 살 수가 없죠. 그만큼 (내가) 5살 [1942년]인가 그렇게 되어요. 그래도 기억이 다 알아요.

(결국에) 쌍정리 외갓집으로 갔어요. 내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인데, 외할아버지가 즈그 딸 고생시켰으니까, “일절 집에 비쳐보지 말라. 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쌍정리인데, 딴 데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먹고 사는 것은 엄마가 바느질하고, 명주 베도 짜고, 밤이면 할아버지 모르게 외할머니가 외숙모 통해서 쌀, 보리 같은 거 (우리 집에) 가져오고 (했대요.)



좌측부터 큰딸 이향아, 동생 박용수, 둘째동생 박정순



친정어머니 허섬예(중앙)와 그 친구들

## 인민군이 들어온다고 총 쏘고 난리여

내 나이가 8살 [1947년, 10세로 추정] 되었어요. 진도국민학교[현 진도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레갓고 4학년 [1950년, 13살]까지 땡겼는데, 6.25 사변 [6.25 전쟁]이 났어요. 맨날 소문에 인민군이 들어온다, 오랑개가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으로 미숫가리 해갓고 도망가자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인민군이 들어온다고 총을 쏘고 난리여, 아주.

(그때) 우리 동생 [박정순] 낳아서 애기는 (방에) 누여놓고, (가족들은) 마루로 나갔어요. 고내기 [항아리], 지스랑 [취마 밀] 새에다가 [사이에] 전부 숨어갓고 있었어. 나도 엄마 따라서 숨어 있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가지드만. 그럴 때 (누가) 거기 서라고, 막 소리를 지르드만. 그란께 내 어린 마음에 나와서 봤어요. 보니까 인민군 옷 입을 사람들이 너 [넌]인가, 총을 딱 겨누면서 손을 들라고 합디다. 그레 아버지 딱 서서, 손을 딱 들드만. 옆 담장이 굉장히 높았는데, (인민군들이) 그걸 뛰어넘으라 그드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담장을 톡 뛰어넘어요. 그라고 (아버지) 손을 탁 묶으더니 끌고 갔어.

아버지가 손이 너무 고우니까 (인민군들이) “너는 틀림없이 경찰이나 그런 것 해먹지 았았냐. 남의 피 빨아 먹고 살았지?” (아버지) 손이 절대 ‘일한 사람 손’이 아니다, 그라고. 매일 같이 죽인다 해요. “오늘 저녁에 죽인다, 내일 저녁에 죽인다.” 그레도 인민군들이 들어오는 날 아침에 (아버지를) 잡아갓는데, 나가는 날 내봤어요. 선산 [조성이] 돌봤던가 안 죽고 우리가 살았어요.

## 혼자 걸어서 향동으로 왔어요

인민군들이 가고, 우리 순경들이 들어오니까 매일 같이 시골 땡김시로 그쪽 [인민군] 사람들 잡아 오드만. 사람들을 전부 손을 얹어갖고 줄을 쭉 시위갖고 읍에 끌고 가갖고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보고 하는 말이, “어찌게 되었든지 너는 살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향동으로 가거라.” 그랬어. 향동에 할머니가 살아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내가 얼굴을 몰라요. (향동에 가려면) 아주 산골로 해서 사천리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로 해서 넘어가거든요. 요 길이 제일 빨라요. (그때 계절은) 여름 같어. 나무가 퍼러니 그랬으니까. (그런 데 거기가) 우리들도 장어를 가게 되면은 혼자 못 땡겼어요. 벗해서 같이 장에 가고 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하늘하고 땅밖에 안 보였어요. 그렇게 고랑이었어요. 돌길이고, 포룻이 [간신히] 사람 하나 걸어 땡길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 데를 나보고는 ‘살라고, 너나 살아라. 가라.’ 그러니까 나는 (향동으로 가다가) 비행기가 오면 나무 밑에 었졌다가, 또 그렇게 오고, 또 (비행기가) 가면 걷고 그랬어. 잡아갈까 봐서 그랬던가 몰라,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혼자) 걸어서 향동까지 왔어요. (향동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물어봐. “너거 아버지는 뭐하냐.” 내가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따라 땡겨요.” 그랬어요. 할머니하고 꽤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4학년 때 [1950년, 13세] 향동 학교 [향동국민학교, 현 오산초등학교]로 전학을 했지.

나중에는 아버지가 이제 읍에서는 못 산다고, 엄마랑 전부 모시고 향  
동으로 왔어요. 그때 정순이 텔꼬 오고, 그 뒤에 이제 향동에서 막내  
[박인순]를 낳았죠. 그런데 막상 살 데가 있어야제. 어찌케 구했든가 아주  
오막살이 집인데, 단칸방 한나 [하너], 부엌 한나, 마루 한나 아무것도 없  
는 작은 집에 방바닥도 거름 푸대 발르고 들기름 맥여서 살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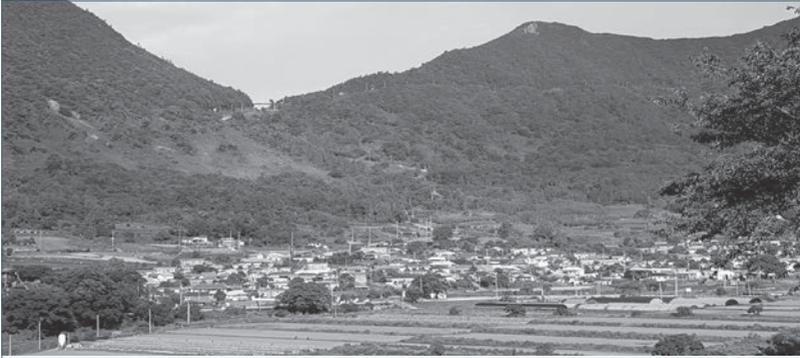
엄마가 부잣집 딸이니까 혼수 같은 거 많이 해갖고 왔었어. 홑대야 같  
은 거, 홑하리 [홑화리], 큰 지상 [계사상], 아무튼 살림살이를 (시택에) 다  
맡겨놓고 갔더라구요. 그래서 (향동) 와서 그걸 이고 다넘서 팔고, 보  
리 한 되 갖다먹고도 하루 종일 념의 일하고 먹고 살았어요.

## 2

# 너무 어려웁게 산 걸 내가 기억해요

-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곤란했어
- 내가 바느질로도 성공했을 거예요
- 우리 살 때는 쌀밥 먹기가 어려웠죠
- 유행가 불렀다고 벌서고 그랬다고
- 무용 같은 거 잘해서 귀여움 받았죠
- 진도 여자들이 드셨제





12살 무렵, 친가가 있는 향동으로 돌아온 박용순.  
하지만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했다.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물렛방 품앗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냈다. 그렇게 먹을 걱정이 앞선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어머니의 힘이었다.

##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곤란했어

---

우리가 너무 어려웁게 산 걸을 내가 알아요. 아버지는 원래 일은, 전혀 (안 하셨으니까.) 엄마가 나무를 머리로 여다가 [이어서] 마당에다가 이렇게 놔둔 것도 비 올라하면 그걸 재우잖아요 [치우잖아요]. 그것도 안 했어요. 향동 와서 사는데 너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곤란했어.

그렇게 가난했어도 옷은 잘 입었어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뭐를 사지는 못해도 엄마가 신했고 [신하다, 손재주가 있고 솜씨가 좋음] 있는 옷이 많아서 옷을 잘해 입혔어요. 녀들은 소오리 [조우리, 짚신] 있었잖아요. 짚이로 엮은 것을 앞애가 끈 달아진 거 있어요, 쓰레빠 [솔리페] 같이. 옛날에는 그런 소오리나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나는 운동화같이 생긴 거 (신고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부잣집 애들도 국민학교 못 댕기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없으면서도 나하고 동생을 국민학교 보냈어요.

(한번은) 내가 국민학교 댕길 때, 너무 없으니까 읍에 와서 외삼촌보고 껌을 줌 사주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뭘 생각으로 그랬던고. (그렇게 껌을) 사갖고 와서 향동국민학교 학생들한테 그걸 팔았어요. 그래갖고 공책도 사고 그런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졸업할 때 사은회 했잖아요. 그때 돈 얼마씩 하고, 쌀 한 되씩 하고 가지고 오라드만. 그런데 내가 엄마한테 (돈하고 쌀) 주란 말 안 할라고 사은회를 하러 안 갔어요. 그날 하루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몰라요.

그렇게 뼈저리게 가난했는데, 아버지는 한량마냥 돌아다니고 놀 즐만 알지. 가정에는 충실하지 못했어. 맨날 하는 게 노래하고 장구치고, 집

에 모이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잡겼어요 [싫겠어요]? 진짜 보기 싫고. 엄마는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그랬어요. 어찌다가 그렇게 남편을 잘못 만나갖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고생 엄청 했어요.

## 내가 바느질로도 성공했을 거예요

---

엄마가 몰렛방 [물레질 품앗이 모임] 품앗이 하러 댕기는 거 봤어, 내가. 다섯이, 여섯이 그렇게 앉아서 물레하고 또 베 할라문 (실을 베틀에) 매잖아요. 술 갖고 매고, 꾸리를 감어갖고 삼아갖고 실로 짜제. 비자나무 북 [베를 짤 때 씨실의 실을 풀어주는 도구]에다가 얼크락질크락 짜느라 그라테끼, 참말로. 엄마가 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락 [마을]에서 바느질 도맡아 갖고 하고, 명주 베 같은 거 많이 짰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짜는 베를 내가 짜봤는데, 안 어렵디다. 어머님 일을 그래 거들었죠. 그때는 바지 저고리 하고, 한복이니까. 한복 옷은 내가 어머니를 거들었어요. 그때는 아가씨한테 허리도 아픈 줄 몰랐지요. 살다보니까 아프제.

그때 오일시 [전도군 고군면 고성리]에 양재학원 [양복 재단, 재봉을 배우는 전문적인 기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학원이 가고 싶었고 학교가 가고 싶었고 그랬어도 못 댕겼는데. 거기 학원에서는 거름푸대로 옷 뿐 [빈]을 만들드만. 나는 그걸 빌렸어요. 이제 그놈을 놓고 혼자 짤라갖고 한 번 해봤어요. 하니까 되더라고. 미싱도 없으니까 손이로 주워서 [기워서] 만들어 보니 옷이 되야. 그래서 내가 바지도 만들어 봤고, 조끼 같은 거, 브라우스 [블라우스] 같은 것도 손이로 만들어 봤고 그랬어요. 한복 바지는 엄마가 손이 쫓 신했어요. 남의 혼수 바느질 같은 거를 다 맡아갖고 하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봤잖아요. 3겹 저고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내가 한 번 딱 뜯어보고 그걸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해갖고 미싱 사주니까, 내가 이 부락 [둔전리, 시집 온 마을] 사람들 것을 했죠.

그르니까 강강술래를 안 하고 바느질을 했으면, 내가 진짜 옷느라 하는 말이 아니라, 서울에 가서 이걸로도 성공을 했을 거예요, 솔직한 말로. 지금도 옷을 사서 마음에 안 맞으면 난 뜯어고쳐요. 그 정도로 내가 손이 신해. 내가 이발도 잘 잘라주고, 결혼하는 사람들 고데 [열로 뜨겁게 하여 머리 모양을 다듬는 일]도 다 해줬거든요. 그런 것은 눈이로 한 번 보면 했어요.

## 우리 살 때는 쌀밥 먹기가 어려웠죠

---

엄마가 어찌케 하든지 바느질을 해서 (가족들) 맥였어도 남같이 칩밥을 많이 먹었대요. 죽밥 많이 먹고, 죽을 또 매일 뜯었어요. 향동은 가게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가계마을]로 내려가 회동 가는 데가 내 [시냇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죽이 많이 있으니깐. 매일 탄 부락에서도 죽을 뜯으러 왔거든요. 그랑께 (죽을) 디쳐가지고 [메쳐서] 죽밥은 많이 먹었어.

우리 살 때는 명절 때나 쌀밥 먹었지 쌀밥 먹기가 어려웠죠. 그란 뎨 없으니깐 보리(밥)도 해 먹고, 조 있잖아요, 서숙. 서숙을 알맹이(째) 먹는 게 아이라 다 기냥 뽀사요. 그러면 조산 가루 [좁쌀 가루]가 되어야. 계속 뽀수면 아주 몽글게 뽀사져. 좀 까랍지요 [까말까말함]. 거기다가 죽을 넣어서 해 먹었어요. 그라고 꺾보리를 깎으도 안 하고 갈아가지고 죽 끓여 먹고, 바다에서 툷 매서 툷밥 많이 먹고, 갈포래 [갈파래, 파래과의 해조] 밥이나, 보리쌀에다가 엮어갖고 밥을 해 먹었다 그래요. 그렇게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아주 있는 사람 말고는 거의 그케 먹었을 거예요.

여기 태산재 [진도군 의신면에서 향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있더라. 말하자면 두무골재여. 거기가 사람 한나 걸어 땀길 정도 밖에 안 되고 아주 꼬불꼬불 그렇게 생긴 재를 그렇게 만들어놨지. 그 뒤에 산이 덕신산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위치, 해발 398m]이고. 거기는 뭐, 봉우리도 많아요. 마을이 깊으니까 산봉우리가 많제. 옛날에는 호랑이도 많이 살고 그랬다고 함디다. (산에서 먹을 건) 산딸기, 딸기밖에는 별로 없죠. 보리 나물도 캐러 땀기고, 고사리 같은 것도 끊으러 땀겼지요. 또, 녀들은 밭에다 뽕을 많이 심어서 누에를 키우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까 산에 갔어요. 꾸지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의 일종]라고 있는데, 그걸 누에가 먹고 살거든요. 누에가 매일 먹으니까. 산에서 꾸지를 매일 딴 거 같아요. 진짜 봄 돌아오면 그걸 많이 했네요.

봄 돌아오면 머이마들 [남자 아이들]하고 가이나들 [여자 아이들]하고 보리밭에 가 보리콩 따다 어느 집에 와서 소여물 하는 솔에다 삶아갖고 전부 먹고, 호박 나면 호박 따다가 삶아서도 먹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배고픈 시절이라 그랬든가 어쨌든가, 그런 것을 잘 해다 먹었어.

## 유행가 불렀다고 벌서고 그랬다고

(국민학교 때) 유행가가 처음 나왔어요. 우리들이 모여서 놀면서 저녁에 “나는 열굴이 붉어졌어요. 가르쳐드릴까요. 열일곱 살이에요” 그 노래 [나는 열일곱 살이에요], 가수 박단마(1921~1992) 노래, 1938년 발표]를 불렀거든요.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다 그 소릴 들었던 모양이야. 뒷날

학교 가니까 이름 불름시로 나오라고 그러드만. 나가니까 벌을 서라고 (하는데) 뭐 이윤지 모르지. 벌을 섰어요. 그랬더니 그런 노래 불렀다고 벌했던 거예요. 그런 게 기억나요.

그때 인기 있던 가수는 이미자 [李美子, 1941~, 대중가요 가수], 남인수 [南仁樹, 1918~1962, 대중가요 가수], 최희준 [崔喜準, 1936~2018, 대중가요 가수], 현인 [玄仁, 1919~2002, 대중가요 가수] 씨 (였어요.) 큰애기 됴시로 유행가를 많이 부르고 놀았어요. 우리 우계 언니들 또래가 <육자배기>나 <홍타령>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잘하드만, 우들 [우리들]부터는 안 했어요. 아무튼 명절 때도 그렇고 내가 (유행가를) 많이 들었어.

## 무용 같은 거 잘해서 귀여움 받았죠

---

(향동국민학교) 거기는 반이 적었어요. 4학년으로 [1950년, 13세] (전학을 갔죠.) 진도서 학교 댕길 때도 (그랬지만)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2살, 3살 더 먹은 언니도 있고 그랬어요. (나이가) 4살, 5살 그렇게 많은 학생들도 있더라구요, 아가씨처럼. 여하튼 학교를 내가 댕김스로 (한 반에) 50명 이상 됐을 거예요. 여자들이 더 많았던 거 같아요.

학예회를 하든지 뗏을 하든지 무용 같은 거 잘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아주 귀여움 받았어요. 손에 바구니 끼고, 그런 거 했어요. 결혼해갖고 요 마을 [군내면 둔전리] 와갖고도 우리 한춤을 났거든요 [배웠거든요]. 누구누구 하든지 각시들이 다 났어요. 선생님이 하나 있었거든요. <도라지> 하면서 춤도 추고 하여튼 그런 거 많이 했어요.

## 진도 여자들이 드섯제

---

(일하는) 밭은 여러 가지죠. 보리밭은 두 번 정도 맬 것이여. 봄에, 설 쇠고 매는 걸 ‘첫밭’, 그 뒤로 한 (음력으로) 2월 달에 매는 것을 ‘두밭’ 그라제. 지금은 금비 [화학비료]가 있음게 거름을 하는데, 그때는 퇴비를 하게 해서 논에 풀을 베어. 땅에 있는 풀을 호맹이 [호미]로 뽑아가지고 메꼬리 [땅태기]에 담어. 담이다 논에다 뿌려.

지금은 바구니가 있지만 옛날에는 짚으로 엮은 메꼬리가 있어요. 요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갖고 딱 깔고 아가씨들이 (일렬로) 쪽 길에가 앉았으면 사람이 못 걸어가잖아요. 그라고 풀 캐러 가서 사람들 오면, 노래하고 가라하고 징했지라. 풀 메꼬리로 못 지나가게 (길) 가운데다 놓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길 막는다고) 막 뭐이라 하고, (노래 앓고 도망가면) 쫓아오고, 벨 일이 다 있어요. 지금은 학교 땡김서 연애도 하고 허는디, 옛날에는 일하면서 연애 걸고 그란 거이제. 우리 동네도 그랬지만은 고군면 오산, 지막리는 아주 소문이 났어요. 남자들이 지나가질 못했어. 옛날에 쫓 뭐랄까. 여자들이 드섯제. 밭 맬시러 [매떡] 사람 지나가면 총각인지, 결혼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건들었지.

그라고 회동이 지금은 그리 개발했지, 그때는 순 바위였어요. 물만 일케 갈라지는 치땡 [수면 아래의 완만한 언덕]만 있을 때부터 거길 갔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관광지가 됴시로 다 헐어붙고, 길 만들고 뿃하고 했음게 그라제, 옛날에는 영 바구 [바위]였어. 옛날 그 모습이 좋았어, 신기했죠.

(신비의 바닷길) 축제하기 전에 물 갈라지면, 우들은 바지락 캐러 갔어요. 3월만 되면 거길 [회동에] 갔어요. 치땡 물 갈라징게 반지락 [바지락] 파

러 가자 그라고. 그런 때도 (여자 아이들이) 다 머리로 자르고, 농지기 [훈수] 옷 내서 다 아주 이쁘게 하고 그 갔었어요. (흙이 묻어도) 그렇게 차려입고 갔어요.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한계. 향동이지만 오산, 지막리 아가씨들 또래를 많이 알게 됐죠. 이틀, 삼일씩 가서 반지락 판다고 가고, 굴도 캐고, 사람 구경하고 오고 그랬어요. 오후에 가니까 밥은 먹고 갔다가 올 때도 캄캄한 밤에 왔어. 걸어갔다 걸어오니깐. 여하튼 땀겨. 땀을 할라 그렇게 거기를 땀겨던가 몰라, 지금 생각하면.



10대 후반, 고향 친구들과 함께  
(뒷줄 좌측 첫 번째 박용순)

# 3

## 강강술래가 귀에 딱 들려

- 어찌케 그렇게 뛰었던가 몰라요
- 향동에서 씻김굿은 많이 했지라
- 추석에는 강강술래 설에는 아리랑
  - 우들은 맨 돌면서 뛰었제
- 엄마들 소리가 그렇게 좋게 들려





향동에선 설에는 <아리랑>을 부르고, 백중과 추석에는 강강술래를 했다고 한다. 특히 추석이면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에 모여 밤새도록 강강술래를 했는데, 무조건 자진강강술래를 하며 뛰어다녔다. 반면 엄마들은 긴강강술래를 주로 불렀는데, 어찌나 그 소리가 좋은지 박용순은 지금도 그 가락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다고 말한다.

## 어찌케 그렇게 뛰었던가 몰라요

---

설 하루달이라고 있어. 2월 하루달 [음력 2월 초하루]에는 수건돌리기도 많이 하지요. 그라고 지금 야구하지요? 옛날에 우들이 그런 것도 한 거 같애요. (공) 던지면 (막대기로) 막 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야구더라구. 그때는 어찌케 그렇게 뛰었던가 몰라요.

한번은 (엄마하고) 나무를 하러 갔는데 우리 친구들이 고성 [진도군 고군면 고성리] 학교 운동회를 하니까 보러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산에서 나무하다 다 놔두고 엄마한테 간단 말도 없이 막 달려 내려갔어. 향동서 고성을 갈라든 저 오일시(를 지나야 하잖아요.) 진짜 태산이여요, 산이. 지금 같으면 엄청 멀죠. 아주 2시간 걸어도 못 걸을 것을 그때만 해도 어리니까. 열 일고여덟 그렇게 묵으니까. 큰애기 땀데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전화나 있지만, (나중에) 말도 없이 갔다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또, 정월에) 우들은 앉아서 하는 것이 많았어요. 사찌기 [여럿이 둘러앉아 우스운 몸짓을 흉내 내는 놀이] 같은 거, “사찌기, 사찌기, 사뽀뽀” 그런 것도 하고, 이르케 학교 운동장에다가 뭇 그려놓고 ‘길 막기’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 뽀뽀기도 했는데, 강강술래는 안 했어요. 보름에는 밥 얻으러 땀기고, 밤낮 노는 것이 일이었어. (집집마다) 나물이나 찰밥 같은 거 놔두고 그라든 갖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럿이 모여서 먹었어요. 그 재미로 했지. (또,) 보름날 저녁에 굿 [농악] 치드만. 굿도 한 3일 쳤을걸. 장구 치고, 북도 치고, (마을) 샘에서도 치고, 집집마다 땀 김서도 치드만.

## 향동에서 씻김굿은 많이 했지라

향동에서 씻김굿 [죽은 이의 영혼을 씻어주고 극락왕생을 비는 지은 많이 했지라. 옛날에 미신을 많이 믿으니까 많이 했죠. 동네에 굿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냥 당골이라고만 알았어요, 당골네 [세습무, 조상 대대로 무당의 신분이나 직능을 물려받아서 활동하는 무당]. 강순영이라고 우리 동창인데, 나하고 친구예요. 여자예요. 아주 이쁘게 생기고. (향동이) 중리, 상리, 상, 중, 하 그랬는데 하리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굿을 했어요. 오빠들도 잘했죠.

내가 박병천 [林秉千, 1933~2007, 국가무형문화재 전도씻김굿 보유자] 씨 씻김굿 할 때, 그 사람 [친구 강순영] 식구들, 오빠가 거기 온 거 봤당께. 옛날에 그 오빠가 씻김굿 하는 걸 내가 한 번 본 거 같아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따라 땡기면서 (굿을) 하는구나.’ 난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씻김굿 안 보러 다녔어요. 어즈케 되었든간에 그런 걸 하는 데는 안 가고 싶더라고, 이상하니. 명절 때 걸구 [결궁, 마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명절에 치던 농약] 치잖아요. 엄마들 마당에서 돌아댱기면서 장구치고, 북치고, 춤추고, 막 마당에서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다른) 애들은 가서 그걸 보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에 나는 (굿하는데) 절대 안 갔어요. “어메, 어메, 참말로 내가 저런 것을 안 봐야 할 거인데.” 장구치고 그라는 거 아이고, 진짜 싫더라고요.

## 추석에는 강강술래 설에는 아리랑

---

추석, 백중 [음력 7월 15일, 전통적인 보름 명절의 하나]에는 강강술래 [국가무형문화재,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주로 했고, 설에는 아리랑 [국가무형문화재,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을 많이 했어. <진도아리랑>을. 방에서 놀면서 창살 [한옥의 창, 미닫이에 가로 세로로 지른 가는 나뭇조각]에다가 활<sup>1</sup>을 만들어갔고 그 활을 침시로 [치면서] 아리랑을 했어요. 옛날에 활로 목화솜을 땄어요. 엄마들 솜 타는 활은 큼시다. (그래서) 우들이 만들어갔고 썼어. 대나무 휘어갔고 거다 즐만 다는데, (만들기) 쉽죠. 대나무만 쪼 꾸부리면 되니까. 그랑께 이렇게 잡고 [왼손으로 활을 잡은 모양] “아리아리랑~” 이렇게 [오른손으로 왼손 팔뚝을 쳤] 맞춰감시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박자 맞춰감서 했어요. 어디 누가 장구를 쳐주거나, 북을 쳐주거나 안 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했어. 친구들 집 돌아댁김서 놀았어요. 명절 때 그렇게 나가서 놀제. 판 때는 못 나가게 함께 많이 못 놀았제. 우리가 큰애기땡께. 그래도 한 열 일고여덟 먹었을 때예요.

그렇게 해서 백중하고 추석하고는 주로 강강술래를 하지. 명절 돌아오기를 아주 기다리제. 메칠씩 [며칠씩] 했어요. 백중에는 대부분 하얗게 많이 입고, 추석에는 검은 치마 하얀 저고리를 많이 입고, 그전에는 베에다가 물 들여갔고 (옷을) 해 입었는데, 쪼간 크다나께 [저나코 나네] 인조 [인공섬유]가 나와 갖고 많이 (입고) 했어요.

8월 달에 강강술래 할라고 오면 (총각들이) 오동(잎)을 따갔고 막 아

---

1. 목화를 따서 무명베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길쌈 도구다. 활의 진동으로 목화솜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가씨한테 던지고 그랬지. (강강술래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랑께 (나는) 속도 없고 철도 없었는가, 친구들이 연애하고 그런 것을  
 눈치도 못 채고 그랬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연애도 하고 그랬다 하드  
 만. (그때) 국민학교만 나와서 집에 가 있는 총각들이 있어서 너 [네티]인  
 가. 내 [항상] 같이 놀았어요. 한 방에서 같이 자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  
 었어요.

옛날에는 내우법 [내외법, 모르는 남녀가 마주 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이르는 말]  
 이 심해갖고 부모들이 딴 때 [명절이 아닌 평상시에] 놀러 가는 것은 아주 절  
 대 반대제. 그런데 명절 때는 이틀이고, 삼 일이고 나가 놀아도 암말 안  
 해요. 기양 나가서 놀아라, 그래요. 명절 때만큼은 잘 놀았어. 보름에  
 도 놀고, 별짓거릴 다하고, 방에서 놀다가도 신이 나고 그람 전부 뛰어  
 나가서 막 학교까지 뛰어가고 아주 그랬어요.



15~16세 무렵, 결혼 전 친구들과 함께  
 (첫출 좌측 두 번째 박용순)

## 우들은 맨 돌면서 뛰었제

---

동네에서는 부잣집 마당이 제일 컸어. 그랑께 제일 부잣집 마당에서 엄 마들, 또 우게 언니들, 그런 사람들이 다 하고 우리들은 할 데가 없으니까 학교로 가죠. 학교 가서 달이 떴다 지도록 놀아요, 밤새지. 하다가 힘들면, “받아주게 받아주게, 누가 받아주게. 목이 아파 못 하겠네. 숨이 가빠 못 하겠네”<sup>2</sup> 그러면 딱 받아갖고 하고. 그냥 돌면서 해요. 중강강(술래)[중중모리 장단에 맞춰 동작을 가볍고 빠르게 함] 하다 또 긴강강(술래)[제일 느린 진양조 혹은 무정형의 박자로 불리는 것] 하다 자진강강(술래)[빠른 속도로 부르는 4박자의 강강술래] 하다 뛰다가<sup>3</sup> 막 그렇게 합디다. 강강술래 할 때 앞에서 아빠들이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하여튼 재밌게 놀았어, 사람들이.

우들은 맨 돌면서 뛰었제. <고사리쫓기>[고사리 꺾는 동작을 흉내내는 놀이], <청어엮기>[청어 엮는 모습을 모방한 놀이] 그런 것도 안 해봤고 그냥 뛰기만 했어. 대문 여는 것[문열기], 두 사람이 대문 형상을 만들면 나머지는 일렬로 그 문을 통과하는 놀이은 강강술래 할 때 아니고도(평소에도 놀이할 때) 했지요.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라”[문열기] (노래도) 하고, <외따기><sup>4</sup> (놀이도) 했어요. <남생이놀아라>[남생이를 흉내내며 노는 놀이]는 했어요. “남생이 놀아라” 하면 몇이 나가서 춤추는 게 아니라, “출래출래가 잘 논다” 그러고. 강강술래를 하면서 <바늘귀끼기>[바늘귀 꿰는 모습을 모의한 놀이]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놀면서 했어. 하튼 보름 때나 명절 때 했어요.

- 
2. 앞소리꾼이 앞소리를 메기다가 다른 사람에게 역할을 넘기려고 할 때 ‘받아주게 받아주게’라고 한다.
  3. 노래의 속도에 따라 느리게 하는 긴강강술래 - 중강강술래 - 자진강강술래 순으로 빨라진다.
  4. 강강술래의 여흥놀이 중의 하나로서 <외따먹기 놀이>라고도 한다. 19세기 후반에 진도에 유배 온 정만조가 기록한 『은파유필』에 수록돼 있다.

어떤 아기들은 신도 잘 내립니다. “남원골 정구 춘향이 왔소. 정구 들고 내리쇼. 생일 생신일은 사월 초파일입니다.”<sup>5</sup> 그런 노래를 하면 (접)신이 되어갓고 춤도 추고 그랬거든요. 신이 내리는 애기들 보든, 춤추다 뿔하다 노래도 하다가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드마. 지금 생각하니, 그게 청살 [혼자 도취되어 노래를 부르는 경우] 같드만. 나는 절대 안 되겠어.

그때 여자들만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언니 또래였던가, 한 3, 4살 더 먹었지요. 강강술래를 하는데 봉께 (언니들은) 전부 훈련식으로 합디다. 모이라고 하면 전부 흩어졌다가 다시 다 합쳐졌다가 그렇게 강강술래를 하드라고요. 동그라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떨어지더라고요. 또 어쓰케 하면 합쳐져가 강강술래하고. 그렇게 시대에 따라가 강강술래도 그렇게 변하는가 봐요. 우리 지금 무대하는 것이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

5. 정초나 정월대보름에 15세 안팎의 젊은 여성들이 모여 앉아, 춘향의 이름과 생일을 들먹이면서 누군가에게 신이 내리면 춤추면서 노는 놀이다. 지역에 따라 ‘춘양아씨놀이’, ‘춘향각시놀이’ 등으로 불리지만, 일반적으로 ‘춘향이놀이’라는 명칭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2020년 10월 17일 공개행사

## 엄마들 소리가 그렇게 좋게 들려

---

우리들도 밤새 강강술래를 했거든요. 학교서 강강술래를 하고 너무 더우면은 오다가 냇고랑이 있어요. 거기서 씻고 집에 와서 누워 있으면, 꼭 강강술래가 귀에 딱 들려. 귀에 딱 배긴 것 같어. 이제 (강강술래 노래가) 들기는 거 같으면 잠이 안 들어.

우리들은 재미로 막 뛰고 놀았지, 긴강강술래는 안 했어요. 자진강강술래를 많이 했던가, 막 뛰었어. 뛰어다닐 때는 자진강강(술래)하고, 조금 날짱날짱 하니 중강강술래도 하고, 순 뛰고, 밤새고 했어요. (긴강강술래 중에) “달 돈다 달 돈다” [달 떠온다 달 떠온다] 그런 건 많이 하고. “딸 아딸아 막내딸아” 지금 하는 그런 가사 같은 것들 많이 하고 그랬어요. 저 중심 [김종심(金宗心), 1946~,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보유자]이는 즈그집서 했응게 다 기억을 했다드만. (진도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갖고 나는 못하는 축에 들어갔어요, 진짜.

(명절에) 우리가 겁나게 놀다가 집에를 와서 잘라고 하든 엄마들 긴강강술래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진짜 그 엄마들 어찌케 잘하는고, 그랬제. 예를 들어 봄에 고사리를 끊으러 갔다가 오면, 그날 밤에 눈에가 이렇게 고사리가 보여. 그라대끼 [그런 것처럼] 엄마들이 (강강술래)하는 소리가 그렇게 좋게 들리드마. 지금 생각하면, 어떤 대목인지는 모르는데 밤에 들으니까 넘어가는 대목이 그렇게 슬프게 들립디다. 아주, 진짜 잘 했어요. 그 엄마들이 살았음 좀 물어보겼는데, 다 돌아가셔부렀어.

향동에서 박용순이 부른 긴강강술래 — ①

딸아딸아 막내딸아	강강술래
맨발벗고 썩에가네	강강술래
헌눈풀아 종사주리	강강술래
도포풀아 신사주리	강강술래
종도싫고 신도싫고	강강술래
날과같은 입사주소	강강술래

향동에서 박용순이 부른 긴강강술래 — ②

달떠온다 달떠온다	강강술래
동해동천 달떠온다	강강술래
저야달은 누달이나	강강술래
방호방네 달이로세	강강술래
방호방은 어디가고	강강술래
저달뜯줄 모르느냐	강강술래



# 4

## 시집 왔응께 각시 노릇 해야제

- 향동으로는 시집 안 갈란다
- 나는 신랑 얼굴 보도 안 했는데
- 어짜겼냐 가야지, 못 살면 와야지
  - 결혼 준비는 딴 거 없어요
- 어프케 시집을 왔는가도 잘 모르겠어
  - 3일 되던 날 친정에 갔어요
- 시댁 와서 보름 만에 신랑은 군대 갔어요





박용순은 장구와 노래를 좋아하는 한편,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동네 밖 결혼을 결심한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의 총각 이수봉과의 약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 여기엔 그가 일을 잘하게 생겼다는 친정어머니의 믿음이 한몫했다. 그렇게 남편 될 사람의 얼굴을 약혼 사진 촬영을 위해 간 읍내 사진관에서 처음 확인한 박용순. 그리고 얼마 뒤인 1960년 음력 11월 21일, 박용순은 이수봉과 백년가약을 맺게 된다.

## 향동으로는 시집 안 갈란다

---

(향동에는) 총각들이 많았고 그랬는데, 솔직한 말로 제가 연애할 줄을 몰랐어요. 기억나는 것 하나는, (동네에) 남자친구가 있었어. ‘조가 거 든요. (개가) “너는 저 동네로 시집가고 잡냐?” 물어봐. (그러면) “아니, 나는 다 해도, 향동으로 시집 안 갈란다.” 그런 말을 한 적 있네요.

향동은 동네 결혼을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도 동네 사람, 며느리도 동네 사람, 그럴 정도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동네에서 결혼하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향동으로 안 가기로 속으로 아주 마음을 먹었어요. ‘결혼은 한다든, 난 절대 향동으로 안 간다.’ 그랬어요. 내가 그 동네 결혼을 안 한 원인이, 진짜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예요. 고군면 멋쟁이들은 여자고 남자고 (우리 집에) 다 왔거든요. 하도 장구 치는 사람들이 와갖고 (북, 장구) 때리고 그래서 들기름으로 해는 집 장관 구멍이 뚫려졌어요 [뚫어졌어요]. 내가 제일 싫은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생전 술을 안 했어요. 생전 술을 그렇게 알맞게 드시지만. 없어도 깨끗하니, 천상 한량이지. 옷에 티 하나 안 묻게 잘 입고 땀뻘 없었어요. 엄마가 또 그렇게 해줬어요. 그란디 엄마는 그런 남편이 그케 불만이 없었던가, 말 안 해라. 싸우도 안 했어요.

한번은 엄마가 말하길, 내가 결혼할 때예요. 내 그거 안 잊어부러. 읍에서 숨을 타갖고 태산재를 넘어서 그놈을 이고 왔던가 봐요. 얼마나 뻘찼는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숨을) 내려놓고는 진짜 힘들다고, 그 말이 지금 내 귀에가 딱 앵겨. 짠하드만, 엄마가. 친정아버지가 일을 안 하다 본께는. 친정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그라더라고요. “너는 나무를 한 지게 해다가 쿵, 부레 주는 [풀어 내려놓는] 사람한테다 결혼을 시킬란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일하는 데다 [남자한테] 나를 결혼시킨다는 그 말을 했던가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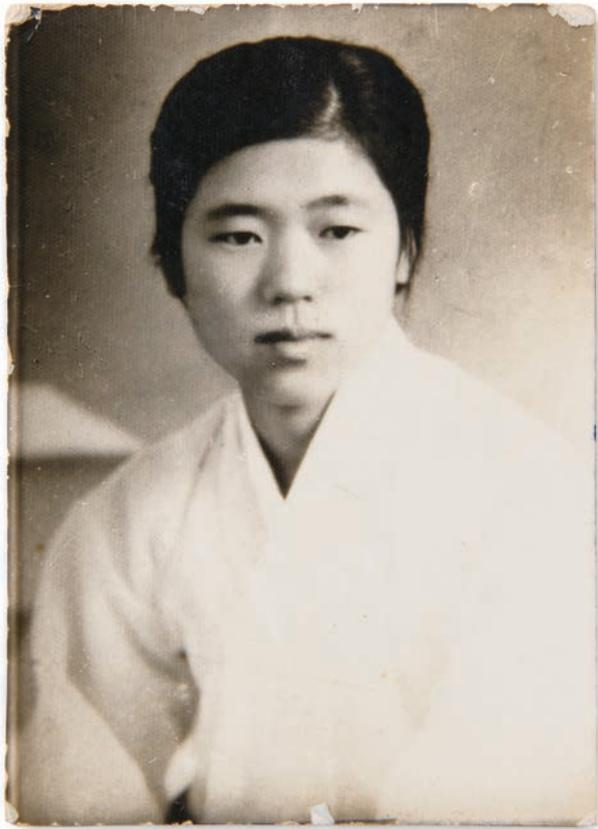
## 나는 신랑 얼굴 보도 안 했는데

옛날에 (향동에서) 내가 천주교를 좀 다녔어요. (그런데) 여그 신동 [전도군 군내면 둔전리]에 천주교 회장이라는 분이 살았는데, 향동을 댕겼어. 이북사람인데 내려와갖고 살면서 천주교를 믿어갖고 한 번씩 가끔 오셨거든요. (그때) 애기 아빠 [남편 이수봉]가 천주교를 댕겼대요, 총각 때. (천주교 회장이 남편한테) “향동에 아가씨가 있더라, 한번 가 보꺼나.” 그랬는가 봐요.

나는 (이수봉 총각이) 향동에 언제 온 지도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봤대요. 가만 들으니까, 엄마보고 “오늘 어디서 총각이 보러 왔는데 안 되겠다라고. 어따 그런 데로 딸 여부졌는가 [여의겠는가(말을 시집보내겠는가)].” 그라길래, 나는 속으로 ‘어디서 또 중신이 왔는가 부다.’ 했죠. 그런데 그 회장이 (엄마한테) 딸 사진 있으면 하나 주라가더래요. 내 큰애기 때 장에 가서 독사진을 찍은 게 있어. 내 가장 처음 독사진이구만. 그걸 엄마가 빼서 줬어. 딸은 (집에) 없으니까 사진이나 보라고 사진을 줬다 그래요. 그때가 가을이었던가. 그라고 몇 달이 지났어.

내같이 보잘것없이 쪼깐하게 생겨갖고 똥이 볼 것 있겠어. 없는 집 딸이고 그라데도, 진짜 ‘헌 통새에 개 끓듯’, 진도 말이 옛날에 화장실보고 ‘통새’라겠어. 그랑께 ‘안 좋은 화장실에 개가 많이 끓는다.’ 그 소리여. 누(구) 말마따나 그렇게 (나한테) 중신이 많이 왔어. 동네서도 그렇게

하자하고. (결혼하면 나를) 서울로 데리고 가느니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왔는데, 엄마가 “다 해봐도 여기서 [돈전리] 들어온 데가 켈 착실하고 일을 잘한다.” 하드래요. 그래서 엄마가 가서 말을 꺼내 버렸어. (다들 신랑감이) 좋다고 그렇게 흘랑해갖고 (나한테) 결혼을 해라 그러드만. 나는 신랑은 보도 안 했는데.



21세 무렵, 결혼 전 박용순의 독사진

## 어짜졌냐 가야지, 못 살면 와야지

할아버지 [남편] 이름은 이수봉 [李秀逢, 1939~]. 39년인가, 40년인가. 나보다 1살 더 먹었는데, 호적이 잘못됐더라고요. (원래는) 나보다 1살 더 먹었어요, (지금은) 팔십 둘 [2019년 구술채록 당시]. 그런데 (신랑하고) 약혼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사진관에 갔는데, (신랑이) 왔드만. 그 할아버지 [남편, 이수봉]가, 기다게 [짜기가 맞다고 해]. 어메! 침에 깜짝 놀랐어요. ‘어찌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냐.’ 절대 결혼 못 할 거 같드만. 아주 진짜 안 이쁘더만. 어찌할 수 없응게 사진을 찍긴 찍었어요. 그리고



1960년 진도읍 태양사진관에서 촬영한  
박용순, 이수봉의 약혼사진

(집에) 간단 말도, 온단 말도 안 하고 와부렀어요. 어찌케 생각하면 우습죠.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간다고 말이라도 해야 쓸 거인데, 내 말도 안 하고 와부렀어. 절대 시집을 못 가겠드마. 엄마가 (중매)한 것이라 할 수 없이, ‘어짜졌냐, 가야지. 못 살면 인자 와야지.’ 그랬죠.

그때는 내가 머리가 많이 길고, 무자게 몸이 야우랐어요 [말랐어요], 아주. 그리고 (진도) 읍내서 찍었는데, 강아지 한 마리 팔아서 그 값 주고 (약혼) 사진 한나 찍었어. 그래갖고 내가 기념으로 지금까지 봐왔어. 어찌케 사진을 찍은지도 모르고, 어찌케 (결혼을) 했던가도 모르고 그래요.

## 결혼 준비는 딴 거 없어요

---

그때 (결혼) 준비는 딴 거 없어요. 농지기라고 이불 하고, 행상, 치마, 저고리 몇 개씩 해갖고 (갔죠.)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준비하느라고 힘들었제. (웃은) 빨간 치마 같은 거 맹지 [명주]에다가 옥색 물들여서 옥색 저고리, 자색 끝동 달아갖고 하고, 검정 무지 빌로드 [벨벳] 치마, 양단 [은색 또는 색실로 수를 놓고 겹으로 두겹게 짠 고급 비단의 일종] 치마저고리 그런 거 했어요. (겨울이니까) 솜 넣어서 이불 2개, 요 2개 그렇게 했어요. 함은 안 한 거 같어요. 그라고 시댁에서 농을 한다더니 (시집을) 옹께, 해 봤드만.

옛날에는 결혼하면 마당에서 치님 [친영,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예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절차] 해요. 그냥 이거 채일 [차일, 햇볕 차단용 포장] 쳐놓고, 상에다가 뭐 놔두고, 꾸며 놓고, 절하고 예식하는 거예요.

하이고, 말하다 난게 그것도 생각이 나네. (옛날에는) 이제 신랑이 오  
 잮아요. (사람들이) 저녁에 신랑, (신부) 그거 [첫날밤] 불라고 창구녀을  
 침 불라서 다 뚫브고, 거그다 눈 대고 땡겼어요. 신랑 델인다고 [신랑 다루  
 기, 신랑을 거꾸로 매달고 발바닥을 때리며 노는 일] 몰려 땡김시로 잠도 안자고 그랬  
 는가 몰라. 지금 같으면 뭇도 먹고 그라지만은 그때는 ‘친구들 결혼향께  
 거기 가서 같이 뭐 먹고 하자.’ 그런 것은 안 해봤어. 하튼 시골이라, 읍  
 에는 있었는가 몰라도 나는 그런 것 없었어.

## 어뜨케 시집을 왔는가도 잘 모르겠어

(1960년 음력) 11월 21일날 결혼을 했어요. 그제 (내가) 스물둘 [23세],  
 겨울이여요. 눈이 엄청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눈이 하도 많이 와서  
 말할 수 없었어.

신부 옷은 양단이로 치마저고리 입으면 우게 장옷 입고, 쪽두리 쓰고  
 그렇게 했제. 금봉 [金峰 박행보, 1935~, 한국화가, 서예가] 부인이 우리 사촌 이  
 모여요. 그때 그 이모가 미용학원 나와갓고 나 결혼식 할 때 와서 해줬  
 어요. 파마했을 거예요. (식은) 오전이에요. 신랑이 친영하쥬. (신랑이)  
 절하고, 내가 절하고, 또 맞절하고, 식사하고 얼른 끝났어요. (첫날밤  
 을) 친정에서 안 잤어요. 결혼식만 하고 바로 시댁으로 왔쥬.

신랑이 추력 [트럭]은 타고 왔는데 부락 [둔전리] 사람들하고 왔어요. 가  
 까운 형제간 오고, 둔전에 이씨들이 많이 사니까. 짐차 타고 왔더라고.  
 (친정) 집 오기 전에 말 (갈아)타고 사모관대 [전통혼례에서 신랑의 복식]하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트럭 타고 시집왔어요. (그때 시댁이) 이 집

아니고, 젤 꼭대기 우계서 [위에서] 살았어요. 여그 옹께 가마를 딱 준비하고 있두마. (그래서) 나는 (시댁까지) 차타고 왔는데, ‘가마 타고 많이 걸어가느구나, 집이 굉장히 좁 멀구나.’ 생각했어요. 신랑은 걸읍디다. (그때) 가마에다 요강을 넣어 갖고 오죠. 그런 (형)식은 다 했어요. 그래서 너니 [네 명이] 맨 가마를 타고 올라왔제. 지금 그 가마 우리 제각 [묘제를 지내기 위해 무덤 가까이 지은 건물]에 있어요. 우리 집안들만 타던 가마라. 그라고 바가지를 큰방 밑에 바닥에다 놓고 고놈 딛고 들어가라 하드만. 발로 밟아서 깨고, 들어와서 앉아 있었지요. 시집 왔으께 각지 노릇 해야제. 차례대로 절을 하라고 시켜가지고 절했죠. 지금으로 치면 폐백이에요.

집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고, 안채에 큰방이 있고, 사랑채가 마주 보고 있었어요. 사랑채에는 방이 하나 있고, 또 헛간 하나 있고, 화장실, 부엌 있고, 부엌 생김새도 기억나지라. 흙 땅이고, 큰 솔 걸어지고 부엌 곁에가 진도 말로 모방 [작은방]이라 게요. 껌정 술 2개가 모방에 하나 걸어지고 요쪽에 걸어지고. 소도 키웠으니까. (집이) 좀 큰 편이었어요. 첫날밤에 (우리는) 안방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첫날밤 (본다고) 사람들이 꼬이는데, 시아버지가 못 오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찌케 시집을 왔는가도 잘 모르겠어, 얼렁떨렁.

그러다가 (1990년에) 결혼 30년 되어서 기념이로 드레스 입고 광주 사진관 가서 찍었어요. 30주년 기념이로 (결혼식을) 두 번 했어. 이거 내가 (하자고) 했어요. “30주년 되었으니까, 드레스 입고 사진 찍읍시다.” 남편이야, 내가 하자고 하는데 한다고 하제.



1990년 결혼 30주년 기념사진

### 3일 되던 날 친정에 갔어요

---

(시집 와서) 지양길 [재행, 혼인한 뒤 신랑이 처음으로 처가에 가는 것]에 갈 때까지도 밥은 안 하고, 신랑하고 말도 잘 안 해봤어요. 이제 3일 되던 날 친정에 갔는데, 시어머나가 술을 한 병 쥐서 신랑이 술병을 들고 가고, 나는 (신랑 뒤를) 따라가고 그랬죠. 나는 우리 집이니까 길을 잘 알잖아요. 궁께, (향동 가는 길) 재 [산고개] 꼭대기까지는 싹싹 같이 걸어갔어요. 말도 안 하고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내려가야제.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기도 해. 거기를 막 죽는다고 달렸어, 내가. 신랑 놔두고 정신없이 달렸어요. 손잡고 갈 생각도 있었어? 좁은 오솔길을 달려가다 봉개는 내가 앞에 썩 가질 못 하겠드만. 그래서 가다가 제일 내리막 있는 데 가서는 앉아 있었어. 한참 있음까 (신랑이) 오더니 이제 앞에 가드만.

그라고 강개 형제간에들 모태 [모여] 있드만. 향동에 우리 형제간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외동아들이었어도 사춘 [사춘]들이 굉장히 많애가지고. 그래도 같이 친정에 갔으니 신랑하고 같이 자야할 거인데, 나는 (같은 날 결혼한) 친구하고 갔어. (친구도) 지양길 왔응께. 가도 [친구도] 저저 신랑하고 안 자고, 나하고 갔어.

그 뒷날은 향동에 모사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 모사마을] 라고 거기가 큰엄마네가 살거든요. 큰집에 오라 그래서 가니까, 큰어머님이 그랬어요. “내가 사위를 봐야 하제. 진짜 안 보고는 우리 (조카)딸 [박용순]을 진짜 어디서 어떤 놈이 데려가는가는 몰라도 내가 봐야 마음을 호딱 암시로 [안심한다].” 그러드만. (그러고는) 시택으로 왔죠. 하루 저녁 자고 오면서 벌포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를 지나서 오면서 그때 신랑하고 말했어요.

## 시댁 와서 보름 만에 신랑은 군대 갔어요

(시댁에) 와서 열흘인가 보름인가 (지나고) 어찌케 (신랑은) 군대 갔어요. 알고 보니까 군대 날짜가 나왔는데 결혼식 때문에 미뤘대요. 뭐 울고불고하잖아, 그때. 시원합디다! 막 같이 살고 싶고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 모르는데, '못 살게 되면 말제.' 그런 식이여 갖고 군대 가는 것도 (상관) 안 하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못 함께. 군대 가버리니까 시원하다 그랬지. (그때) 시어머니가 벽파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까지 따라갔어요. 나는 갈 생각도 안 하고, (시댁에서도) 가라고도 안 하고, 가라게도 안 갔겠쥬. 가도, '가는가 보다.' 그랬어요. (남편은) 논산에 가서 훈련을 받았고, 군대 생활은 부산서 했어요.



1960년대 무렵 남편 이수봉

(신랑이) 군대에서 편지는 몇 번 했어요. 잘 사냐고 그런 거지요. (신랑이) 보고 싶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옛날이라 군대 가서 딱 1년인가 안 오드만. 너무 오래까지 안 오니까 ‘어휴, 내가 결혼을 했냐, 안 했냐’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군 생활은) 한 3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인가 휴가 나오고 제대했을 것이여.

(시댁은) 여러 친척이 없고, 시아버지가 3대인가 4대인가 쪽 독자로 내려왔대요. 이제 손이 퍼진 거지. 시아버지가 아들을 많이 낳았응게. (시아버지 성함은) 이청근 [李靑根, 1916~2000], 시어머니는 이가예요, 이산월 [1928~1976]. (남편이) 큰아들 이수봉, 둘째는 이수호, 셋째가 이민호, 넷째가 이옥재, 그담이 이생재. 그담에 딸 하나 있어요, 이옥심이. 그리고 막둥이 이정재. (시집 왔을 때) 막내는 3개월, 100일 못 됐어요. 원래 할아버지 [남편 이수봉] 낳은 시어머니 [곽단심(郭丹心), 1919~1943]는 (둘째) 이수호까지 두 형제 두고 돌아가셨는데 (셋째 이민호부터는) 어머니 [시어머니 이산월]를 모셔다가 애기를 낳았쥬. 거기서 애들 다섯 낳았어요. 지금 7형제데, 그래서 내가 다 간양하고 [도맡아 키우고] 고생을 엄청 했쥬.

# 5

## 내가 시아재를 키우다시피 했어요

- 시아버지가 고지식하고 그런 분이예요
  - 영화를 그렇게 기다렸지
  - 썩은 보리도 맛있드라고요
  - 나 혼자 차려서 먹이고 치고
  - 우게는 다 아저씨라 그랬어요
  - 집 나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디다
  - 시아재도 내 책임, 그 애기도 내 책임
  - 두 달도 안 된 조카를 내가 키웠제
- 시아재들이 형님, 형수라고 하면서 다 잘해요





시아버지는 목수였다. 워낙에 성품이 곧아 배는 굶지 않았지만, 풍족하지 않은 살림살이였다. 무엇보다 새댁 박용순은 시어머니와 함께 논일, 밭일을 하며 동시에 6명의 시동생, 시누이를 돌봐야 했다. 그녀가 시집왔을 때 막 100일 된 막내 시동생은 물론, 이후 여러 사정으로 엄마를 잃은 시조카들까지 박용순 인생의 대부분은 아이들을 품어 온 시간으로 채워져 있다.

## 시아버지가 고지식하고 그런 분이에요

---

시아버지가 집 짓는 목수였어요. 동네 집 다 지었을 거예요. 이 집도 시아버지가 지었는데, 옛날 집이라 겨울에는 좀 따습고 여름엔 시원하고 그래요. 그라고 농사가 좀 있었어요. 보리밥이라든 배 안 고프게 먹고 살고 (했죠.) 시아버지가 목수 해갖고 돈 벌어서 밭을 샀는가 어쨌든가. 내가 왔을 때는 밭은 1마지기 [논·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가 100평이니까, 한 10마지기해서 (1,000평 [약 3,305㎡]) 되고, 논은 200평이 1마지기께 닻[따뜻] 마지기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논도 한 1,000평 되드라고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있으면 일을 할 것인데, 군대 가고 나니까 시아버지는 주로 목수 일하러 다니고, (농사는)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거의 했어요.

그때는 (둔전리에 사람이) 많았죠. 지금은 (가구 수가) 50, 60호가 못 되는데, 그래도 한 70호, 80호, 거의 100호나 되었을까 모르겠어요. 푹푹히는 몰라도 더 컸어요. 원주 이씨가 대부분이에요. 옛날에는 빈촌이었다고 그러하다. (논이) 적었다고 해요. 그랑께 옛날에는 여그 (둔전)교회 밑에까지 물이 찻대요, 갯물 [바닷물]이. 여기가 다 갯벌이라. 게 같은 거 잡아먹고 (그랬대요.) 그런 원뚝을 막아갖고 논을 (간척) 했으니까 둔전리에 논이 많아졌제. (그때만 해도) 염기가 안 빠져갖고 아주 안 된 논은 안 되고, 나락도 안 되고 그랬어요.

그런 개논 [바다를 매립해 만든 논]에 다리 같은 거 놓고, 둑 같은 거 놓을 때 안에 나무를 짜서 넣고 하는 것을 전부 시아버지가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런 때는 없는 사람한테 논도 한 덩이씩 쥐서 그냥 얻을 수도 있는데, 시아버지는 양심이 하도 끈이 나고 발라서 절대 그런 것을 안 했대요.

(그만큼) 아주 고지식하고 그런 분이예요.

## 영화를 그렇게 기다렸지

---

시아버지가 완고하시고 아들은 군대 가버리고 없으니까, 누가 놀러를 못 오게 해. (시댁 마을에) 결혼한 사람도 많고, 새각시들도 많고, 친구도 많으니까 놀러올 거인데, 우리 집에는 못 오게 해요. (시아버지가) 창에다가 우리를 딱 붙여서 놓고 머리를 창쪽에 딱 대고 주무시드만. 개만 짊어도 내다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러를 못 와요. (혹시나) 와도 (나는) 농 가려진 데가 숨어갖고도 앉아 있었어요.

그때 내가 결혼할 무렵이었어. 악극단이 쪼끄만한 (규모로) 그때 (항동에) 와서 한 번 본 것 있어요. 국극단 [창극을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무리]이라고 했는가, 창극 [배역을 맡아 창을 중심으로 극을 전개하는 것] 같이 했어요. 가을이었던가 온 거 같아요. 그 뒤로 62년, 63년, 64년 그런 때는 여기 [시댁] 있는 툄전리로 영화 같은 거 많이 읊디다.

낮에 밭에서 일하면, 영화 [이동영사기]\*가 와갖고 막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영화 보러 가고 잡제. 영화가 1년에 몇 번 오는데, 하루 저녁에도 몇 번을 틀어. 주로 김진규 [金振奎, 1923~1998, 영화배우]나 신성일 [申星一, 1937~2018, 영화배우], 그런 사람들 나오는 영화를 틀었제. (그때 본 영화가) <미워도 다시 한번> [1968년, 감독 정소영, 주연 신영균, 문희]인데 (영화 상영장) 안이 딱 찻어. 그러면 (내가) 영화 보러 가까니 [갈까봐], 시아버지가 딱 대문 앞에 앉아서 오래까지 뭘 일을 해. 그러믄 우리 나이 먹은 시아재 [시동생 이수호]가 담 넘어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래갖고 (시아버

## 이동영사반과 영화의 날

1952년 한국전쟁 도중, 피난 정부가 세워진 부산에서 ‘대한뉴스’가 제작되기 시작한다. 월 2~3회, 16mm 필름으로 제작된 뉴스는 지방을 돌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상영되었는데, 이를 진행한 이들을 이동영사반이라 부른다. 기록에 따르면 이동영사반은 1940년대 일제강점기에도 벽지의 촌락을 방문해 영화를 상영하곤 했다고 한다. 특히, 정부에서는 1959년 4월부터는 매달 두 번 ‘영화의 날’을 마련해 대한뉴스 2편과 정부에서 만든 기록영화, 계몽영화 등을 묶어 이동영사반을 통해 상영토록 했다.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줄을 서서 볼 정도로 이동영사반은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지) 모르게 갔다 오고 그랬어. 이상하니 며느리 간섭을 그렇게 합디다. 내가 놀러도 못 댕기고, 넘어 와서 놀도 못 하고 그저 날마다 일만 했제잉.

(영화 값은) 돈 안 받고 그렇게 했던가, 아저씨 [시동생 이수희]가 냈는가는 몰라. 인자 봉께 [보내끼] 공짜 아니구만. 돈 냈겠네요. (상영장) 들어가는 데 문지기가 섰었어. 그란께 영화비는 아저씨가 냈는거야. 그라고 영사기는 세 발통 구루마 [수혜]에다 끌고 다니면서 영화를 (상영)했어. 그렇게 (시아버지) 모르게 댕겼어. 영화 보고 들어올 때는 늦게 오니까 ‘뭘, 안 갔겠지.’ 그라고 (시아버지는) 주무시는 거이지. 시골에서 뭇을 보겠어. 영화를 그렇게 기달렸지.

## 썩은 보리도 맛있드라고요

음력 9월달 되면 보리(밭을) 갈아요. 시아버지가 쟁기질도 하고 못 하

는 거 없었죠. (시아버지가) 밭을 갈아갔고 일일이 골 만들면 시어머니랑 들어서 보리 씨 뿌려갔고 덮어요. 그때 갈면은 겨울에 보리 이삭이 크지요. 정월 그럴 때 보리밭 매고 [논밭에 난 잡풀을 뽑음], 3월 되면 보리가 패고 [곡식의 이삭이 나옴] 한 (음력) 5월 되면은 보리를 비었어요. 품앗이도 하고, 소가 있으니까 일 부리면 또 하루씩 해주기도 (했어.) 지금일게 보리도 기계로 했지,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흘태 [흙흙한 날 사이에 벼, 보리 등의 이삭을 넣고 낱알을 터는 농기구]가 있어요. 거기다가 보리를 일일이 땀어요. 옆에서 하나 골라주고, 땀기고 그렇게 보리를 따갔고 지었어요.

그런데 한 해는 보리가 썩었어요. 비가 하루도 안 빠고 한 달 내 왔던가 어쨌던가. 보리 썩던 해로 유명났죠, 참말로. 아주 흉년이었어요. 나 결혼해갖고 한 23살 [1960년 무렵]이나 먹었을 것이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리가 안 썩었어요. 이유가, 시어머니는 모를 하러 갔는데 시아버지가 나보고 보리밭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리를 묶었어요. 400평 짜리 밭 돌이게 800평 [2,644㎡]이구마. 그때부터 비가 푹푹 떨어지드마. 안 묶은 집은 다 썩어버렸어. 우리하고 두 집이만 보리가 안 썩고 다 썩었어. 나락이 실하지 않아도 우리는 안 썩은 보리를 먹었죠. (그중에) 썩은 보리는 흘러가는 냇물에서 씻쳐가지고 솔에다 삶아가지고 사카링 [사카린,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있잖아요? 그거 쳐갖고 먹고 살았어요. 먹어 봉께 굉장히 맛있드라고요.

## 나 혼자 차려서 먹이고 치고

내가 결혼을 해갖고 밭이 많이 아팠어요. 밭바닥이 아파서 고생 좀 했지요. 모내기를 못 하러 다니니까 시어머니가 모를 하고, 침에 내가 애

기를 봤죠. 그라는데 신랑이 군대 가버리니까 시어머니가 나보고 큰방에 와서 얘기들하고 같이 자지게 [짜자고 해]. 시아버지는 사랑채로 가서 주무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제.

그란데 (내가) 가매 타고 올 때, 바람이 들었다고 3개월도 못 된 시아재 [막내 이정재]가 맨날 울더만. 밤이고 낮이고 울어요. 가매 바람 [신부가 타고 온 가매 바람] 맞았다고 시아재가 읊디다.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께. (둘째) 이수호는 20살, (셋째) 이민호는 한 10살이나 먹었던가. (넷째) 이옥재는 한 9살이나 먹었겠쥬. 민호하고 한두 살 차이니까. (다섯째) 이생재는 6살, 막내 우계 시누 (옥십이)가 3살, 아무튼 줄줄줄 전부 애기들이여.

우계 시아재들도 얼마나 부잡한지 [얹전하지 않고 사방을 다님]. 날마다 옷을 쫓고 [바느질하고] 빨고 해야 돼. 그랑께 내가 쉴 시간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아주 캄캄하니 밤 되도록 밭을 매고 오면은 애기 딱 젓 먹이고 자버려. 그 뒷바라지를 내가 다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전부 헛 옷을 뜯어가지고 애기 기저귀를 만들어갖고 찌고 그러니까. 빨래도 하면 2시간 해야 돼요. 그라고 샘이 집에서 멀었어요. 물을 기르믄 (하루에) 한 9번, 10번 길어야 돼요. 그렇게 길어다 놔야 애들이 그날 먹고 쓰고 그러니까. 밥도 보리밥을 한 솥을 해야 돼요. 새벽에 내가 조금 일찌가이 (밥을) 하면 쓰겼드만, 시어머이가 (창고) 쇯대 [열쇠]를 달고 다녀. 꼭 (시어머니가) 와서 (창고)문 열어야, 보리 같은 곡식 내주니까. 밥 빨리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방바닥에 죽석 [대오리로 엮어 만든 자리]을 깔았드만. 애가 오줌을 싸면 장관 같으면 닭으면 되는데, 죽석이라 밑으로 빠져요. 그래갖



1995년 3월 시아버지 이청근 옹 팔순기념 가족사진  
 (상: 뽕줄 우측 두 번째 박용순, 하: 뽕줄 우측 네 번째 박용순)

고 냄새가 나. 그냥 잘라본 힘드니까 코에다 이불을 흠뻑 대고 잤어요. 그리고 새벽이 돌아오면 시아재들이 내 발도 꼬집고, 서로 그렇게 장난을 하드마. (시동생들) 다 차려서 먹이고 치고 그런 것을 했는데, 어찌케 그렇게 했는가, 지금 (생각하면) 몰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애기 [막내 시동생]가 그렇게 이뻐디다.

그런 때는 친정에 가는 계절이 있어. 추석 쇠면 가고, 백중 쇠면 가고, 봄 돌아오면 또 설 쇠면 가고, 그렇게 땡겼는데 나는 그 애기 때문에 친정에도 자주 안 갔어. 베로 애기 옷을 다 해서 만들어서 입히고, 내가 키느라시피 해서 키웠어요. 그래도 시아재들이 밉거나 싫거나 그런 뉘이 없고, 다 같이 한방(에서) 자도 불편한지도 몰랐어요. 내가 철이 없었던가. 암것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았으니까.

## 우제는 다 아저씨라 그랬어요

---

(남들은) 시아버지라고 한데, 난 그냥 아버지라고 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어머니라고 하고. (시부모님들은) 나한테 “애기야.” 그라고. 나중에 (내가) 애기 낳으니까, “누구 엄마야.” 그렇게 불렀지. 옛날에는 아들 부를 때는 ‘큰놈, 작은놈, 시바 [셋째 아들], 니바 [넷째 아들], 오바 [다섯째 아들], 육바 [여섯째 아들]’ 그랬고, 딸들은 ‘큰 년, 작은 년, 시단이 [셋째 딸], 니단이 [넷째 딸]’ 막 그렇게 불렀어요. (시동생들은) 그냥 아저씨라 불렀어. 다. 제일 막둥이만 이름이 정재인게 “정재야.” 하다가 나중에는 (막내 시동생이) 커서 결혼하게 되게 아저씨라 했는데, 우제는 다 “아저씨”라 그랬어요. 그러믄 “예, 형수.” 그라고 (나를) 따라 땡기고 그랬제. (내가 남편 부를 때는) “예~” 그랬지. 지금도 “예~” 그래요. (남편이 날 부

를 땀) “어이~” 그렇게 하고.

(한번은) 우리 시누[어육집]가 3살, 4살 정도 되었는데, (눈이 안 보여서) 뭘 못 집으러 오고 그랬어. 그런 땀 의사한테 병원에 갈 줄도 모르고 그렇게 흥역하다 많이 죽었잖아요. (시누가) 전염병이 되었다고, 그것을 했어요. 하나는 애기를 업고, 땀을 담아갖고 뿌리면서 집을 돌아다니는 애기들 눈이 밝아진답디다. “눈은 번쩍, 우리 애기 눈은 반짝.” 아이고, 땀이라겠는가. “새 눈은 반짝, 우리 애기 눈은 뻥뻥.” 그랬던가.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업고 내가 따라다녔어. 그라고 나서 눈이 밝아지더라고, 참말로.

## 집 나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

한 번은 내가 너무 아팠어요. 일을 너무 하다 보니까 엄청 아팠어요. 그 래갖고 방에 가 있는데, 그때 좀 추울 땀가 봐. 시아재가 와갖고는 “형수, 약 사오라냐.”고 그래요. 그래 내가 불이나 좀 때 주라고 했어요. 그 랑게 아저씨가 나가드니, ‘탁, 탁, 탁, 탁’ 소리가 나요. 내가 나와 봤어. 장작을 이렇게, 이렇게 삶았어 [손가락으로 장작을 격자로 쌓은 모양 표현]. 그러 고 밑에다 불을 딱 지폈어. 잘 타고 있드마. 오로지 아는 게 밥하고 일 하고, 추위 죽어도 (참고) 그랬더니, (그거 보고) 내가 성질이 나서 불 을 꺼부렸어. 시아부지도 건강하고, 시어무이도 건강하니 사람이 아픈 줄도 모르고, 중한 줄도 모르고 그러드마. 몇 번 (집을) 나가고 싶은 생 각이 간절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아이, 그냥 못 살겠다.” 하고 혼잣말로 그라제. 밤에 잠을 못 자면은 발매다가도 누워서 자기도 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세상을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누구 자식 (두고) 나갔거나, 그런 소리 안 들을라고 살았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고, 내가 뭣 하러 힘들게 일하고 남한테 가서 아프단 말 하겠어요. 그런 말 안 했어도 동네 사람은 거의가 알아요. 내가 살아온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죠.

## 시아재도 내 책임, 그 애기도 내 책임

---

우리 넷째 딸 금아 [이금아, 1971년~]를 낳는 그동안에 (둘째) 수호 시아재를 결혼시켰어. 의신면 가단 [전도군 의신면 창포리 가단마을]이란 데에 굉장히 부잣집 딸이고 아주 이쁜 데로 결혼시켰거든. (그러고) 딸을 한나 나서 2살 먹었는데, 어째 동서가 이상하니 병이 생겼어요. 자꾸 나가서 돌아다니고 해서 (시아재가) 각시하고 안 산다고 (동서를) 딸하고 친정으로 보내부렸어.

어느 날 여름인데, 7월에 아주 더웁고 하루 종일 발매고 할 땐데, 시아부지가 애기 업고 밥 갖고 와요. 그라믄 거기서 밥 먹고, 애기 젖 주고 시아부지는 집에 가고 그란데, (밭에) 갔다오니까 그 동서가 애기를 못 키우게 생겼으께, 자기 친정엄마가 죽어도 느그 집에 가 죽어라,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왔대요. 나도 그때는 미음도 끓일라믄 불을 여서 밤에 끓여요. 지금처럼 깨스가 어디가 있어요. (시아재, 조카들은) 좁쌀물 같은 거 끓여서 맥이고, 가루우유 줌 타서 맥이고 자다 일어나서 밤에도 끓여 맥였지요. 겨울 같으면 좋은데 여름이 힘들었죠. 일하고 와서 밤에 애기 (밥) 끓여 맥이고 할 판인데. 아이, 애기 [큰 시동생 이수호 뺨]를 데려다 났어요. 그래서 어찌케 하겠어요, 그거 내 책임이지.

그런데, 시어머니가 마흔아홉에 돌아가서 부렸어요. 막둥이 [막내 시동생 이정재] 초등학교 다닐 때, 그케 일찍 돌아가서 부렸어. 그 시아재도 내 책음, 그 애기 [큰 시동생 이수호 딸]도 내 책음.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여섯서 키웠어요. 애기 키울라, (수호) 시아재 밥 해 줄라. 이발관 [큰 시동생 이수호가 운영하던 이발관]에 (일하는) 총각이 데리고 온 애기가 있었어요. 그걸 또 밥해줄라.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수호 씨) 애기가 잘 컸어요. 지금 목사 사모님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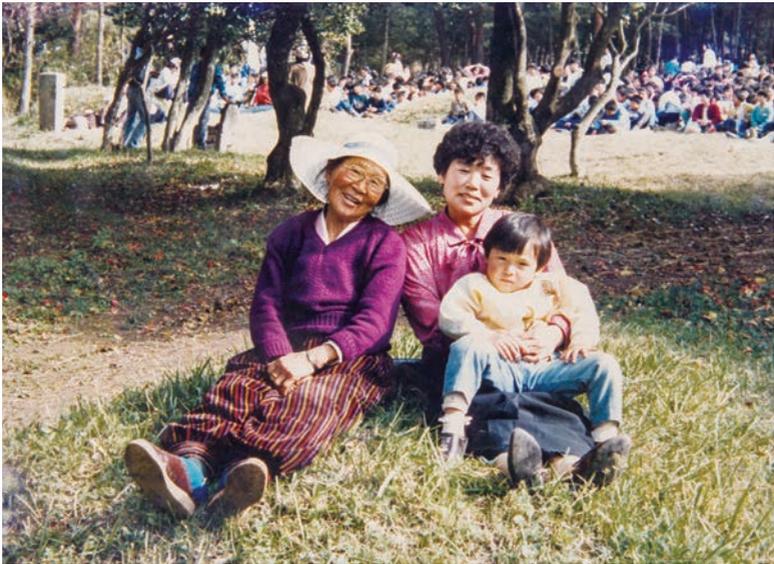
## 두 달도 안 된 조카를 내가 키웠제

민호 [둘째 시동생]도 결혼해서 잘 살았고, 옥재 [셋째 시동생]는 살다가 죽어 부렸어요. 그러고는 다섯째 [넷째 시동생 이생재]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마흔둘이나 셋이나 그렇게 먹었을 때 [1979~1980년 무렵]일 거어요. (생재가) 의신면 송정 [진도군 의신면 송정리]이라는 데 결혼을 해갖고 딸을 하나 낳은 후에, 그 딸이 3살 때 아들을 동남이를 낳았어요. 이생재 아들 동남이가 2개월 되었는데 동서가 안 아프요. 결핵성 내막염 [결핵성 뇌막염, 결핵균으로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래요. 그러가지고는 죽어 부렸어. 어찌케요. 2달도 안 된 애기를 내가 키웠제. 그놈을 키움시로 애기가 을매나 아픈지. 내가 일하다가도 애기를 업고 (고군면) 벽파로 가갖고 배를 타고 목포로 (갔어요.) 목포 노소아과라고, 내가 이름도 안 잊어부렸어. 한 달이면 몇 번씩 땡겼어요. 그랬더니 노소아과 원장이 차라리 목포로 이사를 오라고, (내가) 하도 땡기니까.

(동남이를) 6살이나 먹었던가, (그때까지) 키웠어. 굉장히 이쁘게 키웠어. 미운 정이 없고 너무 이뻐어요. 진짜 벽파에서 바람이 불고 그러면,

“하이고, 너 죽고 나 죽겠다.” 까바져서 [뒤집어져서] 막 그렇게 했지. 한번은 병원에 가면서 돈을 담아갖고 갔는데, 배에 점치는 사람이 있어. 그래, 내가 돈 주고 애기를 봐주라, 그랑께는 (점쟁이가) 뭘 써주면서 애기 비개 [베개]다 넣어주면 건강하겠다, 그래. 하도 아프니까 그런 짓까지 다 했어요.

그랑께 시아재 [시동생 이생재], (우리) 딸, 아들, 고놈 [조카 이동남(까지) 집]에서 밥해 먹이고 키고 그랬는데, (생재가) 둘째 부인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애기를 데려갔는데, 그놈이 첨에는 즈그 (새)엄마한테를 안 갈라고 하드라고. 나중엔 가드마. 내가 키운 그 애기 [조카 이동남]가 결혼해갖고 애기를 둘이나 낳았어요.



원주 이씨 선산 소풍 기념사진  
(좌측부터 강강술래 보유자 최소심, 박용순, 조카 이동남)

그 뒤로 또 키웠어요, 애기를. 작은 딸 [둘째 딸, 이예숙]이 즈그 신랑하고 둘이 학교에 가 있었기 때문에 애기를 나서 못 키니까. 예숙이 큰딸하고, 지금 작은 딸은 성악하고 있어요. 올해 전남대학교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그놈 또 키웠지요. 우리 (넷째) 금아네 애기도 키웠고, 한 14명인가 키웠어. 그러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인즉까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살았지. 그렇게 내가 다 늙어부렀지.

## 시아재들이 형님, 형수라고 하면서 다 잘해요

---

내가 키운 막둥이 시아재 [이정재]가 울산 현대자동차에 가 있거든요. 참, 잘 됐어요. 안동 이가씨하고 결혼할 때, 형수가 와서 보고 좋다하면 (결혼)하고, 싫다하면 안 할 것인데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내가 농사지어서 쌀, 마늘, 다 보내주잖아요. 시아재들이 형님, 형수라고 하면서 다 잘해요.

그라고 (큰 시동생) 이수호가 (여기서) 벌을 키는데, 광주가 집이 있어요. 잘 살아요. (예전에) 큰시아재는 이발 기술 배워갖고 둔전 부락하고, 덕병 [전도군 군내면 덕병리]하고, 월가리 [전도군 군내면 월가리]하고 1년 내 (출장으로 이발을) 했어요. 작은 사랑채에서 시아버지랑 자고, 녀의 집 하나 짜간한 거 얻어가지고 이발원 만들었거든요. 수곡 [이발비]은 보리 때 보리로 받고, 가을에는 나락이로, 벼로 받았어요. 그걸 원당이라 그래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잘살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벌을 하잖아요. 그렇게 봄부터 여름까지 (양봉)하면은 겨울은 (광주에) 즈그 집서 살아요. 앞으로 3년은 더 (밥 해줘야 해요.) 즈그 부인하고 사는 시간보다 매일같이 나하고 사는 시간이 더 많아. (큰 시동생이) 굉장히 까

다롭거든요. 꼬장꼬장하게 생겨갖고 옛날에 옷도 꾸그러지믄 다시 대리라고 그랬어. (내가) 새각시 때부터 해줬는데 꼬부라진 늙은이가 되어 갖고 지금까지 해주고 있어.

(내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혼해갖고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다 봉께는, 누가 안 물어봐도 내가 책을 하나 써야 쓰겠다, 그랬어요. 하도 고생을 해놔서 우리 자식들 보라고 내가 남겨야 쓰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 6

## 원래 일을 건성건성 안 해요

- 낳고 보니까 딸이 좋더라고요
- 꿈에도 그렇게 아들을 낳까
- 나는 무뚝뚝하니 그러거든요
- 애기들 가르칠라고 아주 작심을 했제
- 넘한테 돈 10원 한나 빚 안 지고
- 보리를 비어내고 담배를 하지
- 겨울철에는 바느질을 많이 했어요
- 애기들 여덟을 대학에 다 보냈어요
- 식구가 많아도 그렇게 좋아요





1966년 큰딸 이향아를 시작으로 박용순은 8남매의 어머니가 된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다. 다른 사람의 농사를 도급으로 맡기도 하고, 봄에 보리를 수확하고 나면 그 자리에 담배 농사를 짓기도 했다. 농한기인 겨울에는 바느질을 해 품앗이를 하기도 하면서 8남매를 전부 대학에 보내기에 이른다. 명절이면 시동생과 동서들까지 60명에 이르는 가족이 모일 정도로 화목한 가정은 박용순의 자랑이다.

## 낳고 보니까 딸이 좋더라고요

---

(남편이 제대하고 나서는) 모방에서 살았어요. (남편이) 군대 갔다 와서 살아보니까, 마음씨가 좋고 착하고, 누구한테도 델[비교할] 수 없이 생활력 같은 것이 강했어요. 겨울에 밤에는 가마니를 쳤어요. 계속 새끼를 꼬았어요. 그리고 낮에는 장에로 (가서) 팔아. 일은 힘들고 물론 그랬지만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집디다.

그러다 (큰애 [1966년, 첫째 딸 이향아]를) 스물일곱 [29세]에 낳았어요. 근데, 스물여섯엔가 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아들이었어요. 병원에 갔으면 살았을 거인데, 한 삼사일 집에서 고생하고 있다가 어린애를 난 것이 그냥 죽었어요. 그러고는 바로 스물일곱에 큰딸을 낳았어요. 처음에 실패하고 큰딸 나니까 (시댁에서) 굉장히 좋아했죠. 아주 귀하게 잘 키웠어요. 시아버지가 애기를 다 봐줬어요. 둘째 딸 낳았을 때도 할아버지가 둘째 딸은 걸리고 다니고 큰딸은 업고 다니고 그랬어. 이상하니, 큰딸을 굉장히 이뻐했어요.

둘째는 이예숙 [1967년], 내가 스물여덟 [3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이명아 [1969년, 셋째 딸], 이금아 [1971년, 넷째 딸], 이민아 [1972년, 다섯째 딸], 이성아 [1974년, 여섯째 딸], 그다음에 이동기 [1975년, 큰아들], 이동영 [1976년, 막내아들] (을 낳았죠.) 서른여섯 [37세]까지 (딸만) 낳는데, 시아버지가 딸만 낳다고 그런 말 안 해요. 시비 안 하고 다 애기들 잘 봐주고, 애기 나면 금줄 다 치고, 상 차려놓고 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든 나는 막 나가서 금줄 깨 부러. 그럼 할아버지가 금방 쳐.

나도 애를 연년생 낳다 보니까 굉장히 고만고만하지. 아들만 낳았으면 (더는) 안 낳겠지요. 지금은 낳고 보니까 딸이 좋더라고요. 딸네들도 깨끗하게 입히고 넘보다 더 잘 가르칠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남편 이수봉과 셋째 딸 이명아(5세 무렵)

## 꿈에도 그렇게 아들을 낳까

그해 [1975년] (큰아들 동기를) 정월달에 낳는데, 우계가 셋째 [시동생 이민호]가 사는 작은집이 한나 있거든요. 시아버지가 거기 집 지슬라고 갔어요. 그때 학교 댕기는 (막내) 시아재 [이정재]가 내가 애기를 난 거를 보고 학교에 갔어.

그런데, 내가 (금줄에) 고추를 안 뇌켰어. 고추가 없으께 못 찡구 [달고], 중이만 찢러났으께. 왜 그랬냐면, 여섯째 [이성아] 낳 때 내가 아들 낳랑가

싶어서 고추를 아주 이쁜 걸로 골라갖고 빼달이 [서툰]에다가 10개나 담아왔거든요. 금줄 치든 꿈을라고. 그런데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준비를) 못 해부렸어. (그랬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또, 딸 낳았다.”고 하니까 우리 막둥이 시아재가 시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던 가봐요. 종이만 ‘팔랑팔랑’ 하드라고. 그랑께는 (시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있다가 아주 사정없이 던졌다고요. 셋째 매느리가 봉개, 망치를 아주 어디까지 던져볼드래요.

나중에 (동서가) 시아버지한테 “형님 아들 낳았다.” 그랑께는 아주 두 주먹으로 갈라 쥐고 걸어오더래요. 동서가 뒤를 아무리 따라와도 못 따라오겠더래요. 그래갖고 팍 들오더니 (이불을) 탁 들썩봐. 아들이니까, 즈그 작은아버지 다섯, 여섯이 도구통 [절구통]에다 떡가루를 빠사갖고 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해 쌀도 지상이 [항아리]로 한나나 [한가득]



아들 이동영(여덟째)과 이동기(일곱째)

먹고, 나무도 한 베늘 [가리, 1가리는 20번]이 다 갔어요. 재미진 게 시아버지가 (첫 손자한테) 붙어갖고 앉아서 안 나가더라고요. 그만큼 (손자라고) 좋아했어요. 동네서도 아주 난리가 나고, 군내면에도 소문이 났어요.

(남편은) 딸을 낳아도 딸 낳다고 그런 말도 안 하고 다 이뻐하고 그러더라고요. (남편도) 속으로는 재미졌던 거이제. 나는 침에는 아들이라 게도 끈이 안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든 정말로 꿈에도 그렇게 아들을 낳까 싶었지만, 서른여섯 [38세]에 큰아들을 낳은 거여. 그리고 서른여덟 [39세]에 둘째 아들 동영이를 낳았어요. 시아버지가 굉장히 (손주들한테) 좋게 했어요. 막내 손자 동영이까지 보고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102살 (정도죠), 85세에 돌아가셨을게.

## 나는 무뚝뚝하니 그러거든요

---

우리 (장남) 동기는 딸만 여섯 낳고 나온 아들이니까, 금이나 옥이나. 내 생각이 아들 낳으면은 금 속에 파묻어 놓겠지, 했어요. 그랬는데 누나들 입던 옷 입고, 누나들 신던 양말 다 주어서 신키고 그랬어요. 참말로 마음은 귀한데, 그렇게 형편이 못했지.

그란디 (큰아들 동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해갔고 광주서 학교 댕기고, 거기서 대학교 다님서 아가씨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가씨를 데리고 왔는데, 할아버지 [남편]가 너무 이뻐해. 너무 이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우리 식구들도 다 좋다곤 했어요. 그래 내가 그랬지. 며느리 될 아가씨보고,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아냐?” 그만큼

귀한 아들이다, 그러니깐 (아가씨가) 안다고 그러든만. 나중에는 상견례를 하게 돼 갖고 (결혼해서) 잘해요. 지금 광주 사는데 며느리는 잘 얻었어요.

시아버지 [남편 이수봉]가 (광주로) 백사 [모든 짓]를 다 싸갖고 땡겼제. 심지어 반찬 곡식 다 싸갖고 땡겼지. 지금까지 싸갖고 땡기는데 뭘 말 하겠어. 아빠는 굉장히 자상해요. 내가 70살 못되어서 학생들 지도하러 다닐 때 (남편에게) 차 운전하라 함께는 얘기 업고 (운전면허) 공부했어. (또) 즈그 아버지 [박용순의 시아버지] 닮아서 자상하니 얘기를 잘 봤어요. 그래서 (8남매를) 키웠제. 나는 무뚝뚝하니 그라거든요. 나는 귀하게 일곱 번째에 아들을 낳았어도 겉으로는 자상하덜 못해요. 전화를 받아도, “뉘냐, 끊어라.” 그라제. 내 아들이란 소리도 못 해보고 살았어요.

## 애기들 가르칠라고 아주 작심을 했제

---

애기 낳고, 젖먹이고 그라면서도 옛날에 있던 논에다 또 개논을 보탬쥬. 함께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졌지. 그런데, 품앗이 안 하고 돈 벌라고 한개모를 했어요. 900평 [약 2,975㎡]짜리 논 하나에 사람이 손으로 하면 6명이 하루 심그거든요. 한개모라는 것은 도급 [기간 약정]을 하고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하니까 5명(만) 넣어갖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엄청 했어요. 새벽에 모 하러 간다고 나가면 시계가 없으니까 몇 신지도 몰라. 닭이 울모 그냥 나가. 그러면 가서 하루 심을 모를 손으로 뜨잖아요. 그러고도 날이 안 새면 거기 논두렁에 (잠깐) 자고, 날 새면 모 심고 했어요. 거의 한 달 정도 했어요. (일) 욕심을 어찌 냈던가 지금은 그것도 모르겠고. 해마다 매일같이 했어.

이제 좀 부끄러운 일 같은데 내가 학교가 댕그고 싶어도 못 댕겼고, 가난하니까. 그래갖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 쓰겠다. 애기 아빠도 못 배웠지만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그게 둘이 마음이 맞았어요. (애들) 키우고 하면서 일하고 고생 겁나게 했는데, 그거는 둘째 문제고 가르칠 것이 문제여. 애기들은 열심히 갈쳐야 쓰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평생 일 해갖고 논 사고 모랬죠 [저축했죠].

이 아래 이층다리라고 있는데 한 자리에 논 900평을 25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때 좋은 논이 250만 원 (그랬어요.) 논을 몇 자리 샀지요. 이제 통일벼가 나오고 새마을 사업할 때예요. 그때 나라를 무한정 사줬거든요. 통일벼<sup>●</sup>도 박정희 [대한민국 제5~9대 대통령] 대통령 할 때야. (수확량이) 많았지요. 그때는 나라금 [벼의 값]도 올려주고, 100프로 사고.

통일벼 할 때만 해도 셋째 [시동생 이민희]가 (군내면 둔전리) 금골서, 넷째 [시동생 이육재]가 여그서 살고, 이수호 둘째가 이 밑에서 살 땐께 녀름을 털꼬 일을 안 했어. 형제간이 많으니까. 가을에 새벽부터 가서 하루 종일 기계로 타작해요. 나라 훑어갖고 밤이로 그놈을 다 가져와. 그라면은 항상 밤 12시 전에 밥 안 먹어봤어. 그놈을 실어 나르니까 밤새지. 하루 종일 한 것을 다 가져오니까. 해가 다 빠질 때 900평짜리 논 한나 나라다 묶어서 딱 (벼)가리 쳐 놓고 집에 오고 그랬어요. 그랑께 모 할 때 한 달, 가을 할 때 한 달, 그래서 품삯이 녀름의 집으로 안 나가고 이녀이 [우리] 일한 댓가로 뵈어요.

또, 할아버지 [남편 이수봉]가 농사를 잘 지어요. 면에서 한 2년인가, 3년인가 10만 원씩 농사를 잘 지으니까 상금도 탔어요. 나라를 엄청 많이 해갖고 판매해 보면 다 1등, (품질이) 좋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10가마씩

## 새마을 운동과 통일벼

196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때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자, 박정희 정부는 타계책의 하나로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기로 한다. 1970년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3대 정신으로 생활 태도와 환경 개선, 소득 증대를 목표로 삼았다. 처음에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시행되었고, 이후 도시로 확대되며 새마을 운동은 전국적인 운동이 되었다.

한편, 1970년대 초는 부족한 쌀을 자급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던 시기였다. 이에 정부는 쌀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혼식과 밀가루 분식을 장려했다. 당시 유행하던 ‘보릿고개’라는 말 역시 전년도에 수확한 쌀이 충분치 않았던 탓에 이듬해 보리가 생산되기 전 식량이 매우 부족했던 기간을 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60년부터 연구를 진행하여 1972년엔 농가에 ‘통일벼’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재배된 통일벼는 당시 재배되던 다른 품종들보다 30% 가량 생산성이 높은 다수확 품종이었다. 또한 병해충에도 강한 특성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통일벼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였고, 1976년 우리나라는 평년보다 21.8% 증가한 521.5만 톤의 쌀을 생산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초로 쌀의 자급자족을 달성하게 되었다.

계를 들어요. 열이 (계를) 한다 치면 제일 앞에 타는 사람은 100가마니만 탔는데, 우리는 제일 끝에 계 타면은 100개 넣고 150개 탔거든요. 어찌든 애기들 가르칠라고 아주 작심을 했제.

## 넘한테 돈 10원 한나 빛 안 지고

경운기 사고도 소는 키웠어. 오래 키웠어요. 송아지가 비쌌으니까. 1년에 송아지 하나씩 낳으면 팔고, 돈 되는 것은 다 해. 넘의 거 훔쳐 오진 안 했어도 노력하는 것은 다 했어요. 가을에 소로 할아버지가 생

기질 해갓고 보리(밭을) 갈쥬. (소는) 한나 [한 마리] 키움시로 여름에는 깔 [밭, 소의 여물] 비어다가 주고 오후로 점심 먹고, 풀 먹이러 산이로 땡겨요. 겨울에는 소죽 끊여갓고 아침, 저녁이로 주고, 생여물 [끓이지 않은 소먹이]도 주고 그래 맥이드라고요.

(쟁기질은) 한 3번 하쥬. 쥬 먼저 겨울에 했어요. 겨울에 해놔다가 봄에 두불 갈고, 세불 갈아갓고 썬레 [갈아놓은 논바닥을 편편하게 고르는 데에 쓰는 연철]이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논 골르쥬, 모 하게꾸럼. 지금은 5월 달에 썬나락 [별썬]을 하는데, 예전에는 더 앞에 했어요. 모가 자라는 시간이 있음께 3월 말일 정도 되면은 땅에다가 뿌려갓고 그렇게 일찌가니 [일찍부터] 했어. 한 2, 3일 되면 축 [썬]을 냅디다. (안방에다) 이불로 싸갓고 불 때고 축이 나오면 그놈 갖다 (논에) 뿌리제. 모내기는 (음력) 5월, 6월까지 할 것이여. 모는 여자들이 심고, 남자들이 줄 잡고 (했어요.) 하튼 모내기는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했다고 보제. 논도 (한) 2, 3번 맬 것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또 뭘 했냐 그라믄, 논을 이제 900평짜리 한나를 갈면은 돈을 얼마를 주잖아요. 그라믄 (군내면 둔전리) 안농 [1953년 황해도 실랑민들이 정착한 마을] 마을에 피란민들이 논을 많이 갓고 있었거든요. 그라믄 소 갓고 가서 쟁기질을 해쥬. 또 썬레질 [모내기 전 논에 물을 대고 바닥을 편편하게 고르는 일]까지 다해서 모를 심어 주기까지 도급을 맡으드만. 그렇게 해서도 돈을 벌었어요.

그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러요. 1년에 농사 지어갓고 판매보고, 계 타고 그라믄 개논을 몇 개 샀을 것이여. 그라면은 우리가 정말 부자 되었을 거인데, 그걸 하나도 안 사고 다 얘기들 (교육비) 할라고 전부 예금을

했어요. 이날 평생 팔십 넘도록 삼시로 [살면서] 넘한테 돈 10원 하나 빚 안 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모태는 [저축하는] 힘이 컸어.

## 보리를 비어내고 담배를 하지

---

그라고는 담배도 한 10년 넘게 했어요. (많이 심을 때는) 아홉 마지기, 900평까지 했어요. (봄에) 보리 비기 전에 보리밭 속에다 담배 모종을 심어요. 보리를 비어내고 밭고랑을 갈아가지고 담배를 하지. 모종은 요 정도 [20~30cm] (간격으로) 이렇게 심어요. (담배가) 빨리 자라요. (여름에) 담배가 파란 것이 놀짱하면 [노르스름하면] 여름에 담배 이파리를 뜯죠. 손으로 하나씩 익은 놈만, 말하자면 약 찬 [노랗게 익은 잎사귀] 놈만 뜯어. 약이 잘 차야 무게가 많이 나가제. 그것도 애기 아빠하고 많이 싸웠어. 나는 좋은 놈만 뜯자고 하는데, (남편은) 막 뜯어버려. 애기들 학교 갔다 오면은 “공부해라.” 그 말은 안 하고, “담배 좀 갖다 주라.” 시키고 그랬어요. (담뱃잎) 뜯어서 묶어 논 거 (아이들이) 이렇게 좀 쳐들어다 주고, 밤에는 할아버지하고 둘이 다 하고 엮었어요. 잠 안 자고 밤새지.

이제 그걸 뜯어다가 건조장에다 말려요. 우리 여그 마당에다 건조장 쳤고, 밭에도 쳤고 그랬어요. 겨울 되면은 그걸 꼭지를 쥐어. 나란히 이쁘게 해서 손으로 요 정도 [한 움큼] 쥐어서 감아요. 그런데 그거 할 때도 시아버지하고 우리 지금 할아버지 [남편 이수봉]하고는 막 두선두선 [전성전성] 안 좋게 하고 그랑게 나는 막 (뭐라고 했어.) 하튼 담배 판매 보러 가면 1등을 많이 맞았어요.

## 겨울철에는 바느질을 많이 했어요

---

겨울철에는 바느질을 많이 했어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품앗이로 했어요. 내가 (미싱을) 하는지 아니까, 내가 옷을 해주고 그 사람이 우리 밭도 매주고 그런 식으로. 한나 해주면은 그냥 일 하루씩 하고 그랬을 거. 그런 거는 품 안 받고, 다 뽕짜로 해줬어.

(옷감은) 자기가 가져오제. 내가 뽕 [뽕]을 놓고 큰 사람은 큰 대로 비고 [짜르고], 적은 사람은 더 적게 비고 하죠. 또 할아버지들 한복 조끼 같은 거, 바지도 해주고, 여자들 저고리하고, 브라우스 같은 것도 해줬어요. 또, 부락 사람들 떨어진 옷, 애기들 바지 무릎팍 떨어진 것도 미싱 있게 지워주라고 [기워달라고] 가지고 와요.

(재봉틀<sup>●</sup>은) 시아버지가 사줬어요. (내가) 한 30살이 못 되었을 겁니다. 시아재들 옷이 하도 떨어져요. 손으로 주워주면 [기워주면] 또 금방 철철해갖고 [옷이 해져서] 하루만 되면 툭 터져갖고 줍고, 줍고 (했어요.) 시아버지 명주옷도 밤에 방맹이로 다듬이 해갖고 한 벌 맞춰논께 날 썩디다. 그때 시아버지가 (재봉틀을) 나락이로 3가마닌가, 4가마닌가 주고 사줬어요. 그런데 미싱을 사논께, 더 바빠. 왜 그라냐면 하도 해주란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도 일 한번 잡으면 끝이 없어. 안 놔, 성격이. 뭐이든지 좋게 하고 싶제. 원래 일을 건성건성 안 해요. 지금도 사람들이 나보고 옷 주워 [기워] 입고 땡긴다 그러는데, 내가 입고 싶으면 떨어진 테도 주워 갖고 입어요.

## 가정용 재봉틀의 국내 도입

1957년 ‘아이디얼 미싱’이 국내 재봉틀 생산을 시작하였고, 60년대부터 라이온, 파고다, 부라더, 드레스, 썬스타 등 많은 브랜드가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신제품을 앞다투어 내놓기 시작했다. 70년대에 들어 경제가 나아지고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재봉틀이 가정에 많이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꽃님이 시집 갈 땐 000 미싱’이라는 광고표어가 등장할 만큼 신부들의 혼수품 1순위였다. 또한, 그 당시 재봉틀은 한 대 가격이 송아지 한 마리 값인 30만 원 정도였는데 비싼 가격 탓에 일반 가정에서는 새것을 사기보다는 주로 부잣집에서 쓰던 중고 재봉틀을 구매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장만한 재봉틀로 어머니들은 옷이나 이불을 만들어 생계 유지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아이들에게 직접 옷을 만들어 입혔다. 하지만 기성복 시장이 발달하고, 수선이 필요하면 세탁소에 맡기면 되는 시대로 바뀌면서 가정용 재봉틀은 점차 사라지고, 봉제산업이 발달하면서 공업용 재봉틀의 보급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홈페이지([www.iumpium.com](http://www.iumpium.com)) 참고.

## 애기들 여덟을 대학에 다 보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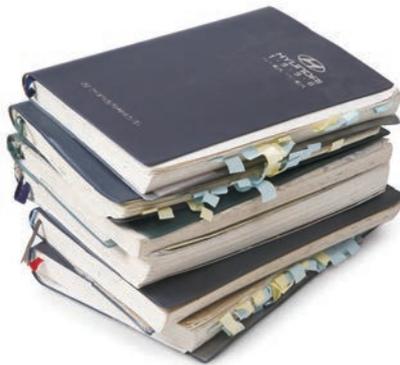
애들이 여기 군내중학교 [진도군 군내면]를 댕겼어요. 여기서 공부를 못하면 (고등학교를) 진도로 가고, 그라나면 [그렇지 않으면(그보다 공부를 잘하면)] 목포로 가고, 잘한다는 애기들은 광주로 가고 그라는데, 딸네들 4명이 (고등학교를) 광주로 갔거든요.

큰딸 [이향아]이 공부를 잘했는데 혹시 떨어지른 진도읍에 오게 되니까, 보쌍 [배짱]이 없어갖고 목포제일여고로 보냈어요. 그 뒤로 작은딸 [이예숙]은 (군내중학교) 전체에서 1, 2등해서 고등학교를 광주중앙여고 [현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로 보냈어요. 셋째 딸 [이명아]도 광주송원여고로 보

냈어요. 그리고 넷째 딸 금아는 광주에 대성여고, 다섯째 딸 민아도 송원여고, 공부를 잘하니깐. 여섯째 딸 성아도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광주 와서 시험에 떨어졌어요. 참 희한했어. 선생님들이 “떨어져도 성아는 안 떨어질 거이다.” 했는데, 할 수 없이 진도여고에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 동기는 광주서 학교를 보냈는데, 그때만 해도 농협 같은 데 가서 돈을 못 부쳤어요. 보재기에다 싸갖고 허리에 띠고 애기들한테 갖다 주고 그랬는데, 해마다 방을 얻을랑께 그것도 성가시더라요. 그때 광주 동운동 [광주광역시 북구에 돈 4,700(만 원)을 주고 아파트 집 1층짜리를 샀어요. (마침) 큰딸이 대학을 광주로 가게 되었어서 애기들한테 모아 놓을라고. 어찌케 됐든 애기들 여덟을 대학에 다 보냈어요.

즈그 아빠가 총각 때부터 일기를 써갖고 지금까지 써요. 일기 쓴 책이 이만큼 되는데, 같이 사는 딸이 넷째, 이금아 하는 말이에요. “엄마는 뭐 했어? 아빠는 이렇게 인죽까지 써와서 이런 게 있는데.” (하기에) “느그 엄마? 느그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느그들 뒷바라지만 했다.” 그러고 말았어요.





## 식구가 많아도 그렇게 좋아요

---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둔전리서 상수도 물세를 우리가 제일 많이 물어요. 왜 그라냐면 지금 (넷째 딸) 금아 식구하고 같이 살아요. 결혼하면서 계속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딸이 군청 [진도군청]에를 댕겼는데 사위도 군(청)에 가 있었거든요. 광주 사람이요. 둘이 결혼을 해 갖고 내가, “애기 낳으면은 키워줄 것인데. 집에 와서 애기들 키울 동안에만 살아라.” 그랬단 말이요. 지금 큰 애가 (전남 담양에) 창평고등학교 다니고, (둘째 손자는) 중학교 다니고 그래요. 나는 조금 하다가 기양 [그년] 광주로 갈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딸 가족이랑) 살고 있지, 뭐. 딸한테 나가라 계도 안 나가. 때가 되면 가겠지, 내 팔자려니 그라고 살죠. 그런데 속도 모르고 지금 넘들이 (내가) 그런 고생 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요즘 나보고 일도 덜 하고 편하다고 함께.

내 밑에 동서가 5명이잖아요. 지금 작은 집 애들 전부 합치면 73명이에요. 추석하고 설하고 명절 때, 1년에 2번씩 못 와도 한 60명씩은 와요. 그러면은 돼지 한 마리 정도 저녁에 다 구워서 먹고, 술 먹고, 하다 하다 할 거 없으면 훑도 놓고 사위들까지 다 모태니까 아주 재밌게 놀고 (그러죠.) 동서들도 아주 좋아요. 식구가 그렇게 많아도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시아재들도 다 형수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형님을 아빠처럼 생각하고 그래. 애들도 착하고, 저그들 먹고 살만치 살고 있으니 화목하고 잘 사는가 보죠. 누구 하나 빠진 사람 있으면 좀 성가실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다 괜찮아요.



시누이, 동서들과 기념사진  
(아래 우측에서 두 번째 박용순)



2017년 7월 15일, 남편 이수봉의 팔순연 기념  
(중앙 좌측 이수봉, 우측 박용순)

# 7

## 노래도 못하는 내가 강강술래를 했다니까

- 콩쿨 대회 나가서 노래도 불렀어요
- 대회 나갈라고 밤이로 연습을 겁내 했죠
  - 돌아대닐 수 없이 사람이 찾아
  - 그때 뭘 용기로 그랬는고
-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움이 있드만
- 이수봉 색시가 동네 구장해도 쓰켰다고





1961년 진도 축진회 주관으로 강강술래 대회가 개최된다. 지막리의 조통준이라는 사람이 둔전리로 와 부녀자들에게 강강술래를 가르쳤는데, 이때 박용순은 다시 강강술래를 접했다고 한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모여 연습에 매진한 둔전리팀. 대회 당일 25개의 대형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며 강강술래 대회에서 2등을 거머쥘다.

## 콩쿨 대회 나가서 노래도 불렀어요

---

(명절에) 부락에서 (노래) 콩쿨 대회를 했거든요. 내가 (스물) 세 살이 나 먹었던가. 그런데 나는 처녀 때 향동에서 노래 잘한단 소리도 안 들어보고, 뭐 잘한단 소리는 들어 보도 안 하고 그랬는데 둔전리로 오니까, “노래를 해라.” 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완고한 시아부지한테 가서 “저 (노래) 한다.” 함께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 나가서 콩쿨 대회 하는 데 나가서 노래도 했었어요. <작사랑> [1958년 발표, 노래 손인호] 하고 또 뭣했냐, <한 많은 대동강> [1958년 발표, 노래 손인호] 그런 것도 (불렀어요.) 상을 받았던가 안 받았던가 모르겠어. 그때 시어머니가 (노래하는 거) 보러 나오셨어. 지금 생각하니 우서 [우스워]. 그렇게 철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 유행가 부른다고 선생님한테 벌도 받았는데, 결혼을 해갖고 그래서 나도 웃음 나 죽겠어. 내가 그렇게 속이 없었어요.

## 대회 나갈라고 밤이로 연습을 접내 했죠

---

그때 [1961년, 24세 무렵] 얘기 안 낳아서 23살, 24살 되었던가. 강강술래 한번 했어. 그때 진도에 축진회 [재건국민운동본부 산하 기관]\*라는 거이 생겼어요. 군내면 세등리 광구관이라고 그분이 축진회 회장 했어. 그래갖고 부녀회가 생기고, (고군면) 지막리에 조통준이란 사람이 와서 강강술래를 가르쳤는데, 저하고 한 5살 차이는 났어요.

통준 씨가 직업이 어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암튼 멋쟁이였어. 사람 멋있게 생겼더라고, 이쁘고. 둔전리서 한 15일도 더 있었을 거여. 그때만 해도 지막리서 여까지 걸어다니면서 갈쳤어요. (처음에는) 동네 아가씨

들이 좀 낭창낭창 하제 [해야지], 뻗뻗하니 그란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주 갈친대로 [가르친대로] 잘한다고, 그래. 그 사람이 지도해서 우리가 굳 내면 강강술래 경연대회에 나갔네요.

내가 그전에 기타를 좀 쳤어요. 쩌간 해봤어요. 〈아리랑〉 같은 것도 하고, 동요 같은 것도 했어요. 배우도 안 하고, 넘이 하는 걸 보고 (따라) 함께 해 집디다. 그때 쩌간 해본 것인데 (조통준 씨가) 나 보고 기타를 갖고 와서 쳐 보라고 하드마. 그래 내가 〈진도아리랑〉 같은 거 기타를 치니까. 강강술래를 한 번 해보라게. 그래서는 우연히 강강술래 한 번 했는데, 또 메김소리 [민요를 부를 때 앞서 부르는 소리를 하라함께 (했지.)

이 부락에 아가씨들이 한 45명 정도 되었어요. 그렇게 많었는데, 이상하니 결혼한 나하고, 박윤자 [朴允子, 1943~,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이수자]라고 둘이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회를 나갈라고 저녁이로 연습을 많이 했죠. 좀 가르쳐놓께 아가씨들이 아주 잘했어요. 그래갖고 강강술래를 (도본을) 25개 맨들어서 둔전리도 쓰고, 태극기도 그리고, 거북선도 그리고 암튼 안 한 것 없이 다했어. 박윤자는 호루라기를 불고 리드를 했는데, 지금같이 우리가 (메기는) 소리하고 맞음 소리 [받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이라, 내가 소리만 하고 (그랬는데도) 전부 다 맞았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이로 (강강술래 연습을) 겁내 오래 했어요.

나도 내가 이상해. 어찌케 해서 강강술래를 그렇게 했는지. 시아버지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 뒤로, 내가 강강술래 전수하러 맹긴다고 서울 같은 데 갈 때도, “아버지, 서울에 이렇게 공연 있으니까 갔다 올랍니다.” 그러든 시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요. 나가는 거 싫어했제. 그래도 (집에) 오면은 “왔냐.” 그래.

## 재건국민운동

재건국민운동이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후, 같은 해 6월부터 이어진 정부 주도의 국민운동을 말한다. 재건운동, 신생활운동, 국민운동 등으로 불렸는데, 이는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면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새로운 생활 체제를 확립하고, 반공이념을 확고히 하는 내용으로 전개됐다. 이에 따라 재건국민운동본부는 서울과 각 시도에 지부를 설치했고, 각 지부는 산하에 행정구역 단위마다 축진회를 두었다. 또한 축진회는 부녀부(오늘날의 부녀회)를 신설하여 활동하게 했으며, 1961년 6월 12일 전국축진대회를 시작으로 각 지부별 축진대회를 개최하였다.



국가재건범국민운동축진대회 및 시가행진(1961년)

재건운동본부주최 신생활 간소복 패션쇼(1961년)



가족계획지도요원 수료식(1964년)

자료제공: 국가기록원

## 돌아대닐 수 없이 사람이 찾아

---

계절은 여름이었어요. 지금 면 소재지 군내초등학교에서 대회를 하게 됐어요. 추석 전에 8월이면 여름이니까 마당에가 앉았었고 그랬제. 군내면서 여러 부락 나왔어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학교에가 돌아대닐 수 없이 사람이 찾아.

그때는 다우다 [태피터, 팡택이 나는 얇은 견직물로 주로 의복의 안감, 넥타이, 리본 등의 재료로 쓰임]가 처음 생겼어요. 초록 다우다 치마에다가 미색 저고리 입고, 자주 반회장 [깃, 고름, 끝동에 다른 색의 천을 대어 지은 여자의 저고리] 옷고름에다가 머리에 띠를 요렇게 해서 [천을 뒷목에서 귀 뒤로 올려 머리 위에서 묶는 흉내] 꽃 달아서 머리에 띠었어요. 그때만 해도 젊고 그랬던가, 내가 사람들 해줄라고 교실 안에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불라고 교실을 막 들여다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

(축진회 대회할 때) 도본 [강강술래 연출 순서를 적어놓은 글씨 또는 그림]을 그려 갖고 했어요. 내가 갖고 있었거든요. 입장할 때 중강강술래하고 원을 그려요. 리드하는 사람 호루라기 (신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을 만들었어요. 자진강강술래 함서 막 뽀시로 글씨도 쓰고, 그리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 그때 댜 용기로 그랬는고

---

그랑께 나도 지금 내가 어즈케 그랬는가 몰라. (대회 끝나고) 둔전리가 2등이라고 구관 씨가 탁자 우게 올라가서 그러드마, 나오라고. 내가 보

기도 둔전리가 강강술래 제일 잘했는데, 2등을 했어. 그래서 상을 타러 나오라 해. 그래서 내가 나갔는데 상을 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앞에 책상을 밀어 부렸어. 그때 뭘 용기로 그랬는고. 그래붙고 나왔어, 그냥. 그렇게 우리 동네 사람이 전부 따라 나왔제. 그러고 지서로 가서 엄마들 이랑 모두 마당에 전부 앉았었어요. 뭐이라고 막 그랬지. 그러니까 경찰들도 (나와서) “아이, 그냥 가시라. 참으시라.” 하고. 그런 때만 해도 안 만나면 말할 수가 없는 시절이라. 지금 같이 전화 있는 세상 같은데 어찌 누가 이러드라 할 거인데, 소문이 났든가 말았든가 모르지만은 (군대 갔던 남편은) 암 것도 모르제.

시아버지는 칭찬 그런 것은 안 하고, 할 줄도 모르고, (시아머니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부락 사람들한테는 “굉장했다, 잘했다.” 그런 말 들었어요. 그리고 추석이 돌아와 갖고는 강강술래를 둔전에서 한번 하고, 친정애를 가라 하드마. 둔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다 나를 전송했어. 처음으로 대우받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향동에) 갔는데, 우리 엄마가 하도 딸이 안 오니까 향동서 나를 마중을 나왔어요. 여기서 강강술래를 하다 보니 (친정애) 못 갔지. 그때 향동 사람들도 굿 [강강술래]을 많이 보러 왔었어요. 내가 (강강술래를) 함께 “향동서는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우찌케 저렇게 하나.” 그 소릴 해. 그런 계기로 (노래도) 못하는 내가 강강술래를 했다니까.

##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움이 있드만

---

겉곳도 많이 쳤어. 보름 [정월대보름]에 칩디다. 꼬깔을 쓰거나 그란 거는 안 한 거 같은데, 보름에 밤하라고 겉곳을 치드만. 샘에서 치고 내려와



둔전리 마을 사람들과(아랫줄 우측 세 번째 박용순)



둔전리 강강술래 회원들(뒷줄 좌측 첫 번째 박용순)

갖고 집집마다 땡김시러도 친 거 내가 봤어요. 상쇠 [농악에서 꿩과리 제 1주제]는 옛날에 돌아가셔부렀는데 석우네 아부지라고 그분이 쇠도 잘 치고 그랬어요. 그분 동생은 이옥배라고 장구를 잘 쳤어요. 침에 마당에 들어와갖고 부엌에도 들오고, 집을 뺑 돌아서도 치고 그랍디다. 그러면 (집주인이) 상 차려놓고 술도 주고 땡도 내놓고 그랬지. 나부터 한 85살 먹은 엄마들까지는 술은 전혀 못 먹어요. 그란디 우에 돌아가신 엄마들은 술을 잘 먹었어. 엄마들이 굿 치는 데 따라땡김시로 그렇게 즐거움이 있드만. 그런 사람들 참 멋쟁이들인데 돌아가셔부렀어.

## 이수봉 색시가 동네 구장해도 쓰겼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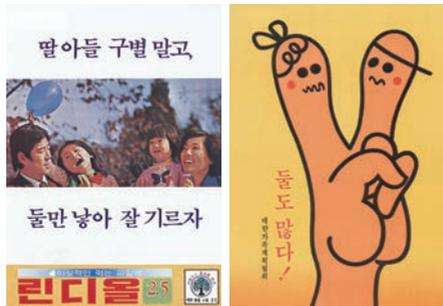
내가 가족계획\*(선전)하러 땡기면서 자연스럽게 부인회장 [1963년, 26세 무렵]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추천은) 아마 이장이 했을 거예요. 월급도 안 나오죠. 일만 많하지. 부인회 자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해다가 팔고, 막걸리도 받고 팔고, 고무줄 같은 것도 사다 팔고, 여하튼 그렇게 부인회 자금도 조금씩 만들고 그랬어요. 지금은 부녀회로 (부르지요.) 부녀회는 동네 여자들, 하고 싶은 사람 다 들어와서 했으니까. 회원이 많았어요. 40~50명 되었을 거예요.

또, 진도읍 향교 [진도향교]로 가족계획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내가 교육을 받고 와서 밤이로 사람들 회관에다 모태 놓고 가족계획 선전을 했죠. 시아버지가 완고하신데 그런 거 갖고는 암말도 안 합디다. 이틀인가 삼일인가는 거그서 자고, 이틀인가는 걸어가고 [출, 퇴근 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인가 (교육을) 받았지요. 그라고는 나는 못 하면서 가족계획 하라고 땡겼어. 하여튼 내가 (부녀회장으로) 제일 첫

스타트를 했으니까. 애기 조금만 나라고 둘만 낳아라, 그랬는데 내가 교육을 받았으니까 말을 잘할 수밖에 없었제. 그랑께 나보고 이장하란 소리가 (나왔어.) 이수봉 색시가 동네 구장<sup>[어쩔]</sup> 해도 쓰겠다고 어떤 엄마들한테 그런 말도 들었어.

### 가족계획사업

가족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직전 1955년과 1960년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약 3%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전쟁 후 베이비붐이 일어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일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를 의미)은 6.3명에 달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증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1961년부터 본격적인 가족계획사업을 시행한다.



자료제공: 국가기록원

이를 위해 정부는 피임에 대한 홍보 및 피임기구 보급에 앞장섰으며, 대중매체를 통해 가족계획에 대한 계몽과 인구증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 가족계획에 관한 표어를 만들어 선전했고, 두 자녀 가구에는 소득세를 감면시켜 주거나, 영구불임 수술을 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우선 할당은 물론 금융대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도 했다. 또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들을 시·군·구의 보건소에 가족계획 요원으로 파견하는가 하면 기본교육을 이수한 지역 출신자들을 선발하여 읍·면·동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가족계획사업은 30여 년 만인 1996년에 인구 감소가 예측되면서 종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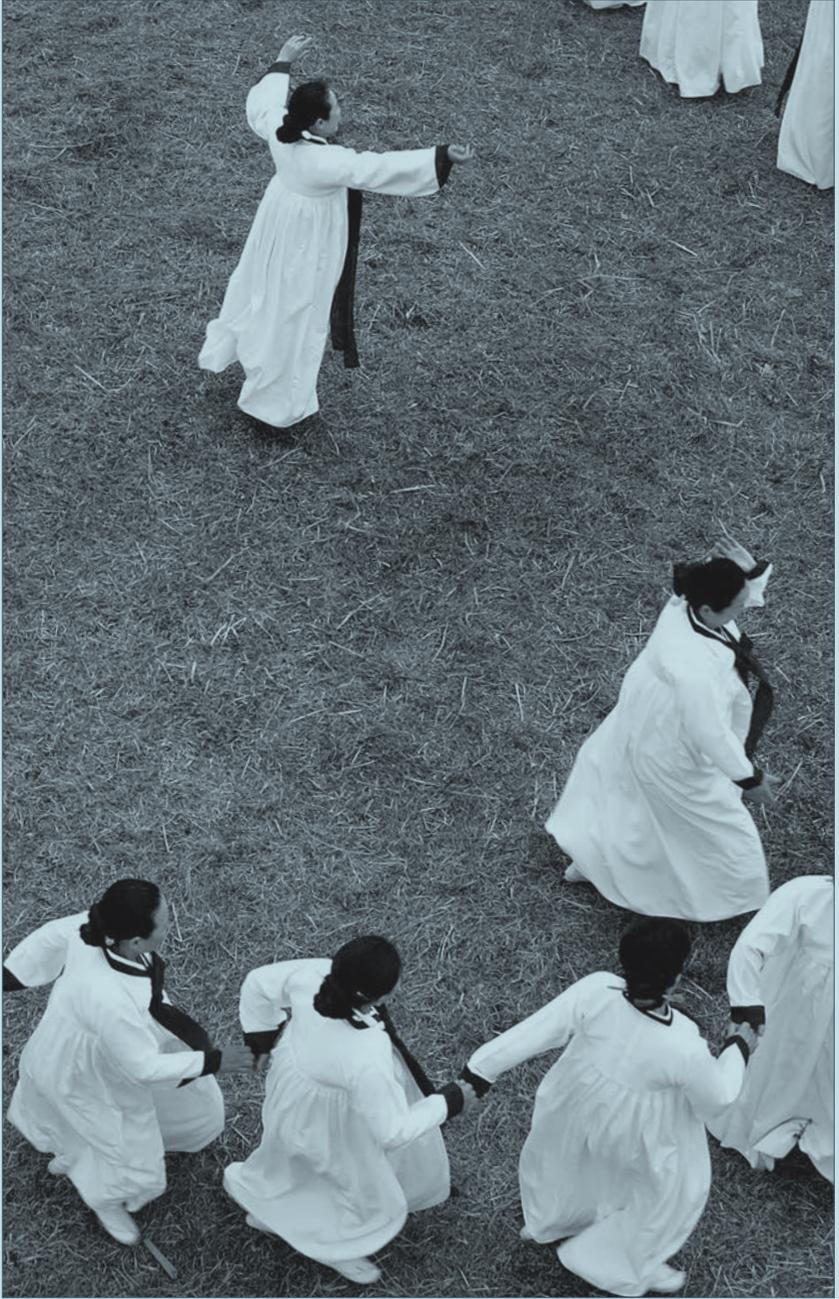


마을사람들과 야유회에서

# 8

## 백일 제쳐 놓고 강강술래를 했제

- 최소심 선생님이 멋쟁이였어
- 양흥도 씨하고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 진도 민속은 전부 조담환 씨가 한 것이에요
  - 애타게 가르쳤어요
- 최 선생님 보유자 지정이 늦게 되었지요
- 옛날에는 전국이로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 사할린으로 위문 공연 간다 그래요
  - 못하는 사람보고는 못한다고 함께
  - 강강술래가 채택이 되었어





박용순은 1980년 덕병리 출신의 강강술래 보유자 최소심의 전수장학생으로 들어간다. 낮에는 밭을 매고 밤에는 강강술래를 배우는 생활을 이어간다. 이후 그녀는 해남 우수영과 진도 동외리, 지막리, 둔전리의 강강술래 전수생들과 함께 국풍 '81, 전라남도 도민체전 등 국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다, 당시 소련이었던 사할린 교포 위문 공연과 일본에서 열린 민족예능제전에 참가하며 세계무대에도 진출하기에 이른다.

## 최소심 선생님이 멋쟁이였어

최소심\* [崔小心, 1908~1992,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보유자] 이분은 동네 할머니니까 진작 알았죠. 최소심 선생이 원래 덕병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이 친정이에요. 덕병도 아주 옛날에 농악도 잘 치고, 그런 거 많이 했다고 그래요. 성격은 참 좋았어요. 같은 집안이에요. 우리가 촌례 [촌수가 높아요. 보유자 되기 전에는 항상 우들 보고 ‘아짐’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최소심 선생님이) 보유자 되고 내가 전수생이로 들어가면서 항상 ‘선생님’이라고 그랬지.

### 진도의 예인 최소심

1908년생인 최소심은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 출신의 소리꾼이다. 최소심은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어릴 적부터 강강술래를 비롯한 많은 민요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강강술래뿐만 아니라 진도아리랑도 잘 불렀으며, 발일을 하면서 부르는 각종 일노래에도 능했다고 한다. 성품이 차분하고 목소리가 고왔으며, 이를 통해 표현되는 동작이나 소리가 정적인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후, 최소심은 1976년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보유자로 인정 받았으며, 현재 강강술래 보유자인 박용순 등 후배 양성에 힘썼다. 1992년 3월 15일 향년 84세로 타계하였다.



자료제공: 디지털진도문화대전

최소심 선생님이 목이 참 좋았어요. 이쁘게 생기고, 또 노래도 구성져요. <육자배기>, <흥타령> 같은 것은 한 번씩 들어봤어요. 우리가 거의 겨울에는 거기 [계수판] 가서 많이 놀았잖아요. 놀아도 노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최 선생님이) 잘 안 하시더만. 그냥 같이 놀고, 얘기하고. 그렇게 참 우스운 소리도 잘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최 선생님이) 춤을 추는 거는 잘 안 봤는데, 소구 [소괴]를 그렇게 잘 치드만. 농악하면 머리에 딱 하얀 띠를 두르고 소구를 치면 아주 기가 맥혔어요. 아주 멋쟁이였어, 멋쟁이. 그랑께 (친정 있는) 덕병서 배웠는가 모르죠. 원래 덕병이 농악 같은 거 잘했었어요. 지금 손판기 [孫判基, 1919~1982, 판소리 명창, 진도 덕병리 장승제와 농악을 이끌었던 인물]나 모두 그런 사람 돌아가셔서 그러지, 그전에는 거가 (농악을) 잘했어요. (최소심 선생님이) 그런 데서 배웠는가, 소구를 잘 치드만. 내가 봉께, 잘해.

## 양홍도 씨하고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최소심 할머니 말이, (자기가) 양홍도 [梁紅道, 1900~1971,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보유자] 씨만은 못했어, 그래. (최 선생님이 양홍도 씨하고)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6.25 (전쟁) 전에 그랬을 거예요. 양홍도 씨가 문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 문고리가 달달 떨릴 정도로 잘했다고, 그러시드만. (내가) 긴강강술래를 (녹음한 걸) 들어보면 소리가 전혀 틀려 [달래]. 양홍도 선생 꺼하고, 최소심 선생 꺼하고 쟤 [목소리의 톤]가 틀리더라고요.

양홍도 선생은 정자리 [전도군 군내면]에서 살았다 했어요. 그분은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들은 얘기가 그것이에요. 사진도 없어서 우들이 어디서

사진 구해다가 만들어서 (강강술래) 전수회관 놔뒀죠. 양홍도 선생이 이임례 [李任禮, 1941~,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판소리강산제 보유자] 선생의 이모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이임례 선생한테 얘기했거든. “양홍도 씨가 이모 되지라?”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드만.

지금도 나하고, 종심이가 최소심 소리를 해요. 종심이는 친정이 의신 (면) 접도리 [전도군 의신면의 섬 접도에 위치한 마을]인데, 자기 마당에서 강강술래 했대요. 아줌마들이 강강술래 하는 소리를 들었다게. 종숙 [박종숙(朴宗淑), 1954~,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보유자]이는 잘하니까 (두 분) 소리를 넘겨서 하제.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보유자 양홍도

## 진도 민속은 전부 조담환 씨가 한 것이예요

조담환 [曹淡煥, 1934~1996,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보유자] 씨가 진도읍에서 진도문화원 [1959년 설립]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해남군) 우수영 (사람들이) 진도읍 [진도문화회관]으로 전수 받으러 배 타고, 그랑께 박양애 [朴良愛, 1935~2018,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보유자] 씨랑, 길임 [김길임(金吉任), 1927~1999,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보유자] 씨, 동외리서 종심이랑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박양애 씨랑, 길임 씨가 전수생으로 우들보다 한 5년 앞에 갔을 거여. 그레가 우수영 사람들이 그날 바람이 불어서 못 (돌아)가게 되면 담환 씨네 집서 자고 그랬어요.

그랑께 지금 내 생각 같으면 김길임 씨가 (최소심 선생님보다) 앞에 보유자가 되었으니까 [1966년 강강술래 보유자 인정], 진도 (사람들이) 우수영이로 갈 꺼인데, 전부 진도로 댕긴 그것 [이유]을 모르것어요. 어쨌든 우수영 사람들이 진도로 왔어요. 그분들 [김종심 등 동외리 사람들]은 우수영 사람들보다 한 2, 3년 뒤로 들어갔던가 그러고. 다음이로 (1976년에) 우리 최 선생님이 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보유자] 되면서 우리가 (강강술래 전수 활동에) 들어가고.

최 선생님이 문화재가 되니까, 동네 [군내면 둔전리]서 자기 밑에다 전수생을 뒤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조담환 씨가 둔전리를 왔어. (그래서) 그분이 “동네에서 강강술래를 할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랑께 동네서 대회 나갈 때 [1961년 축진회 주최 강강술래 대회] 강강술래를 했던 나를 지명했어요. (그때) 호루라기 불고 나하고 둘이 강강술래를 했던 박윤자라고 (있어요.) 윤자하고는 동서질 되어요. 그리고, 김국자 [金菊子, 1940~,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명예보유자] 씨가 즐거움이 있어서 노래도 잘했

고, 소라도 좋고 했어요. 하여튼 뭣이 오라겠어요. 전수생으로 들오라 하드만. 침에 나는 애기를 키우고 있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안 한다했어. 몇 번 그랬는데, 금성초등학교 운동회날인가 조담환 씨가 오셨드마. 강강술래 소리 해보라고 하드마. 나하고, 국자하고, 윤자하고 서니 3명을 전수생으로 하라고 합디다. 그걸로 최 선생님 밑에 전수생으로 들어갔어.



강강술래 공연 후(좌측부터 김국자, 박용순, 박윤자)

1981년도에 내가 국풍 '81에 간 거 같으께, 1980년도에 전수장학생이  
 로 들어가서 강강술래를 하게 됐어요. (해남군) 우수영에 정순엽 [丁順葉,  
 1943~,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명예보유자]이, (진도) 읍에 종숙이 모두 같은 날  
 [1980년] 전수생이 되었어요. 지금 조교 [현 전승교육사]인 김복자 [1978년 전수  
 장학생 선정], 다 전수생이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진도 민속은 딴 것  
 은 몰라도 다시래기 [진도다시래기, 국가무형문화제], 씻김굿 [진도씻김굿, 국가무형  
 문화제], 들노래 [남도들노래, 국가무형문화제], 강강술래는 전부 조담환 씨가 한  
 것이예요.

## 애타게 가르쳤어요

둔전리 엄마들이 한 40명 넘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강강술래 했어요.  
 그래갖고 회동 행사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같이 갔죠. 시아버지가 완고  
 하고 그랬지만은 애기 아빠는 그런데 가는 걸 그렇게 안 나쁘게 생각하  
 드만. (강강술래) 전수 가는 것은 알죠. 밤에는 애기 봐주고 그러니까.  
 나는 연습하러 가고 그랬어. 공연 같은 거 가면, “나 어디 간다.” 그러면  
 (남편이) “알았다.” 그라고. 나도 백일을 제쳐놓고도 나갔제. 나뿐만 아  
 니라 딴 사람들도 어찌케 됐든 간에 갔어요.

그냥 배웠어요. 강강술래가 얼른 배워잡디다. 시골 사람들잉께, 낮에  
 힘들게 일하고, 밤에 사람들하고 강강술래 함시로 배웠죠. 저녁에 최  
 선생님 집으로 가면 할아버지 [최소심 남편]도 계시고 그랬어요. 놀러 잘  
 댕겼어요. 최 선생님이 방에 앉아서 강강술래 소리 갈치고, 그 집 우게  
 큰 집이 있었는데, 마당이 넓었어. 거기서는 뛰댕기면서 (놀이 동작) 배  
 우고.

그때 우리는 (따로) 박자도 없었어요. 최 선생님 하는 대로 배서 [배워서] 그렇게 해왔어요. (최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따라서 하고, 또 “오키 해라.” 하면 따라서 했지. 처음에 강강술래 하다가 놀이 할라든 딱 세워놓고 가르쳐. 침엔 못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손도) 어깨에 얹어주고 그랬어요. 애타게 가르쳤어. 시골 엄마들이 얼마나 잘하거. 하루 종일 밭에서 밭매고 밤에 와서 하는데요.

<청어엮기>, <고사리끓기> [고사리쪄기], <덕석말기> [덕석물기], <기와밟기>, <꼬리따기> [퀵췌개놀이] 그런 걸 다했어요. 우리 강강술래 할 때 <남생이> [남생아놀아라]도 하잖아요. 안에 들어가 춤추는 거는 최 선생님한테 다 배웠죠. 그때도 선생님이 긴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구분했어요. 최 선생님이 다했어요. 나중에 내가 가사책도 만들었거든요.

## 최 선생님 보유자 지정이 늦게 되었지요

---

나는 문화재가 뭐인지도, 어떤 과정에서 문화재가 됐는가, 그런 것도 몰랐어요. 누가 문화재가 되었다, 그러기만 하지. 나중에 들으니까 (최소심 선생님이) 강강술래 문화재 되었다고 [1976년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보유자 인정] 그러드만. 임동권 [任東權, 1926~2012, 중앙대학교 교수 역임] 박사님한테 내가 그것 [최소심 보유자 인정 과정]을 직접 들었어요.

그때 [1995년] 일본에 공연 [일본 동경국제극장, NHK방송 70주년 행사]을 갔는데, 임동권 박사님도 오셨드만. 우리가 몇 층인가 있었는데, 김길임 씨하고 나하고 둘이 내려갔어요. 거기서 (임 박사님 말씀이) 강강술래를 발굴

할라고 진도를 내려갈라고 했는데, 태풍이 붙어가지고 진도를 못 가고 우수영에서 잤다고 그래요. 내일이라도 바람이 그치면 진도를 갈라고 하는데, 한 3일 계속 파도가 시어서 [겨칠어써] 할 수 없이 우수영에서 (있었대요.)



강강술래 보유자 김길임(우)과 함께

그래서 “내 [임동권]가 그냥 가겠냐, 우수영에 노래 잘하는 사람, 강강술래 잘하는 사람 있으믄 하나 데리고 온나!”, 그러니까 김길임 씨를 데리고 왔드라 그래요. 그 뒤로 진도에 내려가갓고 최소심 씨를 (강강술래 보유자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길임 씨보다 최소심 선생님이 (보유자 지정이) 늦게 되었지요.

그렇게 (최 선생님이 보유자 되고) 좋다 했는데, 아파서 내가 병원 데리고 다니고 (그랬죠.) 또, 자기가 죽으믄 길가에 사람 많이 다니는 데다

가 비 [비석]를 꼭 해야 쓴다고 [세운다]고, 맨날 입에다가 그 말을 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말로 그분 소원이자 싶어서 내가 비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그걸 (최 선생님 소원대로) 사람 많이 땀기는 길가에 못하고 있었어요. 나도 죽기 전에 해야 할 거인데, 둔전리 아리랑 [군내면에서 둔전리로 오는 길 아리랑 홍보탑] 밑에요. (최소심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맨들어다가 마당 가세다가 놔뒀어. 생전 가보도 안 하나까 풀 속에 있는가 몰라. 지금 어찌케 있는고.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보유자  
최소심 공로비

## 옛날에는 전국이로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때 [1981년, 국풍 '81] 동외리, 둔전리, 우수영 세 마을이 같이 갔을 거 같아요. 읍에 사람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국풍 '81 연습은 읍에서 했겠죠. 순전 목포로 해서 밤새 열차 타고 간 거 같아요. 항상 서울 공연을 하게 되면 밤차를 탔어요. 기차가 더 싸고, 버스는 하루 종일 타야 가니까, 잘 안 탄 거 같아요.



1981년 5월 31일 국풍 '81 강강술래 공연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강강술래 공연 중  
배우 박근형과 박용순

그런 때는 돈이 아주 없었어요. 우리 마을, 읍내, 우수영 사람들 몇이 (서울) 가면서 과자라도 사가지고 가라고, 몇 십 원이라도 줬어요. 서울에서 그냥 오기 서운하니까. 그랑께 밤새 차 타고 가갖고 공연하고 또 오고 고생 많이 했죠. (서울에 도착하니까) 아침이겠지요. (국풍 '81 행사 장소가) 여의도 광장일 거예요. 그날 공연하고, 또 밤에 기차 타고 내려와야제.

옛날에는 서울 안 간 데 없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국풍 '81\* 뒤로 지방 발표회를 하든 강원도, 부산, 경상도로 돌아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중앙발표회는 항상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하다가

### 전국 대학생 민속·국학 큰잔치 국풍 '81

1981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여의도 광장 일원에서 개최된 대규모 예술제이다. 전국 194개 대학의 학생들과 전통 민속 및 예능인이 참여하여 전통예술, 연극, 가요, 팔도극, 팔도명물장 등의 공연을 벌였다. 총 659회의 공연이 개최된 행사에는 1,00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다. 표면적으로 '민족문화의 주체성 고취'와 '우리 국학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민족대잔치'를 표방했으나,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주기를 앞둔 시점에서 군사정권에 대한 대학생들의 저항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축제로 알려져 있다.



자료제공: 서울사진아카이브

나중에는 서울놀이마당<sup>6</sup>에서 했어요. 공연 땀길 때는 읍에 사람들하고 같이 (남도) 들노래하고 그랬죠. 또, 영등재 [현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전신, 1978년 시작]가 지금 42회<sup>7</sup> 짝아요. 우리 부락이 1회부터 같이 강강술래 했어요. 그러다 경연대회 같은 거 할 때, <고사리꿇기>, 또 <덕석말기>, <창어엮기>, <기와밟기> 같은 거 했죠. 앞소리를 최 선생님이 했던 거, 김길임 씨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보유자들이 마이크 잡고서 앞소리 메기고, 놀이꾼들은 뛰는 건 대회 나가서나 그렇게 했지. 옛날에 우들은 그렇게 안 했죠. 막 뛰면서 소리 하고 받고 했어요. 그때는 아주 공연을 땀겨도 굉장히 힘들었죠.

## 사할린으로 위문 공연 간다 그래요

90년 쯤가 아무튼 여름이었어요. 내가 모시옷을 입었으니까. 임동권 박사님 하는 말씀이 서울에서 미용사들을 (강강술래를) 가르쳐 갖고 사할린<sup>8</sup>으로 간다고 그래요. 이북에서 온 공연단들하고 같이 공연할 거라고 같이 가자카드만. 내가 그때만 해도 부끄럼도 타고, 아무것도 모르는 촌사람인데, (강강술래 보유자) 후보 [현 전승교육사, 1990년 인정]라는 뭇을 받았으니까 서울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 갖고 종숙이를 데리고 민속촌으로 가서 서울 미용사들한테 강강술래를 가르쳤어요. 사할린으로 (교포 위문공연) 갈라고. 민속촌에

- 
6. 전통 민속예술의 보급 및 전승을 위해 1984년 12월, 서울 송파구 잠실로에 건립된 원형의 노천공연장이다. 매주 토·일요일 무형문화재 위주로 연 120여 회의 공연을 실시한다.
  7. 제42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2020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었으며, 2021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8. 러시아 동부에 있는 주,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한국인과 그 자손이 거주하고 있다.

서 갈치는 것을 한 3일인가 했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정병호 [鄭炳浩, 1927~2011, 중앙대학교 교수 역임] 교수님, 농악에 정인삼 [鄭寅三, 1942~, 경기도 무형문화재 경기고깔소고춤 보유자] 씨랑 알게 되었죠. 정인삼 씨가 이걸 [쟁과리춤] 잘 치드만.



사할린 교포 위문 공연 후 박종숙(우)과 함께



사할린 교포 위문 공연 후  
(좌부터 박종숙, 임동권 교수, 박용순)

남한에서는 누가 갔냐? 그라든 김병천 [金炳千, 1962~,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진도북놀이 보유자] 하고, 돌아가신 분 길선 [김길선, 1933~2015,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진도북놀이 보유자] 씨라고, 그분하고 간 거 같아요. 그래갖고 (러시아) 사할린에 갔어. 2박 3일 (동안) 이북 사람들 하고 공연을 2회가, 3회가 했어요. 함께 (무대하는 건) 안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북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대로 공연했는데,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자기들 식으로 잘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마당을 같이 했어요. 통일하자, 하고 그렇게 한 것이 테레비에 나왔었어요.

## 못하는 사람보고는 못한다고 함께

내가 93년 8월 2일인가 그때 보유자 되었는데, 그쯤 (전라남도) 도민체전 [1993년 전라남도 도민체전 강강술래 공연(목포)]을 했을 겁니다. 그때 박병천 씨한테서 배웠어요. (박병천 씨야) 참 잘하제. 직접 막 시범 보이면서 그러지요. 맨 멋있게 하고, 잘하라고 그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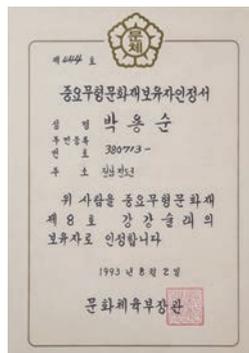
진도 팀만 갔는데, 거의 60명 될 것어요. 옛날에 (진도읍) 전수관 우계공원에서 연습을 했죠. 며칠 했어요. 박 선생님 입이 아주 머시기 해요. 못하는 사람보고는 못한다고 함께. 그라고 강강술래라는 것이 아무리 양춤을 잘 추고, 한춤을 잘 춰도 강강술래는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 보면 이상해.

〈손치기 발치기〉 [강강술래 여흥 놀이 중 하나. 손동작, 발동작하면서 노는 놀이], 〈남생아(놀아라)〉 할 때 둘이 잡고 도는 거이 박병천 씨한테 다 배웠어요. 〈발갈이 가세〉도 “발갈이 가세” 그러면 여그 [허리] 잡고 “이라좌라 쟁기

질” 막 하다 “어딴골 기완가” (하면서) <기와뵈기> 하는 것처럼 들어가  
 갖고 잡고 들고 (그래요.)



1993년 5월 10일  
 도민체전 공연 후 옛 진도군청 앞에서  
 (뒷줄 좌측 여섯 번째 박용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증서

## 강강술래가 채택이 되었어

그때 [1995년] 일본 NHK 방송국에서 진도의 민속을 (방송에) 오라할  
 꺼 한번 시험을 보자 그래서 왔었어요. 남도들노래, 씻김굿, 다시래기,  
 강강술래 이렇게 네 종목을 했는데 강강술래가 채택이 되었어. 그래서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앞소리는 내가 메겼죠. 잘했든 못했든 최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메김소리를 했어요. 뒷소리는 김길임 씨가 하고.

일본 동경 [도쿄, 일본의 수도] 있어볼도 않네, 국제극장 [동경 아사쿠사 소재 공  
 연장으로 추정<sup>9</sup>]에서 공연을 하고 뉴롯데나 호텔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  
 고 만찬회를 하는데, 몇 개국 나라 사람들이 큰 체육관 같은데 모였는

9. 1995년 NHK방송 70주년, 일본 동경국제극장 공연 <民族藝能の祭典- 世界うたとおどりの傳  
 統>(민족예능제전 - 세계 노래와 춤의 전통)에서 강강술래를 선보였다.

데 발도 못 딛게 모였어. 아주 돌아설 수도 없어. 코도 크고, 머리도 노랗고 아무튼 여러 나라 사람이 왔었어요. 념의 나라 사람들, 키가 크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강강술래 한 다음에 걸어다님시로 강강술래 하더라고요.

보니까 쥔 침에 자기 나라 소개 하드만. 나도 (소개를) 해야 되었는데 침에는 많이 떨었어요. 내가 어찌케 찌그서 말을 하까, 엄청 떨었거든요. 음식도 입에 안 맞드라고요. 간장에다가 찍어서 밥을 먹었어. 진짜 꽃게 같은 걸 삶아서 놓고, 너무 맛있는 음식을 념들은 좋아서 먹는데도 나는 한나를 못 먹었어. 그래도 (나가서) 말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시원한 것을. 그동안 내가 누구보고도 참말로 속에 이 말 안 했네.

2000년도가 되니까 문화재가 네 분 [박양애, 김종심, 박종숙, 차영순이 강강술래 보유자로 인정됨]이 생겼어. 내가 후보됨시로부터는 2014년까지는 내가 계속 앞소리는 했어요. 그 뒤로 내가 좀 하다가 젊은 사람들한테로 넘겼지. 힘드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하고 그렇께.



일본에서 열린 민족예능제전 공연 기념 사진  
(우측 두 번째 박용순)



박종숙(좌)과 박용순

# 9

## 이것이 내가 하던 강강술래예요

- 강강술래 연행 순서와 놀이 방법
- 긴강강술래는 다 같이 해요
- 중강강은 발 뒤편으로 걸어가서 멋있어
- 뒤편 때는 자진강강, 메길 때는 중강강
- 평상에 아주 짧은 것만 해야제
- 전통으로 하는 건 최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는 강강술래는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가무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놀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전라도 도서 해안부터 내륙에 이르기까지 모든 마을에서 강강술래를 연행했으며, 원형가무 놀이라는 형식은 동일하지만 악곡, 춤사위, 놀이 구성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강강술래는 노래의 매 소절마다 ‘강강술래’라는 받는소리가 붙는다. 이 역시 지역에 따라 ‘광광술래’, ‘강강수월래’, ‘우광광광수월래’ 등으로 다양하며, 원무를 돌 때 발을 높이 뛰거나 낮게 뛰고, 잡은 손을 흔들 때 높낮이를 달리하여 이웃하는 마을과 차별화된 강강술래를 구성했다.

## 강강술래 연행 순서와 놀이 방법

### 1. 강강술래

#### 1) <긴강강술래>

목청이 좋은 사람이 느릿한 진양조<sup>10</sup>로 설소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강강술래’라는 소리로 받으면서 발길을 사뿐히 옮긴다. 술래가 시작됨을 알리는 소리인 동시에 술래 판에 모이기를 청하는 소리다.



#### 2) <중강강술래>

장단이 굿거리<sup>11</sup> 또는 느린 중중모리<sup>12</sup>로 바뀐다. 긴강강술래보다 손을 더욱 울동적으로 흔들며 춘다. 대개 “딸아딸아 막내딸아”라는 가사를 신호로 보통 걸음걸이인 굿거리로 전환한다.



10. 판소리·산조 등에 쓰이는 느린 장단이다. 보통 4분의 24박을 한 장단으로 꼽는다.
11. 12박이 한 구(句)를 이룬 흥겨운 장단으로 한국 음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12. 판소리에 사용되는 장단의 하나로 연주 속도에 따라 느린 중중모리, 중중모리, 자진 중중모리로 구분된다. 느린 중중모리는 8분의 12박자인 중중모리보다 조금 느리게 표현한다.

### 3) <자진강강술래>

중강강술래를 하며 천천히 등글게 돌다가 앞소리 하는 사람이 “뛰어보세 뛰어보세”라고 메김소리를 바꾸면 이것을 신호로 자진강강술래로 들어가게 된다. 장단은 자진모리<sup>13</sup>로 바뀐다.



## 2. 술래놀이

### 1) <남생아놀아라>

자진모리 가락으로 남생이의 몸짓을 흉내 낸 모의무이다. <남생아놀아라>를 부르며 놀이꾼 중 두세 명이 원 속으로 뛰어들어 “출래출래가 잘 논다”를 부르면서 곱사춤, 궁둥이춤, 막춤 등 갖가지 개인 춤을 춘다.



13. ‘찾게 몰아 간다’는 뜻으로 빠른 장단에 해당한다. 조금 빠른 속도의 4박자 장단이다.

## 2) <청어엮기>, <청어풀기>

서해에서 많이 잡히는 청어를 엮는 어로노동의 모의회이다. 자진모리 또는 빠른 중중모리<sup>14</sup>로 부른다. 선두가 둘째 사람과 셋째 사람의 맞잡은 팔 밑으로 꿰어가는데, 오른손은 왼쪽 어깨 위에 감기게 되어 마치 청어를 엮은 모양과 흡사하게 된다. <청어엮기>가 끝나면 엮을 때와 반대 방향으로 꿰어 원대형으로 돌아간다.



14. 중모리장단보다 조금 빠른 장단으로 3분박의 12박자로 구성된 장단이다.

### 3) <고사리꺾기>

산에서 풀어앉아 고사리를 꺾는 모습을 흉내낸 놀이로 자진모리 또는 빠른 중중모리로 부른다. 설소리꾼이 “고사리 대사리 꺾짜 나무 대사리 꺾짜”를 부르면 “유자콩콩 재미나 넘자 아장 장장 벌이어”를 후렴구로 받으며 원무 형태로 앉아 어깨만 들썩인다. 선두가 일어나 왼쪽 사람과 잡은 손 위를 넘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차례로 한 사람씩 계속 넘어간다.



### 4) <덕석물기>, <덕석풀기>

“물자물자 덕석물자”라는 노래를 시작하면 선두가 왼쪽으로 원을 그리고 돌면서 중심을 잡아간다. 덕석이 다 말아지면 설소리꾼이 “풀자풀자 덕석풀자” 노래를 시작하고 이것을 신호로 대형을 풀어나간다.



### 5) <지와밧기> [기와밧기]

지와는 기와의 전라도 방언으로, 기와밧기, 지와밧기, 기와밧자 등으로도 부르며, 기와 지붕을 밟아가는 것을 흉내 낸 놀이이다. “어딧골 지완가, 장자골 지와세” 라는 노래를 신호로 기와밧기 대형으로 늘어선다. 모든 놀이꾼들이 허리를 굽혀 앞사람을 껴안으면 그 위로 한 사람이 올라가 밟고 지나가며 양편에 보조자가 따라간다.



### 6) <문열기>

두 사람이 양팔을 마주 뻗쳐 잡아 문을 만들고 그 밑을 다른 놀이꾼들이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한 줄이 되어 통과하는 놀이이다.



### 7) <권취새끼놀이>

맨 앞 사람이 다른 편 줄의 맨 뒤꼬리를 잡으면 이기게 되는 놀이다. 진 편 사람들이 이긴 편을 업어 주면서 “잡았네 잡았네, 권취새끼를 잡았네”라고 노래한다.



### 3. 강강술래 순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이전의 강강술래는 고정된 사설 없이 놀이를 하며 부를 수 있는 노래면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강강술래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공연예술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일종의 정해진 순서가 통용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자진강강술래로 입장 → 긴강강술래로 인사 → 긴강강술래 → 중강강술래 → 자진강강술래 → 남생아놀아라 → 청어여기 → 청어플기 → 고사리꺾기 → 덕석물기 → 덕석플기 → 기와밧기 → 문열기 → 권취새끼놀이 → 긴강강술래로 인사 → 자진 술래소리 → 퇴장



## 긴강강술래는 다 같이 해요

긴강강술래는 지금 될 수 있으면 6박에 맞춰서 할라고 노력하는데, 소리 나가는 대로 발을 맞췄어요. 최소심 선생님한테 배웠지요. (첫소리) ‘강’에다 왼발 놓고, (두 번째) ‘강’에 오른발 놓고, 또 ‘-앙’에다 왼발 놓고, ‘술’에다 오른발 놓고, ‘수울-’에다 왼발 놓고, ‘래’에다 오른발 놓으면 맞아요. 또, 긴강강술래 할 때 항상 앞에 세 번째 사람 발뒤꿈치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 키가 적건, 크건 고개가 다 똑같아요. 최소심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돌 때는) 올로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렇게 돌아야 맞드라고요. 손동작은 오른손이 앞으로 가고 왼손이 뒤에 (옆 사람과 손을) 요렇게 잡죠.

긴강강술래는 다 같이 해요. “달 떠온다 달 떠온다, 동해동천 달 떠온다, 저 달이 뉘달인가, 방호방네 달이라네” 지금 하는 (사설이) 그것이에요. 요즘에 긴강강술래는 딴 거 안 하고 이것 갖고 다해요. 양홍도 씨 판 [테이프]을 광주 지춘상 [池春相, 1931~2009, 전남대학교 교수 역임] 씨한테서 가져 왔었어요. (거기서) 양홍도씨도 긴강강(술래) 할 때 ‘달 떠온다’ 하더라고요. (가락은) “달 떠나오온다” 그렇게 했어요. ‘방호방’은 내 생각에 남아 이름이에요. “방호방은 어디 가고, 저 달 뜯 줄 모르는가” 그렇께.

달떠온다	달떠온다	강강술래
동해동천	달떠온다	강강술래
저 달이	뉘달인가	강강술래
방호방네	달이라네	강강술래
방호방은	어디가고	강강술래
저달뜯줄	모르는가	강강술래



그런데 그 전에 “오동추야 달은 밝고” (이 사설은) 안 했어요. 여근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인사하는 대목하고, 강강술래 들어가는 대  
 목에서 ‘오동추야’를 넣어요. 말하자면 암호야. 이것을 해야, 인사를 해  
 요. 끝판에도 인사하라고 ‘오동추야’를 넣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잘 알  
 아먹지. 뭣을 하던지 “오동추야 달은 밝고, 임의 생각 절로 난다”가 들  
 어가면 ‘아, 인자 이거 인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초가삼간	집을짓고	강강술래
양친보무	모셔다가	강강술래
천년만년	살고지고	강강술래
천년만년	살고지고	강강술래
오동추야	달은밝고	강강술래
임의생각	절로난다	강강술래



## 중강강은 발 땀시로 걸어가는 것이 멋있어

중강강은 그래도 멋있어요. 날짜, 날짜 미기면서 발 땀시로 걸어가는 것이 멋있어. “천냥 짜리 처녀 두고, 만리 담장 뛰어넘다, 곤때 묻은 자주 조끼, 치달분을 찌졌다네, 우리 집에 드러가서, 우리 엄매 물어보면, 뭇이라고 대답할까” 여서 ‘곤때 묻은’ 조끼는 ‘때가 쪼끔 묻은 조끼’예요. “치달분을 찌졌다네” 이것은 한 치 [한 자의 10분의 1, 약 3.03cm] 반을 찌졌다고. 그래서 (총각이) “우리 엄매 물어보면, 뭇이라고 대답할까” 총각 엄매가 (자기한테) 물어보면 뭇이라고 대답하리, 그라 하니까. 처녀가 “뫼동산 유자나무 유자를 따러 올라가다 찌졌다.” (총각 엄매한테 그렇게) 말하리, 그 말이여. “그리해도 안 들결랑, 이네방에 들쳐노면, 청사양사 홍사실로, 흙짐 없이 감취중세” 처녀가 (찢어진 옷을) 아무 태없이 만 들어 준다, 바느질로 지워준다, 그 말이에요. 이 가사가 향동에서 큰애기 때 불렀던 노래예요. 무슨 뜻인지 알고 했던가, 못했던가. 그때는 그냥 무조건 했으께.

천냥짜리	처녀두고	강강술래
만리담장	뛰어넘다	강강술래
곤때묻은	자주조끼	강강술래
치달분을	찌졌다네	강강술래
우리집에	드러가서	강강술래
우리엄매	물어보면	강강술래
모시라고	대답할까	강강술래
뫼동산	유자나무	강강술래
유자따러	올라가다	강강술래
찌졌다고	일려주게	강강술래
그리해도	안들결랑	강강술래
이네방에	들쳐노면	강강술래
청사양사	홍사실로	강강술래

흠집없이	감쳐줍세	강강술래
오동추야	달은밝고	강강술래
임의생각	질로난다	강강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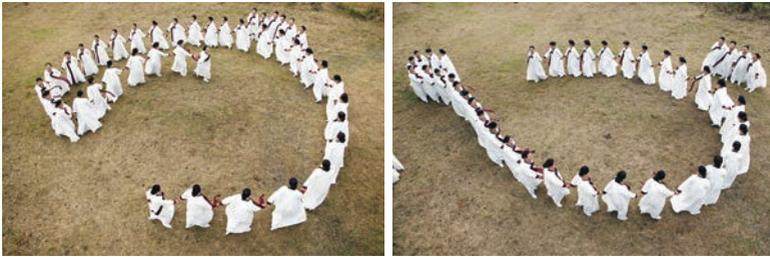
“우리 아배 노리개는, 진 담붓대가 노리개요, 우리 엄매 노리개는, 막내 딸이 노리개요, 우리 오빠 노리개는, 책가오가 노리개요, 우리 형님 노리개는, 바늘 골무가 노리개요, 이내나야 노리개는, 연지분통이 노리겠 세” 그런 거도 한 거 같어요. 이것은 좀 길게 할려고 이렇게 해요. 어느 대목에든 한 번씩 뛰는 대목에서 넣어요. “우리 아배 노리개는” (이거 는) 양홍도 씨 사설이에요. 양홍도 씨 책에 적어졌더라고요. 내가 그것 을 봤어요.

내가 여그서는 이런 가사를 넣어봤어. 이게 (길이가) 긴께. “딸아딸아 막내딸아” 그런 거나, “하늘에다 베틀놓고” 그런 짧은 것을 해갖고 다 같이 하제. “딸아딸아 막내딸아, 밥만 먹고 곱게 커라, 오동나무 밀장농 에” (밀장농은) 이케 미는 장룽. “기와 장식 걸어지면” 말하자면 농에다 가 기와 장식 [목가구 등에 개폐용으로 부착하는 금속] 걸어주마. “시들시들 봄배 추는, 봄비 오기만 기다리고, 옥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 린다”

“당글당글 당글 부채, 은도 당글 납도 부채, 스무냥 주고 사신 부채, 그야 부채 누가 주던, 서당 선부 [서당선비]가 주십디다, 오뉴월이 둘이래도, 못 다 부칠 내정이야, 오뉴월이 둘이 가도, 못 다 부친다 안 했소, 하늘에다 베틀 놓고, 구름을 잡아서 잉에 걸고, 참나무에 보두집 [바더집]에, 응그랑 짱그랑 짜는 소리, 언제 다 짜고 친정에 갈까” 그답에 강강술래 하고 끝나요. 다 우리가 서이 너이 [3~4명] 하는 강강술래여. 평상에 아주 짧은 것만 해야 하제. 긴 것 하고 있으면 안 들을락 해.

## 뿔 때는 자진강강, 메길 때는 중강강

내가 경연대회 할 때 [1961년 축진회 주최 군내면 강강술래] 조통준 씨가 사설을 만들었어요. 그때 강강술래를 할 때는 긴강강은 없었고 중강강, 자진강강만 있었어요. 뿔 때는 자진강강으로 뛰고, 메길 때는 걸으면서 중강강으로 하고 그래왔죠. (그때 강강술래) 도본에는 25개로 돼 있어요.



“지금부터 사백 년 전, 이조 장군 이순신은” 거기가 통준 씨가 알려준 가사예요. 이거는 중강강 할 때 했어요. “명랑대첩 대승했다” 요런 데서는 자진강강으로 뿔던가 봐요. 강강술래는 중강강하면 중강강에 붙이고, 자진강강은 자진강강에 붙이고 그래. 술래 소리 끝판에 휘모

리<sup>15</sup>로 “술래면 술래.” 그렇게 하제.

“정유난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옥중에서 풀려나와” 여기는 (기억에) “(정유난이 일어나자) 옥중에서 다시 나와”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사백 년 전, 이조 장군 이순신은, 전라도라 좌수사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라 위해 민족 위해 옥중에서 다시 나와, 열두 척 남은 배로, 삼백 척 왜놈 배를, 여지없이 물리치니, 승리로다 승리로다, 이순신이 승리로다, 장하도다 장하도다, 이순신 장군 장하도다” 내가 그렇게 했던 말이에요. 그 뒤로 하면서 여까진 [2월] 까지 다 안 하고 강강술래를 해왔어요. 현재 강강술래 할 때 “30분해라, 20분해라.” 하면 긴소리를 넣을 수가 없어. 그렇게 짹짹만 넣어서 했었지. 길게 하고 있으면 하는 사람도 지루하고, 듣는 사람도 지루하고 그렇게.

(이것도) 중강강했다가, 자진강강하다 쉬여 있어요. 그렇게 중강강 때 걸어다니고 자진강강은 뛰어보소, 해갓고 뛰고 그라지. 중강강 할 때 발 동작도 왼발부터 나갔어요. 그담에 오른발 그랬어요. 긴강강이든, 중강강이든 다 왼발부터 나가요. 항상 긴강강술래도 ‘강’하면 왼발은 발뒤축을 놓고 오른발은 발꾸락을 들어서 끄셔야 돼요. 그러면 몸이 (원 안으로) 드러 갔다 (원 밖으로) 이케 갔다가 해서 긴강강술래가 좀 멋있죠. 그런데 지금은 강강술래하면 갖다 그냥 발을 바로 붙여. ‘강’ 들어가면 이 발 [오른발]은 갖다가 바로 붙이고 그렇게 해서 먼저 전수할 때 내가 말 했어요. (오른발) 끄는 것 좀 하자고 (그랬죠.)

---

15. 판소리 장단 중에서 제일 빠른 장단으로, 2소박 4박자가 한 장단이 된다.

### 강강술래 가사 (사설: 조룡준)

(1)	(2)	(3)
지금부터 사백년전	정유난이 일어나자	일본군의 서해통과
이조장군 이순신은	옥중에서 풀려나와	일대전략 분쇄하고
전라도 좌수사로	일편단심 나라사랑	명량대첩 대승했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열두척의 작은배로	철천지 원수일본
우수한 거북선과	진도바다 울돌목에	전원원홍 풍신수길
신묘한 전술로서	물길따라 진을치고	천벌받아 급사하여
넓고넓은 남해바다	녹진과 우수영의	도망가는 일본수군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바다속에 쇠줄치고	끝까지 추격하여
수백척의 일본배를	남너노소 할것없이	노랑진 앞바다에
오는데로 쳐부수어	연자방아 돌려대고	길을막고 싸우다가
수천명의 왜놈들을	군내면의 금골산을	불행하게 유탄맞아
고기밥이 되게하고	녹적봉으로 위장하고	장렬하게 전사하여
싸움마다 대승하여	부녀자들 강강술래	임진왜란 칠년전쟁
이십오전 전승하고	우렁차게 소리내어	원통하게 끝났지만
선조임금 이십오년	군사훈련 위장하여	사백년의 세월에도
삼도수군 통제사로	뛰어난 전술로서	충무공 이순신은
대승전 하였으나	삼백척 왜놈배를	대한민국 해전사에
우수사 원균장군	용감하게 쳐부수고	빛나도다 빛나도다
시기와 모함으로	수천명의 일본수군	찬란하게 빛나도다
가진고초 당하면서	구비치는 물속으로	영원하게 빛나도다
억울하게 옥살이하다	통쾌하게 처박고서	

### 평상에 아주 짧은 것만 해야제

“새벽 서리 찬바람에” 이것도 딴 사람은 틀리게 [다르게] 하디만. 나도 옛날에 한 것이라 지금 하는 사람들하고 뒤애가 좀 틀려. (예전에는) “울고 가는 저 기러가, 울었으면 너울었제, 잠든 나를 깨고가냐, 문을 열고 나와 보니, 기러기는 간 곳 없고, 억만 강의 구름 속에, 달과 별이 열려

있네, 편지 한 장 보냈으면, 우리 부모 보련만은, 요네나는 언제 가서, 우리 부모 만나볼까” 그렇게 써졌어. ‘억만 강의 구름 속에’란 것이 말하자면, 달과 별이 안 보이니까 구름이 많다는 소리겠지요. 나는 요렇게만 했어요.

지금은 어찌케 하나며는, “새벽 서리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러기, 울었으면 너울었지, 잠든 나를 깨고 가냐” (라고 하고) 그다음에 “편지상 통 기러기는, 편지 한 장 전해주고, 문을 열고 나와 보니, 기러기는 간 곳 없고, 억만 강 구름 속에, 달과 별이 열려있네” 그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새벽서리	찬바람에	강강술래
울고가는	저기러기	강강술래
울어쓰면	너울었제	강강술래
잠든나를	깨고가나	강강술래
문을열고	나와보니	강강술래
기러기는	간곳없고	강강술래
억만강의	구름속에	강강술래
달과별이	열려있네	강강술래
편지한장	보내쓰면	강강술래
우리부모	보련만은	강강술래
요네나는	언제가서	강강술래
우리부모	만나볼까	강강술래
뛰어보세	뛰어보세	강강술래
옥신옥신	뛰어나보세	강강술래
높은마당이	알아지고	강강술래
야찬마당	짚어지계	강강술래
옥신옥신	뛰어보세	강강술래
어깨는 충청	다리는 뜰벽	강강술래
날리날짱	풀라서서	강강술래
먼데사람	듣기좋고	강강술래

저태사람	보기 좋게	강강술래
옥신옥신	뛰어나보세	강강술래
유월유두	칠월백중	강강술래
팔월추석이	다 넘어간다	강강술래

(그다음에) “높은 마당이 얇아지고, 얇찬 마당이 깊어나지게, 옥신옥신 뛰어나보세” 이거는 힘차게 뛰면 ‘높은 마당이 얇아지고, 얇은 마당이 깊어나지게’ 그 말이에요. 지금은 또 어찌케 하나 하면, “높은 마당이 얇차지고, 얇은 마당이 높아지게” 그럽디다. 그라고 “어깨는 충청 다리는 뜰떡” (이 부분은) 어깨는 충청[툼썩]거리고 다리는 뛰어오른다, 그 소리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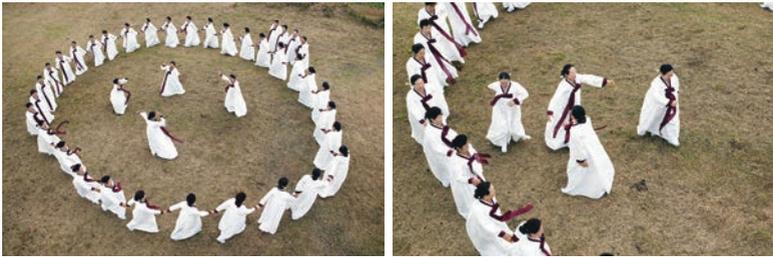
“날리날짱 골라 서서”는 이렇게 어깨를 좁혀갖고 있다가 ‘날리날짱’ (하면) 팔을 길게 딱 펴갖고 ‘골라 서서’ (그러니까) ‘올라서서’ 옥신옥신 잘 뛰어나보자, 하는 소리여. 뭇라면 (팔을) 벌리고 뛰야제. 뭇돌거리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벌리고 잘 뛰자. “저태 사람 보기 좋게”, ‘절에 [절에] 사람 보기 좋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유월유두 칠월백중, 팔월추석이 다 넘어간다” 그 전에 그랬어요. 6월 유두 [음력 6월 15일,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 넘어가고, 7월 백중 넘어가고, 8월에 강강술래 하다보면 추석이 다 넘어간다, ‘열심히 하자’ 그 소리지. 이것도 향동에서 많이 했어요. 지금도 비슷해요. 안 넣는 가사가 많이 있는데, “유월유두 칠월백중, 팔월추석이 다 넘어간다”는 꼭 넣어요.

## 전통으로 하는 건 최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 〈남생아놀아라〉

최소심 선생님한테 〈남생아놀아라〉를 배웠어요. 최 선생님이 그런 설명을 안 해줘서 남생이가 어쩐지 몰랐는데, 박 선생 [박병천]이 원래 곡우 [음력 3월 중순경,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 때 남생이가 놀았다 그래요. 최소심 선생 〈남생아놀아라〉하는 사설은 “남생아 놀아라, 출래출래가 잘 논다” 그케만 했어요. 그리고 (원) 안에 들어가서 춤추는 것이었제. 그 뒤로 “어아새기 [어화새이] 저새기 [저새이] 고구 [곡우] 남생아 놀아라” 그 소리를 했어.



그때 춤을 그렇게 보기 싫게 찻다고 그러디다. 아주 흥했다, 그래요. 고개를 딱 박아갖고 어깨를 딱 꼬고 어쓰케 해갖고는 찻다 해요. 남생이가 생긴 것도 모양도 안 좋은 데다가 놀기를 묘하게 놀았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고 비유해서 춤을 했다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공연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원) 안에 들어가서 춤도 멋있게 추고 그랬제. 사람들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맨 이쁘게 할랑께.

(박병천 선생은) “남생아 놀아라, 남생아 놀아라” 그것을 돌이씩 그러면, “출래출래가 잘 논다” 할 때 손 딱 놓고 돌이 손을 잡고 돌아요. “어아새

기 저새기, 곡우 남생이 놀아라” 그러면 익사적사[어쨌든] 앉아서 남생이 노래도 배우고, 손치기 발치기도 배우고, <발같이 가세> 하고 그랬어요. “함박쫄박 시집가, 중간애기 나도가, 어린것이 어찌케, 데굴데굴 굴러가” 그라고 손치기 하고, (발치기도 하고.) 손치기도 원래 침에는 그렇게 배웠어요. 침에 배울 때는, “어덧골 기완가, 장자골 기와세” 그러고 선두가 한 줄로 앞에 쪽 들어가면서 ‘을 [ㄷ]자’ 지꾸자꾸로 [저그제그로] 사이사이 서갔고 “손치기 하세” 하면 뒤에 사람이 앞으로 들어가고 앞에 사람이 뒤로 나오고 해서 손치기를 배웠어요. 그다음에 <발같이 가세> 하고, <손치기 발치기> 하고, <남생이 놀이> [남생아놀아라] 하고. 이게 박병천 선생한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들이 할 때는 여러 사람이 못해갖고 그냥 동그랗게 돌아서서 손치기 하고 그래요. <기와뺨기> 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 〈청어엮기〉

지금 우리 전통으로 하는 건 최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청어엮자> [청어엮기]는 지금까지 똑같애. 옛날에는 위도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섬] 하고, 군산에 청어가 많이 났다고 합디다. 그래서 (사설에) ‘이도 군산’ 이라고 했다, 그래요. <청어엮기> (놀이 할 때는) 한 줄로 길게 해서 내 왼손이 내 (오른쪽) 어깨를 (잡고) 내 오른손이 앞사람에 (어깨를) 이렇게 잡고, 뒤에서부터 엮고, 풀 때는 앞에서부터 풀고 아주 착실하니 했어요. 아무래도 놀이가 많이 있었던가 봐요. 참, 옛날 사람들이 똑똑했던 것이여.

그전에 <청어엮기>는 (사람) 수가 적을 때는, 앞에서 한나 엮고, 또 돌아가서 뒤에 붙어갖고 했어. 길게 그냥 엮으는 거여. 그런데, 박(병천)

선생님은 <청어엮기>를 원을 만들어갖고 뛰어요. 30명 하면 열썩 [10명씩] 둥그라미를 만들어가지고 돌다가, 청어 풀자고 하면 그대로 풀어서 원이 또 되어. 그래가지고 “뛰어보소, 뛰어보소” 하면 강강술래 하면서 뛰어. 계속 신나게 뛰다가 다시 합쳐지죠. 원이로 되죠.

최 선생님 것은 그냥 지드러니 한 줄로 길게 엮어요. 원을 안 만들고 30명이면, 3개로 쪼르라니 엮어갖고 돌다가 풀어요. 그렇게 하기가 더 수월하지. 덜 뻘치지요. 박 선생님 <청어엮기>는 풀어갖고 많이 뛰는데, 최 선생님 <청어엮기>는 안 뛰고 한 원이로 뛰니까. 책에 나온 그대로 엮어 갖고 도는 것은 최 선생님이 하는 것이여.

선)청청 청어엮자  
선)청청 청어풀자



후)이도군산 청어엮자  
후)이도군산 청어풀자



청어엮기



청어풀기

## 〈고사리꺾기〉

〈고사리꺾기〉는 가사를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왜 그라냐 그라면, 지리산도 들먹이고, 한라산도 들먹이고 여러 산을 들먹이며 할 수 있거든요. 아무 산이나 붙여갖고 고사리를 꺾다가 [꺾어다끼] 아부지 반찬 하든지, 엄마 반찬 하든지. 길게 할라믄 (가사를) 붙여서 하고, 짧게 할라믄 (짧게)하고 그래요. 만든 사람이 잘 만들어 놔어.

내가 몇 개 적어논 거는 “고사리 대사리 꺾자, 나무 대사리 꺾자, 고사리 꺾어 바구리에 담고, 아산이나 넘자” 아무래도 대사리라는 것은, 내 생각엔 사침대라는 것이 있거든요. 고사리같이 생겨갖고 키도 크고 더 굵어요. 나물해서 먹어요. 우리 고사리 끊으러 가서 그거 있으면 같이 끊거든요. “나무 대사리 꺾자” (하는 거 보면) 그것이 나무니까. 고사리가 마르면 나무잖아요. ‘대사리’도 그것이 아닌가. 또, 고사리 대사랑게 바구리 소리가 그랬으께. 지금은 차대기 [차뽀]를 가지고 가잖아요. 내 생각이 그래제.

“꼬사리 대사리 꺾자, 나무 대사리 꺾자, 유자뽀뽀 재미나 난다, 아장장장 벌이여”하면 딱 앓아요. ‘아장장장 벌이여’는 앓는단 것이지. 고사리가 많이 있음께 재미난게 앓았는가. “고사리 꺾기 바구니 담고, 아산이나 넘자”에서 ‘아산’은 앞산인 거이지요.

〈고사리꺾기 [꺾기]〉는 이제 마음대로 해요. 꺾는 것도 우리가 하나를 꺾든지, 둘 꺾든지 정해갖고 (해요.) 침에 열 사람 손 잡고 앓아 있죠. 그라고 선두가 돌면서 ‘고사리’ 말하면, ‘꺾는다’고 매김소리는 아무케나 해요. 〈고사리꺾기〉, 〈남생아놀아라〉 같은 건 최 여사님 [최소심]이 갈쳐서 했는데, 사설을 외아갖고 할 줄만 알았제.

꼬사리 대사리 경자 나무대사리 경자  
유자뽕뽕 재미나 난다 아장장장 벌이여

선) 경자 경자 꼬사리 대사리 경자  
지리산 꼬사리 쟁겨다가  
우리아배 반찬하세  
경자경자 꼬사리 대사리 경자  
한라산 꼬사리 쟁겨다가  
우리엄매 반찬하세  
꼬사리 대사리 경자 나무대사리 경자  
꼬사리 쟁겨 바구니에 담고 아산나 넘자

후)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 〈덕석물기〉

선)물자물자 덕석물자  
선)비야비야 오지마라  
선)풀자풀자 덕석풀자

후)비온다 덕석물자  
후)딸밭에 장구친다  
후)벨난다 덕석물자



덕석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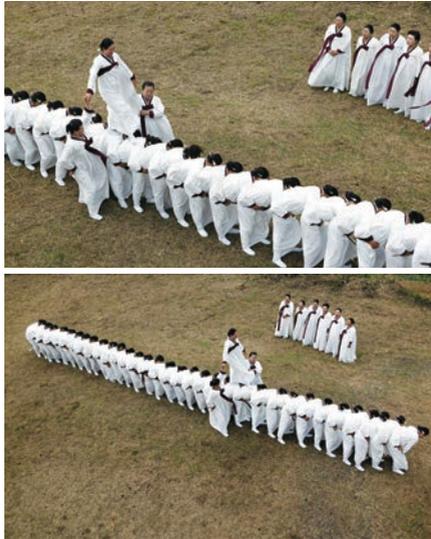
덕석풀기

“물자 물자 덕석 물자, 비 온다 덕석 물자, 비야 비야 오지 마라, 딸 밭에 장구 친다” ‘딸 밭’은 먹는 딸기밭이에요. 그렇께 큰비가 오면 딸이 좋겠어요? 이제 큰비가 딸기한테 떨어지면, ‘장구 친다’ 구멍이 생긴다, 그말이여. 팡팡 때렁께. (비가) 때리는 소리가 장구 치는 소리 같다.

“풀자 풀자 덕석 풀자, 벨 난다 덕석 풀자” (덕석을) 풀면 벌이 나니까 널자, 그러제. “체자 체자 덕석 체자”도 있어요. ‘곡식을 안으로 모태자’는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공연할 때 한 번 한 거 같애요. 뽕 돌려서 이케이케 [덕석물이 하듯이] 함시로. 놀이하는 방법도 푸는 것도 지금 하고 똑같아요.

## 〈기와밟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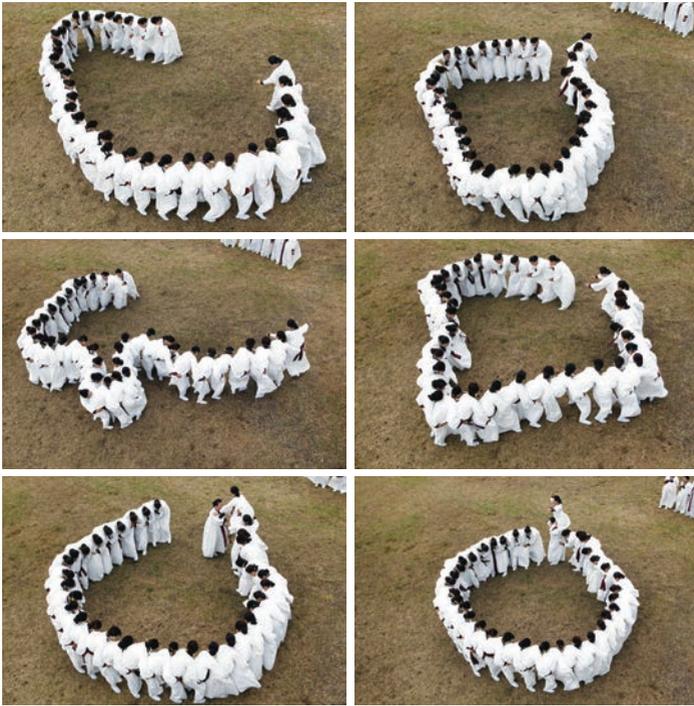
선) 어덧골 기와가	후) 장자골 기와세
몇단냥 쳄는가	스물단냥 쳄네
어덧골 기와가	전라도 기와세
몇단냥 쳄는가	스물단냥 쳄네
어덧골 기와가	장자 장자골 기와세



〈기와밟기〉 사설도 최 선생님 께예요. “어덧골 기와네, 장자골 기와네, 어덧골 기와네, 전라도 기와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진도서 할라면, “옥주골 [옥주골, 진도의 별칭] 기와세” 그래. 다 지어갖고 해요. (기와밟을) “몇 단냥 쳄는가” (그러면) “스물 단냥 [스물 닷번] 쳄네” 했어요. “장자 장자골” 그것은 자진모리로 빨리 붙여야 돼요. (〈기와밟기〉 할 때) 목마를 하는데, 크고 힘 썩 사람 앞에 세우고, 위에서 타고 지나가는 사람 주로 가벼운 사람이 타요.

## 〈문쥐새끼놀이〉

선후) 잡았네 잡았네 문쥐새끼를 잡았네  
 콩한나 풀한나 떤졌던이 콩차두 풀차두 되었네  
 콩콩 전라도 문쥐새끼를 잡았네  
 콩한나 풀한나 떤졌던이 오곡백곡이 절씨구



〈문쥐새끼놀이〉[〈원쥐새끼놀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들은, 진도 말로 ‘문쥐새끼’라 했는데 책에는 ‘원쥐새끼’라 나왔더라고요. 밭에 사는 쥐가 있어요. (그 쥐가) 어떤 놈은 좀 하얀색도 나고, 회색도 나고, 좀 작은, 밭에 사는 들쥐여. 여하튼 고구마 같은 거 캐 때 보면은 속에 살다

가 새끼를 달고 줄, 줄, 줄, 줄 내뺌 [도망가]. 내뺌은 것을 보면은 진짜 웃겨요.

그래가 쥐새끼들 몇이서 내뺌고 달려 숨으라고 (하잖아요.) 가사에 “문쥐새끼 짙짙짙” 있잖아요. 문쥐새끼가 (새끼들을) 달고 막 짙래짙래 가잖아요. 내뺌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소리가 <문쥐새끼>여. (그래서) 우들이가 꼭 쥐처럼 행동했어요. ‘가사리 벗’이 옆에도 많이 있는가 보제. 아따 문쥐새끼들이 (자기 새끼들을) 달고 가다 (다른 쥐를) 같이 만나갖고 가는 뺨인가 [행동을 표현한 견지도] 몰라요. 밭에서 그런 거 흔히 보거든요. 하나둘도 아니여. 보면 아주 웃겨. 그래서 때려서 죽이도 못하고 보고만 있제.

(그답에) “콩 하나 팔 하나 땡졌더니” 우리 말로 ‘던졌더니’ 안 했어요. ‘땡졌더니’ 그랬어요. 밭에다 콩 하나, 팔 하나를 심었는데, (그걸) 문쥐가 다 주서 먹고 배가 콩차두, 팔차두처럼 불렀다. 문쥐가 먹고 배가 부르니까. “콩콩 전라도 문쥐새끼를 잡었네, 콩 하나 팔 하나 던졌더니, 오 곡백곡이 절씨구” 곡식 많은 것을 먹었으께 (문쥐새끼가) ‘절씨구’ 했는가 보제. 너무 좋다는 뜻이지.

(<문쥐새끼놀이> 할 때는) 을로 [오른쪽으로] 돌아갖고 이렇게 잡지. 그라고 (사람이) 많이 할 때는 선두를 둘을 만들어. 외로 [왼쪽으로] 돌고, 을로 딱 돌아갖고 마치지. (사람이) 적게 할 때는 혼자 가고. <문쥐새끼(놀이)>하고, <꼬리따기>는 아까마이로 [아까처럼]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 딱 잡으면서 “꼬리따세” 그라면 왼쪽이로 돌아갖고 오른쪽으로 잡는 것이 <꼬리따기>죠. 그래갖고는 중강강을 해요.

높고 높다고 상골산	술래
길고길다고 회원뜰	술래
펼 펼 꿇는다 울 들목	술래
놀이 좋다고 선황당	
가지 많고 키 큰 나무	
바람 잘 새 없다 든이	
우리엄매 무슨 죄로	
딸자식을 많이 나서	
골골마디 여워 놓고	
근심 겹날 전혀 없네	
우리 동네 상부자 집	
도둑이 들까 수심이요	

그래갓고 인사 다음에는 자진강강이로 <술래소리>가 마지막에 나와요. “높고 높다고 상골산 [진도군 군내면에 있는 금골산의 다른 이름] 술래, 길고 길다고 회원뜰 술래”, ‘회원뜰’은 여기 밑에 뜰 막은 데 [둔전방조제]를 말하는 것인데, 가사는 최 선생님이 했어요. <문취새끼(놀이)> 하고, <꼬리따기> 한 다음에 그 소리가 제일 끝판에 나와요. 이거 할 때는 자진강강으로 돌아서 뛰어나가는 거 했어요.

##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내가 그전에 하던 강강술래예요. (여기) ‘은당초당 꽃방안’이면 얼마나 좋은 방이었어요. 그 방에서 너를 벌, 나비처럼 (대우했더니) 너는 나를 ‘전잎’만도 못 여기난 소리예요. (씩이 나고) 밑에 노랑계 물이 다 빠진 이파리가 ‘전잎’이잖아요. 7, 8월 나락이 피면은 켈 밑에 이파리가 진도말로 ‘진잎’이제. 나락이 쓰러지면 묶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잎

임아임아 정든임아 나는너를 여기기를 은당초당 꽃방안에 별나비로 여겨던이 너는나를 여기기를 칠팔월 나락밭에 진잎만도 못여기냐	강강술래      강강술래
--	----------------------------------

은 땅에 깔아지고, 사람이 다 발로 밟아야지, 그것을. 그렇께 (나를) 그것만도 못 여기냐 그 말이지. 아리랑도 그렇고, 강강술래도 사설을 보면 맨 다 그러더라고요. 님[남네]이 없으면 뭐이든지 노래가 안 되야.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 10

## 배우니까 얼른 배워집시다

- 보유자가 노래 한 절도 못하면 쓰겠느냐
- 그때만 해도 젊었으니까 갈치는 것을 했어요
  - 복을 배운다고 댕겼어요
  - 보기에 관참했는가, 복춤을 쳤지
  - 청와대에 두 번 갔어

# 강강술래

장소 : 진도군 무형문화재전수관

주최 : 강강술래





1993년 8월 2일, 박용순은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이후, 그녀는 보유자의 책임감으로 판소리 명인 이임례에게 <사철가>와 <흥보가>를, 남도잡가 보유자인 강송대를 찾아 <육자배기>와 <흥타령> 등을 배운다. 또한, 진도실버민속예술단에 들어가 장구와 북을 배워 공연을 다니는 한편, 전국 각지를 찾아가 강강술래를 가르치며 전통예술 저변 확대에 힘쓰기도 했다.

## 보유자가 노래 한 절도 못하면 쓰겠느냐

내가 90년도에 (보유자) 후보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93년 8월 2일자로 보유자가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잘하건 못하건 내가 (설)소리 [앞소리 또는 메김소리를 했어요. 공연 같은데 가든 굉장히 떨었어. 그래도 해버리고 나면 속 시원하드만. 국자가 노래를 잘했거든요. 최 선생님하고 운자하고, 국자하고 같이 많이 놀았어요. 겨울밤이면 국자가 노래를 해. 그러든 내가 “너는 거기가 틀렸다.” 그러기는 했어요. 그렇게 시키기까지 함 시로도 나는 노래는 안 했었어.

내가 (1993년에) 강강술래 문화재 보유자가 됐을 때, 이임례 씨가 그러드만. “어디가서 소리도 한자씩 해야제. 강강술래 보유자가 돼갖고 어디 가서 노래하라, 그러든 노래 한 절도 못 하면 쓰겠느냐.” 그래서 중숙이하고 둘이 첨에 (노래 공부를) 했어요. 중숙이는 원래 소리를 잘했대요. 모(내기) 하면 <상사소리> [진도 들노래 중 모심기할 때 부르는 중모리장단의 노래] 같은 거 자기가 앞소리하고 잘했다고 해요.



1982년 국립극장 앞, 앞소리 메기는 모습  
(좌부터 김국자, 박용순, 박윤자, 최소심)



1993년 강강술래 보유자 인정증서 수령하는 박용순

1994년인가, 95년인가 돼요. 겨울이 막 되어갔고 그랬어요. 이임례 씨가 광주(광역시) 양동시장 닭전머리에서 살았거든요. 우리 애기들이 학교 댕김시로 광주에 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종숙이 하고 내가 광주에 가 갖고 우리 애기들 집에서 한 달을 노래를 배우러 닭전머리로 매일 댕겼어. 노래라고 하면 진짜 듣기도 싫어하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쨌던가 댕김서 단가 [판소리 부르기 전에 목을 풀기 위하여 부르는 짧은 노래] 중에 <사철가> [사철의 변화를 소재로 한 단가]도 배우고, <흥보가> 박 타는 대목 끝까지 배웠어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만치 하고는, 나중에 강송대 [姜松代, 1941~,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남도잡가 보유자] 선생한테 우리가 민요하고, <흥타령>, <육자배기> 배울 때는 우리 강강술래 회원들이 다 갔어요. 국자, 종심이, 종숙이, 복자, 부덕 [박부덕(朴富德), 1942~,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명예보유자]이 전부

같이 같이 땀겨어요. 정그름재 [진도를 초입에 있는 고개]에서 배웠어요. 그때 민요를 많이 배웠어. <육자배기>도 “내 정은 청산이요.” 그런 것도 하고, “삼월 삼짱날~” [새타령]의 첫 가사 그런 것도 하고, 많이 알아요. 내가 아주 가사는 엄청 압니다. 안 함께 그라지.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관광할 때 (내가) <홍타령>이고 뭐고 다했어요. 그랑께 동네 사람들이 문화재 자격이 충분하다고 웃고 그랬는데.

## 그때만 해도 젊었으니까 갈치는 것을 했어요

처음에는 (강강술래)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하는 게 뭐인지 몰랐어요. ‘강강술래 문화재야 하든 무엇을 하고?’ 그람시로. 그러다 우수영 사람 정순엽이랑 양애 씨, 한양심 [韓良心, 1935~,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이수자]이



2001년 ‘한국방문의 해 기념’ 강강술래 공연 후  
(우측 세 번째 박용순)

랑 녹진에 가서도 강강술래를 했어요. (어느 날은) 내가 이애주[李愛珠, 1947~2021,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 씨가 불러서 서울대학교에 종심이 데리고 갔었어요. (당시에) 종심이가 (강강술래 전수)조교로 있을 때 텔꼬가서 서울대 학생들 갈쳤죠.

94년부터 2000년까지 거제상고[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걸 2회인가 하고, (거제시민의 날 공연하기 위한) 부인회 지도를 9회 댕겼어. (부인회는) 40~50명 됐어요. 많았죠. 학생들은 더 많았고. 학생들은 시[세] 때로 나갔으니까, 더 많았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여그 질[겉]이 개통 안 되었으니까, 거제 갈라쁜 하루 종일 갔어요. (거제) 시장한테 (기념패도) 탔어요. 거기가 엄청 크더만. 대우도 잘 받고 (했죠.)

처음에 울동만 가르치고, (진도에) 일주일 내려왔다가, 소리를 해주러 갔어요. 우리가 일일이 소리는 하러 댕겼어요. 그랑께 (거제도에) 두 번 씩 갔제. 한 번 가서 며칠을 갈쳐놓고, 그다음에 가서 또 이삼일 해갖고 그날 공연[거제시민의 날 공연]하고 오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젊었으니까 갈치는 것을 했어요. 막 뛰어다님시로 이렇게 뛰고 하면 거제 사람들이 잘했어요. 그 사람들 지금까지 연락해요.

보성[전라남도 보성군] 거는 몇 번 갔죠. 그때 [1995년]는 조담환 씨가 가락을 해서 국자 텔꼬 갔었어요. 보성 분들도 소리는 안 갈쳤어. 어디서 강강술래 가르쳐달라 그라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건 안 해요. 그냥 쉬운 걸로만 했죠. <청어엮기>나 <청어풀기>랑은 다해요. <남생아놀아라>도 쉬운데, 안에 들어가서 춤추게 그렇게 갈치고 (했어요.)

거제랑 보성이 켈 침이었을 거여. 아무튼 부여[충청남도 부여군], 목포, 신

안 가거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도 가봤제. 어디 할 거 없이 강강술래를 가르쳤어요. 지역에 따라서 (배우는 속도가 달라요.) 그제 여러 번 댕겼는데도 못하는 사람은 못한 거 보면. 또, 진도 사람하고 다 틀려요. 진도서는 벌써 몇 번만 가르치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진도 사람은 다 귀명창이에요. 다 들으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얘기들을 가르쳐도 진도 얘기들이 훨씬 낫어.

여기 군내중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는 남자도 소리했어요. 잘해요. <문지기 노래> [문열기], <기외밧기> 같은 것은 다 갈쳤지. 며칠만 가르치면 소리 하더라고요. 전승할 때 (어른도) 얘기들도 긴소리가 제일 어렵죠. 애들이 숨을 길게 못내니까. 그래도 형식은 다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갈치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하더라고요.

## 북을 배운다고 댕겼어요

---

(고법) 소리북 [판소리 반주에 쓰는 북]도 사갖고 배웠지요.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원모리, 휘모리, 진양조 다 했어요. 소포 [전도군 지산면]에 추정남 [秋正南, 1942~2019,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씨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북을 가르쳤어. 그랑께 여그서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소포까지 추정남 씨한테 북을 배운다고 또 댕겼어요.

재준 [박재준(朴在俊), 1959~, 국가무형문화재 남도들노래 전승교육사]이랑도 전부 그분한테 배웠죠. 차영순 [車英順, 1953~,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보유자]이 말이, “언니도 얼른 우수영이로 오소.” 그랑께 중심이하고 나하고 둘이, 딱 한 번 갔어요. 북을 들춰 미고 가니까, 여럿이 시연을 하더라고요. (추정남 씨

가) 잘합디다. 그때 수강료는 얼마나 줬는가 모르는데, 북 배울라면 다 북을 사라강께 20만 원씩 주고 사고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강강술래 끈들이 북을 떴이 샀어요. 그 계기로 내가 실버예술단 [현 (사)진도민속문화 예술단, 2006년 진도실버예술단으로 설립]에 가서 북을 해봤제.



박용순의 북과 장구



진도실버민속예술단 북놀이 공연에서 북춤을 추고 있는 박용순

## 보기에 팬참했는가, 북춤을 찾지

사람이 나이가 먹고 학생들도 가르치려 땀기니까, (학생들이) 나이 먹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 가니까 애들이 (나보고) 할머니라가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안 해야 되겠다.’ 그라고 학교를 접었어요. 인제 어디를 가야될까, 내가 그렇게 장구라고 하면 아주 보기도 싫고 했는데, 이상하니 (배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버예술 단예를, 노인들만 하는 예술단을 갔어. 진도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 땀김시로 장구도 조금 했는데, 열심히 배우면 금방 하겠습디다. 어설피 배워갔고 목포 학교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2009년 입학, 2013년 졸업] 땀길 때, 학교도 공연이 늘 있잖아요. 그럴 때 실버예술단이 들어와서 노래 하면 내가 춤추면서 장구 쳐 주고 (했어.)

북놀이는 오환 [조오환(曹五煥), 1949~, 전라남도 무형문화제 조도땀배노래 보유자]이한테 배웠는 거 같애. 앉은반 북 [앉아서 사물놀이처럼 치는 북], 설북 [서서 춤을 추며 치는 북] 그렇게 구분했어요. (나는) 설북 먼저 해서 북춤 북 쪼간한 걸 샀어요. 보기에 팬참했는가 어디 국악원에서 북춤을 추라고 해서 북춤을 찾지. 은영 [강은영, 1965~, 국가무형문화제 진도셋김치, 승무 이수자]이랑 잘하는 사람들 있는데, “내가 북춤을 취야?” 그라고 갔어. 하라니까 민요도 하고 했어요. 한 2년 정도 설북(춤)을 치다가, 젊은 사람들이 설북을 치니까, ‘나는 앉았는 북을 쳐야 쓰겠다.’ (하고,) 앉은반 북을 또 배웠어요. 나이 먹은 엄마들 일고 여덟이서 앉아서 그케 했어요. (사실) 설북이 더 어렵죠. (그래도) 배우니까 얼른 배워집디다.

그때만 해도 실버예술단이 처음 하니까, 장터 땀김시로 무료 공연을 했지. (조오환 씨한테 배운) <땀배노래> [전라남도 무형문화제 <조도땀배노래>, 진도

군 조도면 일원의 어민들이 조기잡이를 하며 부르던 어로요도 했어. 강강술래도 내가 (실버예술단 멤버들) 줌 갈쳐갖고 인천 가서도 한 번 했죠. <얼씨구 학당> [1995년부터 방영한 광주 MBC의 장수 프로그램]에도 강강술래 하러 갔어요.



진도실버민속예술단의 북춤 공연(중앙 박용순)



2018년 강강술래 공개행사에서 강강술래 회원들과(아랫줄 좌측 네 번째 박용순)

## 청와대에 두 번 갔어

보유자들 초청해서 청와대에도 갔지. 나는 김대중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대통령 할 때 [1998년 12월 10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초청 오찬] (갔는데,) 지금 (한) 20년 되었어요.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었고 (보유자들을) 오찬에 모신다고 그러드만. 그때 김길임 씨하고 나하고, 박병천 [진도 셋김굿 보유자], 강준섭 [진도다시래기 보유자]이도 왔으니까. 하튼 진도선 돌인가 서닌가 갔을 거예요.

(나는) 청와대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도 몰르고, 목포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몇 시까지 오라고 함께, 그날 갈라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 비행장에 내려갔고 택시를 탔어. 그리고 청와대까지 갔어. 메뉴가 뭐 있는가 몰라도, 상 위에다 이름 딱 써놨더라고요. 그때는 조상현 [趙相賢, 1939~, 전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2008년 해제)] 씨하고, 성창순 [成昌順, 1934~2017,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안숙선 [安淑善, 1949~,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이 몇이가 앉았었어요. 갈비찜도 나오고, 새우도 나오고, 잣죽도 나오고 대접 잘 받았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것은 문화를 잘 이끌어 나가달라, 그런 얘길 한 거 같아요. 노래는 조상현 씨가 한자리 부르고 (그랬어요.) 요번에 [2019년 7월 2일]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영부인이 청와대에 초대했어. 가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 오찬] 한 번 한 것이 20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청와대 두 번 갔어, 두 번.

남들은 청와대를 침 강게 모르더만. 나는 가봤으니까. 앞에 나무가 짙섯잖아요. 차가 그리 안 들어가고 가이로 [옆으로] 들어가드만. 전부 (국

립)고궁박물관에 모였어요. 거그서 1호차 몇 명, 2호차 몇 명 명찰 딱 주고 타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번에도 김대중 대통령하고 똑같이 우리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우리 전통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했어요.) 말씀 잘하시고 이쁘고 늘씬하고 그라드만. 그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악수하고, 사진 촬영하고 앨범 만들어서 2개월 뒤에 부쳐준다 하드라고요.



2019년 7월 2일 국기무형문화재 보유자 초청 오찬  
(중앙에 검정 옷을 입고 서 있는 박용순)

# 11

## 마음과 뜻만 맞으면 잘할 수 있어요

- 편지를 보고 엄마를 생각했어요
-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없어
- 그래도 마음은 대학에 가고 싶드만
  - 원형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 조심해야 쓰것다, 잘해야 쓰것다
  - 지금 원이 하나가 있는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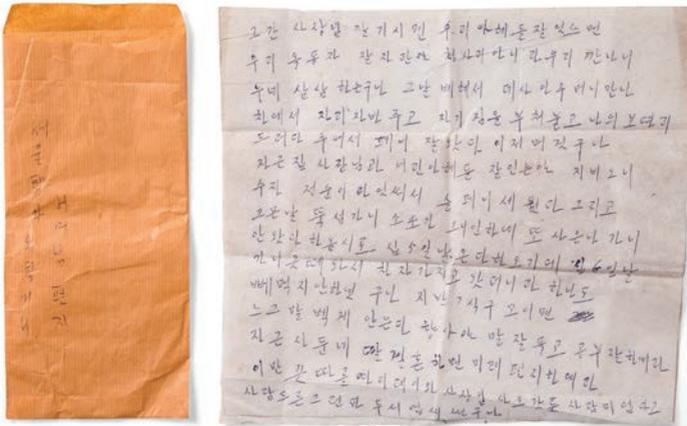


이제와 돌아보니 ‘어뜨케’ 살아왔나 싶다. 어머니의 고생을 지켜본 일, 8남매와 시동생들, 그 조카들까지 품어 안은 세월, 강강술래를 배우고 가르쳤던 일까지...

지금도 박용순은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 있다. 배움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 소원이 있다면 강강술래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켜내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것이다.

## 편지를 보고 엄마를 생각했어요

엄마가 옛날에 우리들한테 써 준 편지도 있어요. 서울 가갖고 편지를 했더라고요. 옛날 사람이라 받침도 좀 틀리고 그랬어도, 내 그걸 안 버리고 놔뒀어요. 서울에서 진도로 보낸 안부편지예요. 우표도 없이 편지 왔네. 그렇게 누구 편에 왔는가, 어쨌는가 그런 거 같아요. 내가 (그동안) 엄마를 생각 안 했는데 편지를 보고 엄마를 생각했어요. 향아 [박용순의 큰딸]를 낳았을 때, 친을 100쪼가리를 이서갖고 애기 저고리를 만들어 준 할머니예요, 올 엄마가.



박용순의 친정어머니 허섬애가 보낸 편지와 겹봉

그간 사장님 잘 기시면, 우리 아해들 잘 있으면, 우리 우동자 잘 자란다냐.

청산이 아니라, 우리 간난이 눈애가 삼삼하구나. 그날 배에서 대사 아주머니를 만나 차에서 자리 잡이주고, 자기 짐을 부쳐놓고, 나의 보따리를 들어다 줘서 편히 잘 왔다. 잊어먹었구나. 작은 집 사장님과 어린 아해들 잘 있느냐. 집에 오니 수자, 정순이 다 있어서 설 편히 세웠다. 그리고 오든 날 똑섭 가니 소포가 안 왔다.

또, 사흘이 가니 소포가 안 왔다 한음시로 15일 날 온다 하오기에 16일 날 가니, 그때 와서 찾아가지고 왔더라. 하나도 빼먹지 안했더구나. 집안 식구 모이면 너거 말 백에 앓는다. 향아야, 말 잘 듣고 공부 잘하여라. 작은 집 사둔네 딸 결혼하면 미리 편지하여라.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은 너거 같은 사람들이 없다고 그런다. 두서없이 썼구나.

노인이라 받침이 틀려요. 나도 지금 틀리는데, 뭐. 여서 '사장님'은 사돈 들이예요. '청산이 아니라.' 그 말은 '헛말이 아니라.' (그 뜻이예요.) 우리 큰아들 낳았을 때 [1975년 이동기 출생 무렵] 왔으니까. 눈애가 삼삼하다고. 그때 (진도에) 왔다 가면서 대사 [진도군 군내면 녹전리] (사는) 아주머니가 보따리도 들어다 주고 편히 갔다고 하시네요. 엄마가 간 뒤로 (서울에) 소포를 부쳤는데 (우체국에) 찾으러 가도 안 오고 그렇게 다음에 찾았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할머니가 서울에 있는데, 우리 딸이 학교 땡깡계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어라. 딴 사람 만나면 느그말을 한다, 내가 읽어보게 그 소리드만. (편지 쓴지) 한 45년 됐것어요. 우리 아들 낳았을 때 옥동자라 했으께, 아들이 지금 45(살)인가 되거든요. 그렇게 애기 낳았으니까 보러 왔다가 (서울) 가갖고 편지를 쓴 거여.

##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없어

항상 (돈이) 없어갖고 못 배우고 그란 것이 마음에 한이 되드마. 그래서 내가 시아재부터 갈칠라고 노력했고, 또 (우리) 애기들도 어찌든지 갈쳐야 쓰것다 그라고. 내가 항상 배워야 쓰것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아주 명심을 했었어요.

목포정보중고등학교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1961년 개교한 전라남도 교육감 지정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줄 알았으면 더 빨리 갔을 거인데, 전혀 그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어뜨케 해서 학교가 있다는 걸 알았죠. 처음에 전단지를 봤어요. 목포제일중고등학교 만학도 학교에서 뭇 한다고, 새학기만 되면 전단지를 갖다 붙이고 그러드만. 그것을 보고 내가 72살 [2009년]에 입학을 했죠. 할아버지도 못 배웠으께 둘이 가면 쓰것드만, 할아버지

는 안 간대요. 그래서 내 혼자 가서 입학했어. 거기가 국민학교도 안 대닌 사람도 (공부할 수 있게) 국민학교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나는 국민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향동 학교에 가서 증명서를 했제. 그리고 중학교부터 들어갔어. 입학식 했을 때 (기분이) 좋죠. 그런데 보면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없어.



박용순의 필기 공책

지금 같으면 못 땡기는데, 그때만 해도 젊었던가 아침에 할아버지가 차로 녹진까지 실어다 땡었어요. 아침에 일찍하니 나가죠. 그람 녹진서 버스타고 목포 터미널 내려갔고 1번 버스 타고 가요. 또, 가다가 목포 어디 광장에서 내려갔고 학교까지는 한 10분을 걸어야 돼. 그런데 매일 못하고 나는 일 때문에 걸석을 많이 했어. (학교) 안 가는 날은 오후 밤 되도록 죽으나 사나 일하고, 학교 가는 날은 가고. 그리고 겨울에 일 없을 때는 더 많이 땡기고 그랬어요.

중학교는 반이 3반까지 있었던가, 4반까지 있었던가, 하여튼 겁나게 많았어요. 열 몇 살 먹은 맨 어린 애기들도 있고 칠십 넘은 사람까지 다 같이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제. 이제 시험 볼 때는 우황청심환 먹어요. 아이고, 시험 본다고 아주 하루 진땀을 빼지. (낮에는) 일

도 했죠. 수업시간에 써갖고 집에 와서 또 노트 정리하고, 밤이로 공부하고 그래도 (성적이) 떨어져. 그랑께 중심이가, “뉘 놈의 이제 학교 댕기냐?” 면서 나보고 안 빼고 잘 댕긴다고 그러대요. 하여튼 학교 댕김시로 참 즐겁게 댕겼어요. 하나라도 알아지고, 또 배운다는 게 그렇게 중하더라고요.

## 그래도 마음은 대학에 가고 싶드만

---

(중학교) 2년 댕기고 졸업하고는, ‘에이, 졸업했으니까 고만해야 쓰것다.’ 그랬는데 그것이 또 아니더라고요. (중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고등학교 댕겨야제. 그라고 고등학교 댕겼어요. 고등학교도 거기가 만학도라 해서 시원찮은 데가 아니더라고요. 시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역사도 배웠죠. 배울 건 다 배워요. 음악도 잘 가르쳐.

다 젊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제일 할머니잖아요. 한문을 내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한문 선생이 (나보고) 노인이 (글씨를) 잘 쓴다고 합디다. 내가 그때 한문을 배워가지고 중국을 여행 갔었어요, 우리 가족 여행. 그랬는데 좋더라고요. 한문을 더 몰라도 아는 글씨가 있음께. ‘와! 내가 배웠으니까 저것도 안다.’ 그라고. 애기들한테 내가 뵈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딸들이) “아따, 엄마 어쨌든지 학교 댕김께 그렇게 잘했소.” 그랬는데. 나이를 많이 먹다봉께는 지금은 다 잊어부렀어. 영어도 이상 배웠어요.

(그리고) 즐거운 것이 가을에는 운동회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노인이 언제 그렇게 (놀고) 하겠어요. 어린 사람들하고 같이 댕기면서 소풍도



2011년 2월 10일  
목포제일정보중학교 졸업증서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앞줄 좌측 두 번째 박용순)

가고, 졸업여행도 가고 아주 다 했어요. 얼쩡얼쩡 댕겼어도 (학교) 갈 때는 가고, 할 것 다 하고 (그랬지요.)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대학교를 가고 싶드만. 내가 칠십 다섯 [2013년, 76세]에 대학교를 가고 나면 팔십 되어서 졸업할 것인데 '아이고, 이것이 뭘 일이나.'하고 내가 (대학교는) 안 갔지. 그래도 마음은 가고 싶드만.

## 원형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침에는 우리 부락 [군내면 둔전리] 사람 많으니까, (공연이나 행사를) 우리 부락 사람들까지 하고, 동외리 사람 많으니까 (따로) 하고 했는데, 세월이 가다보니까 사람이 적어지잖아요. 나중엔 합칠 수밖에 없죠. (옛날에) 사람이 많았을 때도 활동은 (해남 우수영하고) 같이 했어요. 문화재청 소관으로 (발표회) 가는 것은 해남하고 같이 가고, 그럴 때는 최선생님 가르친 전통 강강술래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딴 것 안 넣고 원형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동외리, 우수영 사람들하고) 80년도부터 같이 했다게도 지금 몇 년이  
예요. 한 40년을 아무 불평 없이 여태까지 잘해왔어요. 그라고 어떤 때  
는 공연이 막 기냥 (잡혀요.) 올해 [2019년] 9월 달에도 세 개나 찍혔구  
만. 지금까지 강강술래 가는 데는 하나도 안 빠졌죠.

## 조심해야 쓰것다, 잘해야 쓰것다

---

지금 내가 그래요. 나는 우리 최 여사님을 따라댕겼을 뿐이고, 조교도 아  
닌데 나를 후보 [보유자 후보]로 만들어 주셨어요.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첨에  
는 내가 그런 것 [보유자]을 해야 쓰것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유자가 된 지가 30년 되었어도 누구한테, “내가 보유자  
다.” 그 말 안 해봤어요. 나 솔직한 말입니다. 요번에 청와대 갈 때도 우  
리 마을 사람들이나, 우리 형제한테 “청와대 초청받아 간다.” 그 말 안  
했어요. 갈 때만 애기 아빠 보고 “내일 간다.” 그 말만 하고 갔지. 전에는  
강강술래 할라든 기냥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고, 옷을 싸갖고 나가요.  
좋은 옷도 안 입고 댕겨요. 그냥 구질구질해이 몸빼 [교무줄 바지]도 입고  
나가고, 싸갖고 가서 입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제. 내가 보유자라고 넘한  
데 (말)하기 싫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께 그랑가 몰라도.

그라고 학교 [목포계일정보중고등학교] 가서도 보유자란 말 안 했거든요. 근테  
어찌케 내중에 (학생들이) 알았어. 나는 말 안했는데 (강강술래) 댕기  
는 사람들로 해서 그런 말이 나와 갖고 알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민요도 하라하고, 장구도 치라하고 그라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인터뷰  
같은 것도 시키고 그러드만. (스스로 나서는 것이) 굉장히 보기 싫었어.

내가 항상 너 앞에 내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항상 내가 너가 안 갖는 거 갖고 있으면서 너한테 ‘조심해야 쓰겠다. 잘해야 쓰겠다.’ 그래요.

## 지금 원이 하나가 있는 건

---

너들은 하다 뻘치면 안 한다는데, 한번 잡으면 내가 성격이 그래요. 어제도 반지락 [바지락] 한 망 사갖고 다 깎았어요. 전에는 8시간 딱 앉아서 까면 까는데, 어제는 한 10시간이나 앉아서 깎았어요. 그렇게 성격이 한번 손 잡으면 밤에도 몇 시간 되도록 그걸 (끝날 때까지)하고 해요. 그게 안 됐죠, 안 좋은 버릇이요.

내가 그래도 자식들은 걱정 없이 저거들 다 눈 떠서 밥 먹고, 잘살고 있으니까. 내일 일은 모르나 오늘까진 다 잘살고 있을게. 나이도 이만치나 살았으니까, 내일 죽어도 아무 뭇이 없고 그렇잖아요. 다만, 우리 최 선생님 비(도) 옮겨 봐야 할 거인데, (그것 빼고는) 지금은 내가 별로 걱정이 없어요.

또, 지금 원이 하나가 있는 건 내 밑에 조교라도 하나 만들어놓고 내가 죽는 거, 그것이 제일 소원이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강강술래 하러) 많이 와요. 목포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조교들도 나이 먹고, 종심어도 나이 먹고 이랑께. 조교도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 갖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화합하고 더 발전해서 더 잘해나갔으면 쓰것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몇 십 년을 강강술래 (전승을) 하고 있어도 화목하거든요. 딴 데다 물어봐도 다 알 겁니다. 마음과 뜻만 맞으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어요.

## 조사자 약력

**이경엽**은 구비문학과 민속학 전반에 대해 연구하면서 전통을 오늘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이끌어온 민속문화의 내력을 탐구하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 연대와 공감의 의미를 현재화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예인들과 전통지식을 전승하는 분들을 만나 살아온 이야기와 구술자료를 녹취하고 영상으로 만드는 일에도 흥미를 갖고 있다. 『네 가지 열쇠말로 읽는 섬의 민속학』(민속원, 2020), 『씻김굿, 삶의 끝자락에서 펼쳐는 축제』(민속원, 2009), 『중요무형문화재 제 81호 진도다시래기』(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밤다래 하는 사람들, 상례 놀이의 문화사』(민속원, 2016), 『산다이, 청춘들의 노래와 연애생활사』(민속원, 2016), 「단절 위기 공동체놀이의 전승현황과 계승 방향-강강술래를 중심으로-」(2009), 「무형문화재와 민속 전승의 현실」(2004), 「파시의 파노라마적 풍경과 파시 주체의 욕망」(2017), 「전통향해술과 전통지식: 강진 옹기배사공 신연호의 사례」(2019), 「바다·삶·무속: 바다의 의례적 재현과 의미화」(2013) 등의 논저가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자서전 041]

강강술래

박용순(朴龍順, 1938~)

달이 떴다 지도록 놀아요

구술 박용순(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보유자)

조사·면담 이경엽(목포대학교)

사진 주병수, 전일연

발행 국립무형유산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 063-280-1506 | www.nihc.go.kr

총괄 이종희

기획 송민선

교정 방소연, 문예은

구성·편집·디자인 (주)디자인공공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45 SR파크원 508호 | 044-417-6126

구성 작가 함윤정

발행일 2021년 12월 10일

ISBN 978-89-299-2341-9 94600

ISBN 978-89-299-1204-8 [세트]

발간등록번호 11-1550246-000042-01

© 2021 국립무형유산원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인용,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 2021 by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Not for Sale. All rights reserved including the rights of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 in any form. [printed in KOREA, 2021]

달떠온다 달떠온다 강강술래 동해동천 달떠온다 강강술래  
저야달은 누달이나 강강술래 방호방네 달이로세 강강술래  
방호방은 어디가고 강강술래 저달뜯줄 모르느냐 강강술래

- 긴강강술래 中

